

땅의 양식

Les Nourritures Terrestres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앙드레 지드의 『땅의 양식』은 1893년 아프리카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작가 자신이 직접 “도망과 해방의 교본”이라고 부른 작품으로 그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여행의 이야기를 시적(詩的) 산문으로 들려 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한 시기의 유럽 젊은이들은 이 책을 ‘현대의 바이블’로 여겼다.



OJJE CLASSICS

땅의 양식

Les Nourritures Terrestres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땅의 양식》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주)헤럴드는 출판인쇄를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친의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대진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 @olje classics ⚡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옮기고 나서

몇 해 전만 해도 우리가 미처 짐작도 못 하던 소련의 오늘의 변모는, 반세기 전에 이미 그것을 정확히 예언한 앙드레 지드의 『소련 기행』(1936)을 떠올리게 한다. 평등 사회 건설이라는, 인류 역사상의 그 첫 시도에 유달리 이해와 공감을 보이던 그의 소련 방문은, 온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센세이션이었고, 따라서 그 시찰 보고에 그들의 관심이 쏠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을 읽은 인텔리들의 반응은 그 입장에 따라 찬동에서 비난에 이르는 천차만별한 것이었지만, 그 여행에 지대한 기대와 환호를 보내던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의 그것은 실망과 비난 일색이어서, 그를 배신자나 변절자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신흥 관료 집단의 독선, 획일, 인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몹시도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어떤 신념과 관습에 굳어 버린 사람을 논리로써 반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당시의 지드의 쓴웃음도 그런 새삼스러운 자각에서 오지 않았나싶다. 그렇듯 굳건해 보이던 관료 조직들이 마침내 곳곳에서 뒤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념의 실천을 제멋대로 독차지해 오던 그 옹고집 세력들이 마음을 돌이켜, 지드가 옛날에 육먹어 가며 가리켜 보이던 그 길로 돌아서기 시작한 셈이다. 역사의 엄청난 아이러니다.

지드의 눈이 가장 밝았던 셈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인간 본성에 뿌리내린 그의 이성, 어떤 힘에도 굽히거나 흐려지지 않는 지성과,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의 부단한 성실성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지드를 한물간 작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줄기차게 파헤치고 들추어낸 문제들은 지금도 가장 요긴한 당면 과제로서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 누보로망을 예고한 듯한 순수소설의 탐구(《사전군들》(1925))도 그렇지만, 새로운 모럴과 신앙의 추구에서 갖가지 사회 문제의 비판에 이르도록, 그의 개혁 정신은 보기 드물게 포괄적이어서, 이 세기의 문명을

대표할 가장 높은 봉우리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근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에
는 루소가 서 있다지만, 현대에서 비슷한 구실을 한 것이 지드라면 과언이 될까?
내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중학 4년 때로, 바로 두 권의 『소련 기행』이 잇달아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일제의 방공 정책이 판을 치던 무렵에 나온 일역본이 베스
트셀러가 된 사실에 호기심이 끌려 사서 읽었다. 비판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동조
나 칭찬도 곁들여진 그 책을 퇴학 처분도 각오하고 숨어 읽으면서, 내가 겪은 내
주변의 일인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맹종하던 그 맹추 같은 일인 말고도 이런 책
을 읽는 일인도 많다는 사실에 은근히 감탄을 금하지 못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
다.

나는 이어 『배덕자』와 『땅의 양식』을 읽었다. 그 신선한 충격을 무엇에다 비길 수
있을까? 앞뒤가 꽉 막혀 답답하던 그 시절에는, 마치 오랜 가뭄 끝의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함이었다. 덕지덕지 끼인 역사의 때를 고성능 세제로 말끔히 닦아내고
드러낸 인간 본성의 눈부신 광채라고나 할까? 미덕은 없고 그 허울만이 얼기설기
뒤얽혀 있던 그 거짓의 시대에, 그토록 진솔한 인간 탐구가 지구 저편에서는 가능
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람이고 고마움이었던가!

어쨌든 어리고 여린 내 뒷에 대한 지드의 세뇌는 이렇게 비롯되었다. 그를 통해 나
는 프랑스 문학에 입문하게 되었고, 『배덕자』의 주인공인 고고학도 미셸의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자각과 몸부림이 나 자신의 것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당시의 내
가 처해 있던 식민 교육의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규율과 봉건 인습, 교회의 금지투
성이 계율이, 나를 억누르는 세 계의 굴레로 자각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방랑으로 둔갑해, 어떤 직장에도 안주하지 못한 나는 동경과 베이
징 등지를 해방 이듬해까지 헤매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옛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자.

정년 퇴임 이듬해인 1986년 2월에 나는 미셸의, 아니 지드 자신의 신혼여행 코스를 되밟아 아말피만을 렌터카로 달려 보았다. 그가 들렸음직한 포지타노의 길가 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그가 마차 마부를 때려눕히던 고갯길이며 그가 묵었던 라 벨로도 기웃거려 보았다. 그 새파란 지중해 바다를 굽어 보던 내 눈길에는, 어린 날의 내 영세 신부이던 지드의 모습이 가는 곳마다에서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정 말이지 나의 지드와의 만남은 숙명적이라는 느낌마저 들며, 그런 느낌은, 그를 몰랐을 경우의 내 삶이 짐작도 가지 않을 정도로 절실하다.

작자 자신이 ‘도망과 해방의 교본’이라고 부른 《땅의 양식》에 관해서는 긴말을 삼가겠다. 작품 자체가 누구보다도 응변적으로 말해 줄 테니까. 나는 1990년에 다시 읽어 보고, 새로운 감명을 다시 느끼면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또 젊음을 잃어 가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꼭 읽히고 싶은 욕심에서다. 그 렐싸한 허울에만 둘러싸여 속아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그 속 깊숙이 감춰져 있는 본질을 깨닫게 해 주고 싶어서, 가장 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반성하게 해 주고 싶어서.

1차 대전 후의 정신적 혼미기에 유럽 젊은이들에게 ‘현대의 바이블’로 받아들여진 이 작품에서, 또 다른 혼미기에 빠져 있는 우리도 자신의 젊음을 되찾아 보기를 바라면서. 더구나 66살 난 지드의 새로운 양식과 아울러 읽어봄으로써 그가 얼마나 젊음과 새로움을 잃지 않는 작가인지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1995년 10월
옮긴이 씀



차례

옮기고 나서	5
1927년판 머리말	11
빵의 양식	
제 1 부	15
제 2 부	31
제 3 부	43
제 4 부	54
제 5 부	81
제 6 부	97
제 7 부	115
제 8 부	132
새로운 양식	
제 1 부	143
제 2 부	144
제 3 부	166
제 4 부	177
	190

땅의 양식

Les Nourritures Terrestres

내 친구 모리스 키요에게

우리가 땅 위에서 먹고살아온
열매들이 여기 있다.

『코란』 2, 23.

1927년판 머리말

1926년 7월

도망과 해방의 교본인 이 책 속에 사람들은 나를 가두려 들기가 일쑤다. 이 중판에 즈음해서 새 독자들에게 몇 가지 반성을 털어놓겠다. 이 책의 위치와 동기를 더욱 푸렷이 밝힘으로써 그 중요성을 줄여줄 수도 있을 반성들을 말이다.

1. 《땅의 양식》은 설사 병자의 작품은 아니더라도, 병이 나아가거나 나은 사람의—병을 앓아본 사람의 작품이다.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그 무엇인 양 생명을 부둥켜 안는 그런 사람의 과격함이 들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리리시즘(Lyricism) 속에조차도.

2. 문학이 어색하고 고리타분한 냄새를 몹시도 풍기던 무렵에 나는 이 책을 썼었디 ; 문학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 흙을 소박하게 밟도록 해 주는 일이 다급해 보이던 무렵에 말이다.

이 책이 당시의 기호에 얼마나 어긋났던가는 바로 그 완전한 실패로도 짐작이 간다. 어느 비평가도 언급하지 않았다. 10년 동안에 고작 5백 부가 팔렸던 것이다.

3. 결혼으로 내 생활이 가까스로 틀이 잡히던 무렵에 나는 이 책을 썼었다 ;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수록, 예술 작품인 내 책이 당장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던 무렵에 말이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쓰면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성실했었다 ; 게다가 내 마음속의 반박에 있어서도 똑같이 성실했던 것이다.

4. 내가 이 책에만 집착하지 않을 작정이었었다는 말도 덧붙여둔다. 내가 그러내던 그 빈둥빈둥 떠도는 상태의 모습을 나는, 마치 소설가가 자기를 닮았지만 꾸며

내기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듯이 묘사했었다 ;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그 모습을 나한테서 떼어놓지 않고서는, 이를테면, 아니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나를 그 모습에서 떼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그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 기조차 하는 것이다.

5. 사람들은 이 젊은 날의 작품에 따라 나를 판단하기 십상이다, 마치 양식들의 윤리학이 바로 내 평생의 윤리학이었기라도 하듯이, 마치 내가 내 젊은 독자에게 주는 충고, “내 책을 팽개치고 나를 떠나라”는 충고에 맨 먼저 따른 것이 내가 아니 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아니다, 나는 양식들을 쓰던 때의 나를 당장에 버렸던 것이다 ; 내가 내 삶을 살펴보더라도 눈에 띄는 두드러진 특징이 변덕이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함일 정도로 말이다. 마음과 생각의 이 꾸준한 충실성은 몹시 보기 드문 것으로 믿어진다. 자기가 이루어 내기로 마음먹었던 바가 이루어져 있음을 죽기 직전에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을 좀 대달라, 그들 곁에 내 자리를 잡겠다.

6. 한마디 더 : 더러는 이 책에서 욕망과 본능의 예찬밖에 볼 줄 모르거나 보려고 들지 않는다. 그건 좀 좁은 견해로 여겨진다. 나로서는 이 책을 다시 읽을 때 눈에 띠는 것은 그보다도 사뭇 더 궁핍의 두둔이다. 내가 나머지를 다 버리고도 간직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고, 내가 여전히 충실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완전한 자기실현과 가장 강력한 요구, 가장 무제한인 행복의 허용을, 자아를 잊는 데서 찾기 위해, 그 후에 복음서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간 것도, 바로 이것 덕분이다.

“이 책 자체보다는 너에게 더욱,—그리고는 너보다도 그 밖의 모든 것에 더욱, 네가 관심을 갖도록 내 책이 가르쳐 주었으면.” 이것은 양식들의 머리말과 끝 구절에서 네가 이미 읽을 수 있었던 말이다. 그것을 굳이 되풀이할 까닭이 뭐인가?

A. G.

나타나엘, 오해하지 말게

나타나엘, 내가 좋아서 이 책에 붙인 거친 표제에 대해 오해하질 말게. 메날크라고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메날크는 너와 마찬가지로 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책에 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이름은 나 자신의 이름이겠지만, 그럼 저자 서명을 내가 감히 어떻게 했겠는가?

나는 꾸밈도 수줍음도 없이 이 책에 착수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나, 맙아본 적도 없는 향기들, 해 본 적도 없는 행동들에 대해 말하더라도—또한 내가 여태 만나본 적도 없는 너에 대해 말하더라도,—그건 위선 때문은 아니며, 또 그런 것들이 내 책을 읽게 될 나타나엘보다도 더 거짓말인 것도 아니다. 장차의 네 이름을 몰라서 내가 붙인 이 이름보다도 말이다.

다 읽고 나거든 내 책을 팽개쳐라.—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뛰쳐나갈 욕망을 이 책이 네게 주었으면 한다—네 도시에서, 네 가정에서, 네 방에서, 네 생각에서, 아무 데서나, 뛰쳐나갈 욕망을 말이다. 내 책을 갖고 가질랑 말라. 내가 메날크라면 너를 인도하려고 네 오른손을 잡았겠지만, 네 왼손은 그걸 몰랐을 거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멀어지자마자 얼른 그 손을 놓아주고는, 나를 잊어 버리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 책 자체보다는 너에게 더욱,—그리고는 너보다도 그 밖의 모든 것에 더욱, 네가 관심을 갖도록 내 책이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제 1 부

오래 잡들었던 내 계으른
행복이 깨어난다.

하피즈

I

나타나엘, 도처 아닌 딴 곳에서 하느님을 찾을 생각일랑 말라.

피조물마다가 하느님을 가리켜 보이지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피조물은 저마다 우리의 눈길이 저한테 몇자마자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따돌린다.

남들이 책을 내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반대로, 전에 머리로 배운 것을 모조리 잊느라고 3년 동안을 여행으로 보냈다. 그러한 탈교육은 느리고도 힘들었다 ; 그것이 내게는 사람들이 시켜서 한 모든 교육보다도 더 유익했고, 정말이지 하나의 교육의 시작이었다.

삶에 관심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했던 노력들을 너는 도저히 모를 것이다 ; 그러나 삶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지금, 그것은 열렬할 것이다—만사가 다 그렇듯이.

나는 내 육신을 즐겨 벌했었다, 실수보다도 벌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며—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만심에 그토록 도취해 있었던 것이다.

보람이라는 생각을 아예 자기 머리에서 지워 버리라 ; 커다란 정신 장애가 바로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갈 길들이 확실치가 않아서 우리는 평생을 시달려왔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해 주겠는가? 선택이란 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 어떤 의무에 이끌리지

않게 되고 만 그런 자유는 끔찍한 것이다. 그것은 사방이 다 낯선 고장에서 택해야 하는 하나의 길이며, 거기서는 저마다가 자기 발견을 하게 되지만, 자기만을 위해 서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 따라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가장 아리송한 발자취도 이보다는 사뭇 덜 수상쩍을 것이니…그늘진 덤불들이 우리를 유인한다 ; 아직은 말라붙지 않은 샘물들의 신기루…그러나 샘물들은 오히려 우리의 욕망들이 속세 하는 곳에서 솟아날 것이다 ; 왜냐하면 그 고장이란 것이 우리가 다가가며 만들어 주는 데 따라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주위의 경치도 우리의 발걸음 앞에서 차츰차츰 배치되는 것이니까 ; 또 우리는 지평선 너머는 보지도 못한다 ; 또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것은 잇닿아 변형될 수 있는 하나의 걸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데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서 왜 비유들을 내세우는가? 우리는 다 하느님을 발견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면서 딱하게도 우리 기도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가 도처에, 아무 데나 다 있다고, 발견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는 닦치는 대로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엘, 너도, 자신을 이끌려고 스스로 자기 손에 든 등불을 따라갈 그런 사람과 비슷해 질 것이다.

어디로 가건 너는 하느님밖에 만날 수가 없다. 메날크는 말했었다 : —하느님이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분이다.

나타나엘,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되, 어디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만이 덧없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네 눈길 속에 있지,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분명한 지식들은 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는 분명히 따로 남을 것이다. 너는 어째서 그런 것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가?

욕망들에는 이득이 있고, 욕망들을 채워 주는 데도 이득이 있다—그 때문에 욕망들이 불어나니까. 왜냐하면 나타나엘, 내가 진실로 네게 하는 말이지만, 내 욕망의 대상 자체의 늘 헛된 소유보다는, 욕망 하나하나가 나를 더 많이 가멸차게 해 주었으니까.

나타나엘, 술한 감미로운 것들을 위해 나는 사랑을 쏟아 왔다. 그것들이 눈부신 것은 내가 그것들을 위해 노상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칠 수가 없었다. 열정 모두가 내게는 사랑의 소모, 감미로운 소모였으니까.

이단 중의 이단이던 나는 동떨어진 의견들, 막간 생각들이며 서로 엇갈린 생각들에 노상 마음이 끌렸다. 사람 하나하나의 정신은 남들과 다른 점에서만 내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나에게서 동정을 몰아내고 말았다. 동정에서는 이미 공통된 감동의 인식밖엔 보이지가 않아서.

나타나엘, 동정이 아니고,—사랑이다.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지 말고 행동하라. 그게 선인지 악인지를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라.

나타나엘, 나는 네게 열정을 가르쳐 주겠다.

나타나엘, 평온보다는 차라리 비장한 삶을. 나는 죽음의 잡이라는 휴식 말고는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 평생 동안 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할지도 모를 모든 욕망, 모든 기운이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나는 두렵다. 내 속에서 대기하던 것을 모조리 이 땅 위에 드러내 놓고 나서, 만족해서, 완전히 절망해서,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나타나엘, 동정이 아니고, 사랑이다. 어때, 너도 알겠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님을. 그러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슬픔과 근심과 고통에, 때로는 내가 동

정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은 저마다에게 맡겨두라.

(곳간에서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쓸 수가 없다. 어제 나는 그 바퀴를 보았다 ; 유채를 타작하고 있었다. 알이 날아오르고, 씨가 땅에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먼지로 숨이 막혔다. 한 아낙네가 맷돌을 돌리고, 귀여운 사내아이 둘이 맨발로 씨를 주워 모으고 있었다.

더 할 말이 통 없어서 나는 울고 있다.

이것밖엔 더 할 말이 통 없을 때는 쓰기 시작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썼고, 또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것들을 역시 쓰게 될 것이다.)



나타나엘, 여태껏 어느 누구도 너에게 주지 않았을 기쁨을 내가 주고 싶구나. 그 것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는 모르면서도, 그 기쁨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태껏 어느 누가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친밀하게 너에게 말을 건넸으면 한다. 책 하나하나에서 네가 여태 알아낸 이상의 것을 찾으며 술한 책들을 차례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난 그런 밤 시간에 나는 너한테 갔으면 한다 ; 네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 지탱해 주는 것 없이 허전해, 네 열정이 슬픔으로 바뀌려는 시간에 말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만 글을 쓰고 있다 ;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만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네가 보기엔 사사로운 생각도 감동도 통 없어 보이는 그런 책, 너 자신의 열정의 그림자밖엔 보이는 게 없다고 네가 믿게 될 그런 책을 나는 썼으면 한다. 네 곁으로 다가갔으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우울은 식어버린 열정일 따름이다.

존재는 다 별거승이가 될 수 있다 ; 감동은 다 충만함이 될 수 있고.

내 감동들은 하나의 종교처럼 열려 있다.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 감각이 다 어 떤 무한한 실재임을.

나타나엘, 열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달라붙는다, 마치 유황의 빛이 유황에 달라붙듯이. 행 위들이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광채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넋이 뭔가에 값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넋들보다도 더욱 활활 타 올랐기 때문이다.

새벽 어스름에 잠긴 커다란 밭들, 나는 너희를 보았다 : 푸른 호수들아, 나는 너희 물결 속에서 미역을 감았다—그리고 상냥한 공기의 어루만짐 하나하나에 내가 미 소 지었다는 사실, 나타나엘, 네게 아무리 말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 게 바로 이것 이다. 나는 열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네게 말해 주었을 것은 바로 그것들이다—그럼, 땀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들을.

메날크, 너는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지혜 말고 사랑을.



나타나엘, 나는 메날크에 대해 우정 이상의 것을, 거의 사랑과도 같은 것을 지녔었 다. 그를 또한 형제처럼 사랑했던 것이다.

메날크는 위험하다 ; 그를 두려워하라 ; 그는 혼자들의 비난은 사지만 아이들의 두 려움은 사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지 말도록, 그리고 서서히 가족을 버

리도록,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 그는 아이들 마음을, 시큼한 야생 열매들이 먹고 싶어 병들게 하고, 별난 사랑이 하고 싶어 안달나게 한다. 아! 메날크, 나는 너와 함께 다른 길들도 더 달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너는 나약함을 미워해 나더러 너를 떠나도록 가르치려고 우겨댔었다.

사람 저마다에게는 별난 가능성들이 있다. 과거가 현재에다 하나의 역사를 이미 비추지만 않아도, 현재는 온갖 미래들로 가득 찰 것이다. 한데 딱하게도! 단 하나의 과거는 단 하나의 미래만을 내놓아—그걸 우리 앞에 비춘다, 마치 공간에 걸쳐진 하나의 끝없는 다리처럼.

사람이 결코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뿐이다. 이해하기, 그건 바로 할 수 있다고 느끼기다. 되도록 많은 인간성을 받아들이라, 이거야 말로 좋은 공식이다.

삶의 갖가지 형태들 ; 너희 모두가 내게는 아름다워 보인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바로 메날크가 나한테 하던 말이다.)

나는 정말이지 모든 정념들과 악덕들을 이미 다 안 셈이다 ; 하다못해 그것들을 부추기기는 했던 것이다. 내 존재 모두가 온갖 신앙들 쪽으로 달려들었다 ; 내 영혼이 내 몸에서 금방 빠져나갈 것만 같아, 내 영혼의 존재를 거의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머리가 들떠 있던 밤들도 있었다,—이런 말도 메날크는 내게 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서는, 얼음물이 가득 찬 유리컵, 마시고만 싶어서 단숨에 들이키는 열병 환자의 두 손에 움켜쥐어진 그 촉촉한 유리컵이 될 것이다. 그물이 하도 시원하고 따끔거리는 열에 목이 하도 말라서, 기다려야 할 줄 알면서도 그 맛좋은 컵을 입술에서 차마 떼지 못하고 말이다.

II

아! 그러니 나는 얼마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아! 십자형 유리창들! 그리고 안개 때문에 달에서는 샘물과도 같은 창백한 빛살들이 하도 흘러내리는 바람에—마치 그걸 마시는 기분이었었다.

아! 십자형 유리창들! 나는 몇 번이나 그 유리 곁에 가서 내 이마를 식혔으며, 또 타오르듯 너무 뜨거운 내 침대에서 발코니로 달려가 가없이 고요한 하늘을 쳐다보곤 하던 때는, 내 욕망들이 그 몇 번이나 안개처럼 증발되었었던가.

지난날들의 열기, 너희가 내 육신을 죽도록 망가뜨렸다 ; 그러나 넋을 하느님에게 서 따돌리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넋이 얼마나 잘 지쳐 버리는가!

나의 한결같은 승배는 끔찍스러웠었다 : 내가 온통 어리둥절했을 만큼이나.

메날크는 나에게 말했다, 어림도 없는 넋의 행복을 너는 아직도 오랫동안 찾게 될 것이라고.

미심쩍은 황홀의 처음 며칠이 지나자—메날크를 만나기 전이지만—늪 건너가기와도 같이 불안한 기대의 시기가 왔다. 아무리 자도 개운치도 않게 짓누르는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식사만 하고 나면 드러누웠었다 ; 잠을 자다가는, 사뭇 더 피곤해서 깨어나곤 했었다, 둔갑이라도 하려는 듯이 명청해진 정신으로.

존재의 남모를 활동들 ; 숨은 작업, 낯선 것의 생겨남, 벽찬 해산들 ; 선잠과 기다림 ; 번데기나 님프들처럼 나는 잤었다 ; 앞으로의 나일지도 모를 존재, 이미 나를 닮지 않은 새로운 존재가 내 속에 생겨나도록 두었다. 마치 푸르스름한 물을 켜켜이 거치듯이 나무 잎가지들을 거쳐, 모든 빛이 내게로 와 닿고 있었다 ; 취하거나 현기증이 심할 때와도 비슷하게 얼떨떨하고 나른한 지각들.—아! 급성 발작이건, 질병이건, 심한 고통이건, 어서 와다오! 하고 나는 사정했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무거운 구름 폐로 뒤덮여 천둥 치는 하늘과도 견줄만 했었다, 숨쉬기도 벽찬 하늘, 신경질투성이이면서도 푸른 하늘을 감추고 있는 그 음침한 가죽 물 주머니를 찢어 줄 번개를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하늘과도 말이다.

기다림들, 너희는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 그리고 너희가 끝장나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무슨 건덕지라도 남을 것인가? 나는 외쳤었다—기다림들이라니!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우리 자신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은 무슨 일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또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한 무슨 일이 우리한테서 일어났었다는 말인가?

아벨이 태어나고, 내가 약혼하고, 예력이 죽고, 뒤죽박죽이 된 내 생활, 이런 일들이 내 무기력을 끝장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그 속에 다시 처박는 것만 같았으니, 그 허탈 상태가 내 생각들과 우유부단한 의지의 복잡성 탓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나는 축축한 땅속에서 식물처럼 끝없이 잠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는 쾌락이 내 고생을 끝장내 주리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면서 나는 육신의 기진맥진에서 정신의 해방을 찾았었다. 그러고는 다시 오랜 시간을 잤었다, 마치 어수선한 집에서 한낮에 더워서 졸다가 자리에 눕혀진 어린애들처럼.

이윽고 나는 아득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두근거리는 심장과 흐리멍덩한 머리로 땀에 젖어서. 아래로부터 달힌 덧창들 틈으로 스며들어 잔디밭의 초록색 반사광을 하얀 천장에 되비추던 빛, 그 저녁 빛만이 나에게는 다정한 것이었었다. 어둠에 둘러싸이는 것을 오래 느낀 다음 동굴 어귀에서, 나무 잎사귀들과 물 사이로 와서 정답고 예뻐 보이는 그 빛, 바르르 떨고 있는 그 빛과도 비슷한 그 저녁 빛만이.

집 안의 웅성거림이 어렴풋이 들려오고 있었다.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씻고는 시름에 겨워 들 쪽으로, 정원의 벤치에까지 가서는, 하는 일도 없이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지껄이기에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에는, 뭘 쓰기에는, 나는 노상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읽었었다 :

“…그는 보고 있다 자기 앞의
인적 없는 길들을,
날개를 펼쳐
미역을 감는 바다새들…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숲의 우거진 잎가지들 아래
떡갈나무 아래, 이 땅굴 속에
머무르도록 나는 강요당한다.
춥기도 해라 이 땅굴집은 ;
그래서 나는 지겹기만 하다
골짜기들은 어둡고
언덕들은 높기만 해,
한심한 잔가지 울타리,—
기쁨도 없는 거쳐”¹

가능하면서도 아직은 얻지 못한 알찬 생명감이 이따금씩 엿보이다가는, 갈수록 더욱 끈덕지게 되돌아오곤 했다. 아! 햇빛의 문이 이젠 활짝 열려, 이 끊임없이 쌓여온 양갈음들 한복판에서 터져 버렸으면! 하고 나는 외치곤 했었다.
내 존재 모두가 새것 속에 다시 잠길 필요가 아무래도 있는 것만 같았다. 제2의 사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 내 눈에 새로운 시력을 다시 주고, 책들에서 묻은 때를 씻겨 주어,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푸른 하늘—아까 온 비로 오늘은 활짝 개인 창공을 더욱 닳도록 해 줘야지…
나는 병에 걸렸다 ; 여행을 하고, 메날크를 만났으며, 그래서 신기한 회복기는 하나의 재생이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새로운 하늘 아래서, 온통 새로워진 사물들 한복판에서.

1 귀양살이 노래—텐트(Taine)의 『영국문학사』 I, 30에 인용됨.

III

나타나엘, 기다림에 대해 너에게 말해 주마. 여름에는 들판이 기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 얼마간의 비를 기다리는 것을. 길의 면지가 너무 가벼워져 바람만 불면 날아오르곤 했다. 그것은 이미 욕망도 아니었다 ; 안타까움이었었다. 땅은 마치 물을 더 많이 맞아들이려는 듯이 말라 터지고 있었다 ; 들판의 꽃향기들은 거의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 가고 있었다. 햇볕 아래서 모두가 까무러치고 있었다. 오후마다 우리는 테라스 아래로 가서 쉬며 그 별나게 눈부신 햇빛을 조금은 피했었다. 그 것은 꽃가루를 실은 소나무, 잣나무들이 정밭이를 멀리 퍼뜨리려고 가지들을 마음대로 흔들어 댈 무렵이었다.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뭉기었고 자연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숨 막힐 듯이 엄숙한 순간이었다, 모든 새들도 소리를 죽이고 있었으니. 하도 뜨거운 바람이 땅에서 솟는 바람에 모두가 까무러칠 것 같은 느낌이었다 ; 송백 꽃가루가 가지들로부터 금빛 연기처럼 쏟아져 나왔다.—그리고는 비가 왔다. 새벽을 기다리다 못해 설레는 하늘을 나는 보았다. 별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밖에 가고 있었다. 목장은 이슬로 넘치고 있었다 ; 공기의 어루만짐은 싸늘하기만 했었다. 몽롱한 생명이 얼마 동안은 더 잠에서 머뭇거리려 드는 것만 같았으며, 아직도 지쳐 빠진 내 머리는 허탈로 가득 차 있었다. 숲 기슭까지 올라갔다 ; 나는 앉았다 ; 짐승마다가 날이 곧 새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일과 제 기쁨을 되찾았고, 생명의 신비가 나뭇잎들의 구비마다로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그리고는 날이 밝았다. 다른 새벽들도 나는 보았다.—밤에 대한 기다림도 나는 보았다…

나타나엘, 하나하나의 기다림이 네 마음속에서는 욕망이 되지 말고 그저 맞아들일 마음가짐이 되도록 하라. 너에게 오는 모든 것을 기다려라 ; 다만 너에게 오는 것 말고는 바라지 말라. 네가 가진 것 말고는 바라지도 말라.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네가 하느님을 고스란히 소유할 수 있음을 이해하라. 너의 욕망은 사랑이어야 하고 너의 소유는 애정에 넘쳐야 한다. 왜냐하면 효력도 없는 그런 욕망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뭐라고! 나타나엘, 너는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태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니!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보는 일이다 ; 한데 우리는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 빌라암, 당신은 어느 오솔길 모퉁이에서도 하느님을 보지 않았지? 당신 나귀가 그 앞에서 멈춰 서고는 했는데도.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달리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타나엘, 사람이 기다려서 안 될 것은 하느님뿐이다. 나타나엘, 하느님을 기다림은, 네가 이미 그를 소유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이다. 하느님과 행복을 구별하지 말고 네 행복 모두를 순간마다 두도록 하라.

나는 내 재산 모두를 내 몸에 지녔다, 마치 파리한 근동의 여인들이 자기 재물을 몽땅 몸에 지니고 다니듯이. 내 삶의 작은 순간마다에서 내 재산 전부를 내 몸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술한 유별난 것들을 합쳐서 된 것이 아니고 나만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내 재산 모두를 내 능력껏 꾸준히 간직해 온 것이다.

마치 하루가 죽어야 할 시간이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 마치 모든 것이 태어날 시간이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고.

네 시력이 순간마다에서 새로워지도록 하라.

현자란 바로 모든 것에 놀라는 사람이다.

오, 나타나엘, 네 머리의 피로는 오로지 가지각색인 네 재산들 탓이다. 너는 모든 것 중의 어느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단 하나뿐인 재산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도 너는 알지 못한다. 생명의 더없이 작은 순간도 죽음보다는 강하며, 그래서 죽음을 부인한다. 죽음은 다른 생명들의 허용일 따름이다, 모두가 노상 새로워지도록 말이다 ; 생명의 어떤 형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는 붙잡아 두지 않도록 말이다. 네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행복하기도 하다.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귀담아 들으라 ; 그러나 네가 말할 때는 들을 생각일랑

하지도 말라.

나타나엘, 모든 책들을 네 머릿속에서 태워 버려야 한다.

내가 태워 버린 것을 찬양하기 위한
롱 드

소학생의 책상 앞에서
작은 널빤지에 앉아 있는 책들이 있다.

걸어 다니며 읽는 책들도 있다
(그것은 책의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숲에서 읽을 책들, 다른 시골에서 읽을 책들,
그래서 키케로는, 우리와 함께 시골에 사는 책들(*Et nobicum rusticantur*)이라고
말했다.
내가 역마차에서 읽은 책도 있고 ;
곳간 깊숙이 꿀 위에 누워서 읽은 다른 책들도 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책들도 있고 ;
영혼을 절망시키려 드는 다른 책들도 있다.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책들이 있고 ;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다른 책들도 있다.

개인의 서재 안에서밖엔
용납되지 않을 책들도 있다.
권위 있는 술한 비평가들의
칭찬을 받은 책들도 있다.

꿀벌 기르는 문제만을 다루어 더러에게는
좀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책들도 있고 ;
자연만을 하도 문제 삼아 읽고 나면 구태여,
신책할 필요도 없어지고 마는 책들도 있다.

점잖은 어른들에게는 무시당하지만
꼬마들을 부추겨 주는 책들도 있다.

무엇에 관해서나 잘된 말은 다 집어넣어
앤솔로지라고 불러지는 책들도 있다.
당신더러 삶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던 책들이 있고 ;
쓰고 나서 저자가 자살해버린 책들도 있다.
미움을 씨 뿌리고는 제가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책들도 있다.
황홀감이 넘치고 겸손으로 감미로워,
읽을 때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책들도 있다.
우리보다 순결해 우리보다 훌륭히 산 형제처럼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책들도 있다.
엉뚱한 문체로 되어 있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책들도 있다.

나타나엘, 모든 책들을 우리는 언제나 다 태워 버리고 말 것인가!

서푼짜리밖에 안 되는 책들이 있고,
상당히 값나가는 책들도 있다.

왕과 왕비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고,

가난뱅이들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다.

오정 때 나뭇잎들 살랑거리는 소리보다도
더 부드러운 말들로 된 책들도 있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이 쥐처럼 먹어치운 것도,
한 권의 책 ; 하지만 나로서는 딸기가 낫다.
그 책은 그의 창자를 쓰라린 아픔으로 가득 채웠고
나중에 그는 돌아 허튼소리만 자꾸 늘어놓았다.

나타나엘, 모든 책들을 우리는 언제나 다 태워 버리고 말 것인가!

바닷가의 모래알이 부드럽다고 읽는 것만으로는 나는 족하지가 않다 ; 내 맨발로 그것을 느껴 보고 싶은 것이며… 어떤 감각이 앞장서지 않은 지식은 다 나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다.

일찍이 내가 본 이 세상의 그윽하게 아름다운 것치고, 내 애정 모두가 당장에 만져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땅의 기름진 아름다움, 네 거죽에서 꽂피어나는 게 신기하구나. 오, 내 욕망이 깊이 빠져든 풍경! 내 탐구가 거닐고 다니는 활짝 열린 고장 ; 물 위에서 다시 막히는 파피루스의 길 ; 시냇물 위에 구부러진 갈대들 ; 숲 속 빙터의 어귀들 ; 나뭇가지 틈 구멍들 사이로 나타나는 들판, 제 한도 없는 약속. 바위나 식물이 이루는 화랑들을 나는 거닐었다. 해마다의 봄이 펼쳐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삼라만상의 수다

이날부터 내 생활의 순간마다가 나에게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의 새로운 맛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끊임없이 들떠서 열렬결에 살았다. 금방에 도취되곤 해 현기증과도 비슷한 기분으로 걷기를 좋아했었다.

그렇다, 입술 가의 웃음만 보면 다 입 맞추고 싶었다 ; 양 볼의 핏기, 두 눈의 눈물만 보면 들이마시고 싶었다 ; 나뭇가지들이 내게 내미는 열매들은 모조리 그 살을 깨물고 싶었다. 주막마다에서 시장기가 나를 반겨 주었었다 ; 샘물마다 갈증이 그 앞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었다—그 앞마다 색다른 갈증이 ; —그래서 나의 갖가지 다른 욕망들—

길 한 가닥이 열리는 곳에서는, 걷고 싶은 ;

그늘이 나를 부르는 곳에서는, 쉬고 싶은 ;

깊숙한 물가에서는, 헤엄치고 싶은 ;

침대 곁마다에서는, 사랑하거나 자고 싶은

욕망들을 나타내려면 낱말들도 갖가지로 달랐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사물마다에 내 손을 대담하게 내밀어, 내 욕망들의 대상마다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자부했던 것이다. (하기야 나타나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유보다는 사랑이니까.) 아! 내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아롱졌으면 ; 모든 아름다움이 내 사랑을 옷 삼아 알록달록 꾸며졌으면.

제 2 부

양식들!

나는 너희만 기대한다, 양식들아!
나의 허기는 도중에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고 ;
채워지지 않고서는 입 다물지 않을 것이다 ;
도덕이 이겨 내지도 못할 것이며 그래서
절제를 가지고 내가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내 넋뿐이다.

만족들! 나는 너희를 찾고 있다.
너희는 여름날 새벽처럼 아름답다.

저녁에 더욱 은근하고, 한낮에 더욱 감미로운 샘물들 ; 싸늘한 새벽의 물 ; 물가의 바람 ; 뚱대들 봄비는 물굽이들 ; 물결 장단맞는 바닷가의 포근함…
오! 들판으로 가는 길이라도 있다면 ; 한낮의 후끈한 더위 ; 밭에서 마시는 물과 밤에는 건초더미 속의 움푹한 잡자리 ;
근동으로 가는 길들이 있다면 ; 정다운 바다들의 배 지나간 자국들 ; 모술의 정원들 ; 투구르의 춤들 ; 스위스에서는 양치기 노래들 ;
북쪽 나라로 가는 길들이 있다면 ; 니지니의 장터들 ; 눈을 휘날리는 썰매들 ; 얼어붙은 호수들 ; 아무렴, 나타나엘, 우리의 욕망들이 지켜워지지는 않을 거다.
배들이 우리 항구들에 이름 모를 해안의 무르익은 과일들을 싣고 왔다. 좀 더 빨리 짐을 부려 주라, 우리가 마침내 맛볼 수 있도록.

양식들!
나는 너희만 기대한다, 양식들아!
만족들, 나는 너희를 찾고 있다 ;
너희는 여름날의 웃음들처럼 아름답다.
대답이 미리 마련되지 않은 그런 욕망이라곤

내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내 허기들은 저마다 보답을 기다리고 있다.

양식들!

나는 너희만 기대한다, 양식들아!

나의 모든 욕망의 만족들아,

온 공간에 걸쳐 나는 너희를 찾고 있다.



땅 위에서 내가 안 가장 아름다운 것,

아! 나타나엘! 그건 바로 내 허기다.

허기는 저를 기다리던 모든 것에

언제나 한결같이 충실했었다.

꾀꼬리가 포도주에 취하는가?

독수리가 우유에? 지빠귀들이 노간주 진에 취하지 않는가?

독수리는 제 비행에 취한다. 꾩꼬리는 여름밤들에 도취한다. 들판은 더위에 뻔다.

나타나엘, 모든 감동이 너에게는 하나의 도취가 되어 줄 수 있었으면. 네가 먹는 것에 네가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충분히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한 행위마다에는 기쁨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만 보아도 네가 그 행위를 마땅히 해야 했음을 너는 알게 된다. 고통스레 일한 것을 사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나는 통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스러웠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았을 테니까. 일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그 일이 알맞은 증거이고, 나타나엘, 내 기쁨의 진지함이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길잡이인 것이다.

어떤 기쁨을 내 몸이 날마다 바랄 수 있고 내 머리가 감당하게 되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내 잠이 시작될 것이다. 땅과 하늘도 이제 나에게는 그 이상의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이다.



제가 갖지도 않은 것을 바란다는

엉뚱한 질병들이 있다.

—우리도, 우리 역시, 우리 넋의 한심한 권태를 알았을 텐데! 그들이 한 말이다. 다
윗이여, 아돌람 동굴에서 당신은 용덩이 물을 무척 아쉬워했었다. 당신은 말했다;
—오! 베들레헴 성벽 밭치에서 솟는 시원한 물을 누가 내게 갖다 줄 것인가.
어려서 나는 그것으로 갈증을 풀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 물은 적의 손에 있다.
내 신열이 갈망하는 그 물은.

나타나엘, 과거의 물을 다시 맛볼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라.

나타나엘, 미래 속에서 과거를 되찾으려고 안달하질랑 말라. 순간마다의 색다른
새로움을 붙잡되, 네 기쁨들을 미리 마련하지는 말라, 아니면 기쁨이 마련된 곳에
서는 다른 기쁨이 너를 덮치리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

너의 행복은 우연한 것이어서, 길에서 마주치는 거지처럼 순간마다 네 앞에 나타
난다는 사실을 너는 왜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그것이 네가 꿈꾸던 행복과 같지 않
다고 해서 네 행복은 죽은 것이라고—또 네 원칙과 소망에 맞는 행복밖엔 인정하
지 않는다고, 네가 혹시라도 말한다면, 네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일의 꿈은 하나의 기쁨이지만, 내일의 기쁨은 또 하나의 다른 기쁨이며, 우리가
품었던 꿈과 닮은 것은 다행히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저마다가 다르기에 값이
나가는 것이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리 와요, 당신을 위해 이리이
러한 기쁨을 마련해 뒀으니; 나는 이제 우연한 기쁨들밖에, 내 목소리를 듣고 바
위에서 용솟음치는 기쁨들밖에 좋아하지 않는다; 그 기쁨들은 따라서 우리를 위
해, 압착기에서 넘쳐나는 새 포도주처럼 새롭고 힘차게 흘러나올 것이다.

내 기쁨이 꾸며지는 것도, 술람 아가씨 술라미트가 여러 방을 거쳐 오는 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 그녀와 입 맞추려고 나는 포도송이가 남긴 얼룩을 내 입에서 지우지도 않았다 ; 입 맞추고 나서도 나는 입도 가시지 않고 달콤한 포도주를 들이 마셨다 ; 그리고 별집의 꿀을 밀랍과 함께 먹어 치웠다.
나타나엘, 네 기쁨들 중의 어느 것도 미리 마련하지는 말라.



잘됐군하고 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라고 말하라. 바로 거기에 행복의 근사한 약속들이 있는 것이다.

행복의 순간들을 마치 하느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그럼 다른 순간들은 다른 어느 분이 주신 것인가?...
나타나엘, 하느님을 네 행복과 구별하지 말라.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느님께 고마워할 수는 없다.—내가 세상에 없다고 해서 그걸 그분에게 원망할 수도 없듯이 말이다.

나타나엘, 하느님에 대한 말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만 해야 한다.

땅의 존재나 사람의 존재나 나 자신의 존재나, 일단 받아들여진 존재는 다 자연스러워 보이기를 나는 정말로 바라지만, 내 지능을 어리둥절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존재를 깨닫는 놀라움이다.

나도 물론 찬가들을 불러왔으며, 다음과 같은 롱드를 쓰기도 했다 :

하느님의 존재를 밝히는 근사한 증거들의

롱 드

나타나엘, 가장 아름다운 시적 감동들이 바로 하느님의 존재를 밝히는 천 한 가지의 증거들에 관한 감동들임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어때, 너도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을 되풀이해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만 오로지 되풀이해 말하자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 —게다가 그 존재밖엔 증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그분의 한결같은 영속성이다.

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 안셀모 성자의 논증이 있고, 복 받은 완전한 섬들에 관한 교훈담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 나타나엘, 딱하게도 모두가 거기서 살 수는 없다.

대다수의 찬동이라는 게 있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너로서는 선택된 소수의 존재도 믿고 있다.

둘 더하기 둘이라는 식의 증명이 있긴 하지만,

나타나엘, 모두가 다 셈을 잘 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신을 첫 주동자로 내세우는 증명도 있지만,

그보다 사뭇 먼저 있던 주동자도 있다.

나타나엘, 우리가 그때 그곳에 없었던 게 유감스럽구나.

있었더라면 보았을 텐데,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

아기로 태어나지 않아 그들이 놀라는 것도 ;

여울물로 이미 깊이 패인 산들 위에서

몇 백 년을 묶어 태어나느라 지쳐 빠진 엘브르즈의 삼나무들도.

나타나엘, 새벽을 보러 그곳에 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계을렸으면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너는 그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던가? 아! 나는 틀림없이

살기를 바랐었는데…그러나 그 무렵에 하느님의 성령은 시간 밖에서, 물 위에서 주무시다가, 간신히 깨어나시는 참이었다.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타나엘, 모두 를 좀 더 넓게 만드시도록 부탁드렸을 텐데 ; 그랬어도 아무것도 눈에 띄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한테 대꾸하시는 말라, 너는.*

궁극 원인에 의한 증명도 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모두가 보지는 않는다.

그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을 증명하는 사람도 있다. 나타나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부른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려 드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일일이 들까 봐 염려하지는 말라 ; 하물며 너무 터 들기 시작하지는 않을 테니 ; 나는 정말이지 사람들보다는 사물들을 좋아해 왔으며, 내가 땅 위에서 특히 사랑해 온 것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타나엘, 오해하질랑 말게 : 내가 지난 가장 큰 강점, 그건 분명히 착함도 아니고, 또 나는 그게 가장 나은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니까 ; 사람들에게서 내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것도 착함은 아니니까 말이다. 나타나엘, 사람들보다는 네 하느님을 좋아하도록 하라. 나 역시 하느님을 찬양할 줄 알아, 그분을 위해 찬가들을 불러왔다.—그러다가 때로는 호들갑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체계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게 당신은 그토록 재미있는가? 하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

—내게는 윤리학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고, 내 정신도 그걸로 만족해. 내가 윤리를 곁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쁨은 나는 아예 맛보지도 않거든.

—그래서 기쁨이 늘어나는가?

—아니, 그래야 기쁨이 떳떳해지거든.

* “둘 더하기 둘이 결코 넷이 되지 않을 그런 판 세계를 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하고 알시드 가 말하자, 메날크가

—글쎄 당신은 그러지 못할 텐데.

그렇다, 어떤 주의 주장이, 심지어는 질서 정연한 사상들의 어떤 완벽한 체계가, 내 행위들을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게 정당화해 주는 것이, 대견하기 일쑤였던 것은 사실이다 ; 다만 때로는 그러는 것이 내 관능의 도피로밖에는 여겨질 수 없기도 했지만.



나타나엘, 모든 것은 다 제때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 저마다가 다 제 필요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곁으로 드러난 필요에 지나지 않다.

어느 나무가 나에게 말했다 : 나는 허파가 필요했었어. 그러나 내 수액이 잎사귀로 둔갑했어, 거기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는 내가 호흡을 하고 나자 내 잎사귀는 떨어졌고, 나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 내 열매가 생명에 관한 내 생각 모두를 간직하고 있으니.

나타나엘, 이런 우화 형식을 내가 남용할까 봐 염려하지는 말게, 나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니까. 나는 생명 말고 딴 지혜를 너에게 가르쳐 줄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란 대단한 걱정거리니까. 나는 짧았을 때 내 행위들의 결과를 멀리 쫓아가느라고 지쳐 빠졌었고, 그래서 다시는 행동하지 않기로 다짐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었었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썼다 ; 내 육신의 구원은 오로지 내 넋의 돌이키지 못할 중독 덕분이다. 이윽고 나는 그것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도 통 모르게 되고 말았다.

나타나엘, 나는 이제 죄악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간의 생각할 권리가 술한 기쁨을 치러야만 사진다는 것을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이지 강자라고 볼릴 것이다.

나타나엘, 저마다의 불행은, 바라보는 것이 늘 자기이고, 자기가 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앞세우는 데서 온다. 사물이 저마다 중요한 것은 저를 위해서이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네 눈이 바로 네가 보는 사물이도록 하라.

나타나엘, 나는 이제 감미로운 네 이름이 되돌아오지 않는 시구는 단 한 줄도 시작 할 수가 없다.

나타나엘, 나는 너더러 생명에 눈뜨게 해 주었으면 한다.

나타나엘, 내 말의 비장한 맛을 너는 충분히 이해하는가? 나는 너에게 사뭇 더 다 가갔으면 한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려 주려고 아이 위에—“입을 아이 입에, 눈을 아이 눈에, 두 손을 아이 손에 포개고, 엎드렸다”고 씌어 있듯이—빛나는 내 커다란 심장을 아직은 컴컴한 네 넋에 바싹대고 네 위에 온통 엎드렸으면 한다. 내 입을 네 입에, 내 이마를 네 이마에 포개고, 싸늘한 네 손을 뜨거운 내 손에 쥐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성경에는,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고 씌어 있다) 네가 관능의 기쁨 속에서 깨어나—나를 버리고는—팔팔하고 분방한 삶으로 나아 가도록.

나타나엘, 이것이 내 넋의 격정 모두이니—갖고 가거라.

나타나엘, 너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고 싶다.

나타나엘, 왜냐하면 너를 닮은 것 곁에 네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 결코 머무르지 말게, 나타나엘. 주위가 너를 닮거나, 네가 주위를 닮게만 되면, 이미 그 주위는 너에게 이롭지가 않다. 너는 거기를 떠나야 한다. 너에게는 네 가정보다, 네 방보다, 네 과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사물마다에서 그것이 네게 갖다 주는 교육밖엔 받아들이지 말라 ; 그리고 거기서 넘쳐흐르는 쾌락으로 그것이 다 말라 없어지도록 하라.

나타나엘, 순간들에 대해 너에게 말해 주마. 눈앞의 순간들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너는 이해했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꾸준하지 않았기에 네 삶의 가

장 작은 순간의 소중함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또 너는 순간마다가, 이를테면 아주 캄캄한 죽음을 배경 삼아 강조되지 않고서는 그 놀라운 광채를 갖지는 못하리라는 것도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할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라도 있다는 말을 내가 곧이듣는다면,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더는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일들 역시 할 시간은 있으므로 나는, 뭔가를 시작할 생각만 하다가는 우선 쉬기부터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삶은 끝나게 마련이고—그래서 이 삶을 다 살고 나면 나는 잠 속에서, 내가 밤마다 기다리는 잠보다는 좀 더 깊고 좀 더 잊기 쉬운 잠 속에서, 쉬게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하는 일은 어차피 아무래도 좋은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순간마다를 갈라놓는 버릇이 생겼다, 따로따로인 기쁨을 몽땅 차지하려고 ; 하나의 독특한 행복을 온통 거기에 느닷없이 집중시키려고 ; 따라서 나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되생각해도 나를 알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나타나엘, 그저 이렇게만 단언하는 데에도 하나의 커다란 기쁨이 있다 : 야자나무 열매는 코코넛이라 불리며, 그것은 씩 맛좋은 음식이다. 야자술은 라그미라고 불린다 ; 발효된 야자 수액이다 ; 아랍 사람들은 그것에 취하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와르디의 아름다운 정원들에서 그 카빌리아 사람 양치기가 내게 준 것이 바로 한 잔의 라그미다.



오늘 아침에 샘터로 가는 길을 산책하다가 나는 별난 버섯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주황색 목련 열매처럼 하얀 막에 싸여 있고, 속에서 나온 흘씨 가루로 된 것으로 보이는 고른 잿빛 테두리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벌려 보았다 ; 진흙 같 은 물질로 가득 쟁고 복판에서는 말간 젤리처럼 되어 있었다 ;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둘레의 더 많이 벌어진 다른 버섯들도, 고목 밑동 거죽에 보이는 그 납작한 곰 광이 버섯 같은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글을 나는 튜니스로 떠나기 전에 썼었다 ; 내가 눈여겨보기만 하면 사물마다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곤 했던가를 너에게 일러주려고 그것을 여기다 베 껴놓는다.)

옹플뢰르(길거리에서).

내 주위의 남들이 부스대고 있는 것이 오로지 나 혼자만의 생명감을 더해 주기 위 해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가끔 있었다.

어제 나는 저기 있었다 ; 오늘 나는 여기 있다 ;
하느님 맙소사! 그들 모두가 나에게 무슨 아랑곳
어제 나는 저기 있었다 ; 오늘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그들 모두가…

둘 더하기 둘은 여전히 넷이라고 혼자 되풀이하기만 해도 내 가슴이 어떤 행복감 으로 벅차던 그런 나날들을 나는 알고 있다—또 테이블 위의 내 주먹만 보아도…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던 다른 날들도.

제 3 부

빌라 보르제제.

이 분수의 수반에서는…(어스름 빛)…물방울마다가, 햇살마다가, 존재마다가, 관능의 기쁨으로 즐겁게 죽어 가고 있었다.

관능의 기쁨(volupté)! 이 말을 나는 노상 되풀이했으면 한다 ; 그것이 bien-être(행복한 삶, 즉 육신의 행복)의 동의어였으면 하고, 아니 그냥 être(삶)라고만 말해도 족했으면 하고, 나는 바라는 것이다.

아! 하느님이 단지 이것만을 위해 세계를 만드시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궁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다.

기막하게 시원한 이곳에서는, 잠자는 매력이 하도 커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지내 온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또 여기서는, 맛좋은 양식들이, 우리가 허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드리아 바다(새벽 3시)

밧줄 동여매는 저 뱃사람들의 노래가 나는 성가시다.

오! 너무나 늙었으면서도 이토록 젊은 땅이여, 이 쓰고도 달콤한 맛을 네가 안다면, 이토록 젊은 인간의 삶이 갖는 이 기막힌 맛을 네가 안다면!

한결같은 허울 생각이여, 다급한 죽음 기다리기가 순간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는지를 네가 안다면!

오, 봄이여! 한 해밖에 살지 못하는 식물들은 가냘픈 꽃들을 더욱 서둘러 피운다. 사람에게도 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 지난 기쁨을 되생각한대서 새로운 행복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피에졸 언덕

근엄한 연구의 도시, 사치와 꽃들의 도시인 아름다운 피렌체 ; 유달리 진지한 도시 ; 도금양의 열매이자 ‘날씬한 월계수’ 관.

빈칠리아타 언덕. 거기서 나는 구름 떼가 창공으로 녹아드는 것을 처음 보았다 ;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구름이 그렇게 하늘로 흡수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구름은 비가 되기 전까지는 뭉기면서 두꺼워질 도리밖엔 없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그게 아니었다 ; 구름 송이 모두가 하나씩 차례로 사라지는 것을 나는 관찰하고 있었다 ; —마침내는 창공밖엔 남은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희한한 죽음 이었었다 ; 하늘 한복판에서의 실신이었다.

로마, 몬테 펈치오

그날 나를 기쁘게 해 준 것, 그것은 사랑과도 같은 그 무엇이지만—사랑은 아니고—적어도 사람들이 말하고 또 찾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그것은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도 아니다. 그것은 한 여자로부터 오지는 않았다 ;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다. 뭐라고 쓸까, 그게 단지 빛의 열광에 지나지 않았다고 내가 말한다면 너는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나는 그 정원에 앉아 있었다 ; 해는 보이지 않았다 ; 그러나 마치 하늘의 파랑이 액체가 되어 비처럼 오기라도 하듯 이 공기는 흩어진 빛살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다, 정말이지 빛의 물결과 소용돌이가 있었다 ; 이끼 위에는 물방울 같은 불티들이 ; 그렇다, 정말이지 그 큰길에는 빛이 흐르고, 그 빛의 흐름 사이로 나뭇가지들 끝에는 금빛 거품들이 남아 있는 것만 같았다.



나폴리 ; 바다와 태양 앞의 작은 이발소. 열기를 뺏는 부두. 들어가려고 쳐드는
발. 기가 꺾이고 만다. 이것이 오래갈 것인가? 무념무상. 관자놀이에 땀방울. 양
볼에는 소름 끼치는 비누 거품. 그리고 면도를 하고 나서 다듬는 그는, 면도칼로
더 익숙하게 다시 밀고, 이번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느라고 미지근한 물이 스며
든 작은 스펀지를 써서, 입술을 쳐들고 한다. 이어 향수 뿐만 시원한 물로 얼얼한
면도 자국을 씻어 준다 ; 그러고는 향유로 다시 식혀준다. 그리고 나는 아직은 움
직이지 않으려고 머리까지 깎게 한다.

아말피 (밤에)

자기도 모를 사랑을
기다리는 밤들이 있다.

바다를 굽어 보는 작은 방 ; 바다 위에 솟은 달의 너무나 밝은 달빛이 내 잠을 깨웠다.

창가로 다가갔을 때 나는, 이제 새벽이구나, 곧 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겠지 하고 믿었었다…천만에…(이미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것)—달—《파우스트》2부에서 헬레네를 맞기라도 하듯이 다정하고 다정한 달. 텅 빈 바다. 죽은 마을. 개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짖고…창문들에 널린 누더기들.

사람을 위한 자리라곤 없다. 이 모두가 어떻게 깨어날 것인지 이젠 짐작도 가지 않는구나. 개의 극심한 탄식. 날이 밝을 것 같지도 않다. 잠들 수도 없고. 너라면 하겠는가…(이것이나 저것을) :

너는 인적 없는 정원으로 나가겠는가?

바닷가로 내려가 미역을 감겠는가?

달빛을 받아 잿빛으로 보이는 오렌지를 따러 가겠는가?

개를 쓰다듬어 달래주겠는가?

(그 몇 번이나 자연이 나더러 어떤 몸짓을 요구하는 것을 느꼈으나 나는 그것을 해주지 못했다.)

울 것 같지도 않은 잠이나 기다리자…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 안으로 소년 하나가 나를 따라왔다. 계단을 스치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계단은 이 정원을 끼고 도는 둔덕들로 통해 있었다 ;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 보였다.

오, 일사귀 그늘에서 내가 어루만진 작은 얼굴아! 아무리 많은 그늘도 네 광채를 가리진 못 해, 네 이마의 곱슬머리 그림자는 여전히 한결 더 짙어만 보인다.

칡덩굴이며 나뭇가지들에 매달리며 나는 이 정원을 내려가서, 새장보다도 더 노래로 가득 찬 저 텁불 아래서 애무에 사무쳐 흐느껴 울겠다—저녁이 다가올 때까지, 신비스러운 분수 물을 금빛으로 물들였다가는 더욱 깊어 보이게 할 밤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나뭇가지들 아래서 합쳐진 예민한 몸뚱이들.

나는 예민한 손가락 하나로 그의 진주모빛 살결을 만졌다.

소리도 없이 모래 위에 놓여지는

그의 예민한 두 발을 나는 보고 있었다.

시라큐사

바닥이 납작한 조각배 ; 미지근한 비가 되어 우리 있는 데까지도 이파금씩 내려오던 얇은 하늘 ; 물풀들의 진흙 냄새며, 줄기들의 바사거림.

물의 깊이가 이 푸른 샘의 푸짐한 용솟음을 감추고 있다. 아무 소리도 없다 ; 이 호젓한 시골에서, 이 평펴짐한 천연의 연못에서, 마치 파피루스들 사이로 물이 꽂피여 나오고 있는 것만 같다.

튀니스

온 창공에는 오로지 뜻 하나에 필요한 하양과, 물속에 비친 그 그림자에 필요한 초록색뿐이다.

밤. 그늘에서 반짝이는 반지들. 사람들이 그 속을 헤매는 달빛. 낮의 생각들과는 판이한 생각들.

사막에 비치는 불길한 달빛. 묘지를 서성거리는 악마들. 푸른 포석들 위의 맨발들.

몰타

아직은 무척 밝은데도 그들은 없어지고 말았을 무렵, 광장들에서 여름 어스름에 취하는 엉뚱한 도취. 아주 별난 흥분.

나타나엘,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를 너에게 해 주마.

피렌체에서는 장미꽃을 팔고들 있었다 ; 어떤 날들에는 온 거리가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카시나를, 일요일에는 꽃 없는 보볼리를 거닐곤 했다. 세빌리아에는 옛 회교사원 안뜰이 지랄다 근처에 있다 ; 그곳에는 오렌지나무들이 여기저기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 땋락의 나머지에는 돌이 깔려 있다 ; 개인 날들에는 작게 줄어든 그늘 하나밖에 없다 ; 그것은 담장에 둘러싸인 네모진 안뜰이다 ; 굉장히 아름답다 ; 그 까닭을 너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시외의 쇠울짱 둘러친 엄청나게 큰 정원에는 술한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쇠울짱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 뿔닭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는 길들인 동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알카자르에 대해서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 되겠는가? 페르시아의 불가사의를 닮은 정원 ; 너에게 말하다 보니, 다른 모든 정원들보다도 내가 이 정원을 좋아한

다는 생각이 듈다. 나는 지금 하피즈의 시를 다시 읽으면서 그 정원 생각을 하고 있다 :

“포도주를 갖다다오
내 옷에 칠갑 좀 하게.
왜냐하면 사랑에 비틀거리는 나를
현자라고 부르고들 있으니.”

분수들이 길마다에 마련되어 있다 ; 길들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도금양과 삼나무가 가에 늘어서 있다. 양옆에는 임금의 정부들이 미역 감던 대리석 연못이 있다. 장미와 수선화와 월계수 꽃 말고 다른 꽃들은 보이지 않는다. 정원 한쪽에는 엄청 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꾀꼬리 한 마리라도 앉아 있음직하다. 궁전 곁의 무척 야해 보이는 다른 연못들은, 조가비들로만 된 조각상들이 있던 뮌헨의 왕궁 틀들의 그것을 연상케 한다.

어느 여름날, 끈덕진 군악대 곁에서 5월 향초가 든 아이스크림을 맛본 것도 바로 뮌헨의 왕궁 정원에서다. 멎은 없어도 음악에는 사족을 못 쓰는 청중. 저녁이 애절한 밤 꾀꼬리에 홀려 있었다. 그 노래가 마치 어느 독일 시의 그것처럼 나를 나른하게 만들었었다. 즐거움도 도를 지나치면 눈물 없이는 지나치기가 힘들어진다. 이 정원에서 즐거워하면서도 나는, 지금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만 해도 괴로워지는 것이었다. 기온을 더욱 유달리 즐기는 법을 내가 배운 것도 바로 그 여름 동안이다. 그러는 데에는 눈꺼풀이 기막히게도 알맞다. 기차를 타고 열린 창가에서 오로지 더욱 시원한 바람의 촉감만을 맛보면서 보낸 하룻밤 생각이 난다 ;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더위가 낮에는 줄곧 숨 막힐 지경이었었는데, 아직은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래도 저녁에는 화끈거리는 내 눈꺼풀에 시원하게 액체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다에서는 협죽도 심어진 헤네랄리페 언덕이 내가 보았을 때는 꽃피어 있지 않았다 ; 피사의 캄포산토도 ; 장미가 만발했기를 바란 산마르코의 작은 수도원

도. 한데 로마에서는 몬테 핀치오를 가장 좋은 계절에 보았다. 무더운 오후에는 사람들이 시원한 바람을 쐬러 거기에 몰려들었었다. 근처에 묵고 있던 나는 날마다 그곳을 거닐었다. 나는 앓고 있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 자연이 내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었다 ; 신경 장애도 거들어 때로는 내 몸에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수도 있었다 ; 몸은 더 멀리 뻗어 나가고 있었다 ; 아니면 또 기분 좋게도 설탕 덩어리처럼 잔구멍투성이가 되는 수도 있었다 ; 내가 녹아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앓아 있던 돌 벤치에서는, 나를 지치게 하던 로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 보르게세 정원이 굽어 보였으며, 그 밑자락에서 솟은 가장 높은 소나무들의 좀 멀리 떨어진 우듬지들이 내 발 높이에 닿아 있었다. 오, 언덕들! 공간을 우뚝 솟게 한 언덕들. 오, 하늘 여행!...

밤에는 파르네즈 정원을 어슬렁거리고 싶었었는데 ;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숨겨진 폐허 위의 감탄할 만한 식물들.

나폴리에는 방죽처럼 바다를 끼고 가는 낮은 정원들이 있어 햇빛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

니므에는 맑은 운하 물로 가득 찬 풍테느 공원 ;

몽펠리에에는 식물원. 어느 날 저녁 앙브루아즈와 함께 우리는 마치 아카데모스 동산에서처럼, 삼나무로 온통 둘러싸인 어느 무덤 위에 앉았던 생각이 난다 ; 우리는 장미꽃잎을 씹으며 천천히 이야기했었다.

어느 날 밤에 우리는 폐루에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먼바다를 보았다 ; 우리 옆에서는 수도 저수 탑의 폭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 가장자리에 하얀 술 달린 검은 고니들이 조용한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몰타에서 나는 외국 거류민 공원에 책을 읽으러 갔다 ; 아주 작은 레몬나무 숲이 치타 베키아에 있었다 ; ‘일 보스케토’라고 불리는 숲이다 ; 우리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 우리는 익은 레몬을 깨물었는데, 그 첫맛은 견딜 수도 없이 시었으나 나중에는 시원한 향기가 입안에 남았다. 시라쿠사에서도 우리는 그 지독한 라토미안에서 레몬을 깨문 적이 있다.

헤이그의 공원에서는 겁도 별로 없는 사슴들이 출지어 다니고 있다.

아브랑수 공원에서는 몽생미셸이 보이고, 먼 모래톱이 저녁에는 불타는 물질처럼
여겨진다. 멋진 공원들을 가진 아주 작은 도시들도 있다 ; 그 모습도 이름도 잊혀
진다 ; 그 공원이 다시 보고 싶어도 다시 가볼 줄을 모른다.

모술의 정원들 생각을 나는 곰곰이 해 본다 ; 장미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니샤푸르의 정원들은 오마르가 노래했고, 하피즈는 시라즈의 정원들을 노래했다 ;
니샤푸르의 정원들을 우리는 영영 못 가보겠지.

그러나 나는 비스크라의 와르디 정원을 알고 있다 ; 거기서는 아이들이 염소 떼를
지키고 있다.

튀니스에는 묘지 말고는 다른 정원이 없다. 알제의 (온갖 종려나무의) 시험 식물원
에서는 전에 본 적도 없는 과일들을 먹어 봤다. 그리고 블리다에 대해서는! 나타나
엘,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 부드럽기도 한 사헬의 풀 ; 그리고 그 오렌지 꽃이며 그늘들! 그윽하기도 한 그
정원들의 향기. 블리다! 블리다! 작은 장미 송이! 초겨울에는 내가 너를 잘못 보았
었지. 너의 거룩한 숲에는 봄에도 새로워지지 않는 잎사귀들밖에 없었다 ; 그래서
네 등나무나 침도 불태울 덩굴들로만 보였었다. 산들에서 내려온 눈이 너에게 다
가오고 있었다 ; 내 방에서도 나는 몸을 녹일 수가 없었고, 비가 잦은 네 정원들에
서는 더구나였다. 나는 피히테의 과학의 주장을 읽으면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느
낌이 있었다. 나는 온순했었다 ; 자기 슬픔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모
두를 미덕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었다. 지금의 나는 신발의 먼지를 털고 그쪽에는
얼씬도 않는다 ; 그 먼지를 바람이 어디로 싣고 갔는지 누가 알 것인가? 내가 예언
자처럼 헤맨 사막의 먼지 ; 너무 메말라 부스러진 돌 ; 그것이 내 발에는 따가웠다
(별에 엄청나게 달궈졌으니까). 이제 내 발은 사헬의 풀 속에서 편히 쉬었으면! 내
말이 모조리 사랑의 말이었으면!

블리다! 블리다! 사헬의 꽃! 작은 장미 송이! 잎과 꽃송이로 가득 차 따스하고 향기
로운 너를 나는 보았다. 겨울 눈은 도망치고 없었다. 그 거룩한 정원에는 하얀 회
교사원이 신비롭게 반짝이고, 침덩굴이 꽃그늘에 구부러져 있었다. 올리브나무 한
그루는 등나무가 만들어 준 화환 아래로 숨어들고 있었다. 오렌지 꽃에서 솟는 향

기를 그윽한 공기가 실어오고, 가냘픈 굴나무들마저도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자유로운 유칼리나무들의 높다란 가지들 꼭대기에서는 낡은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다 ; 감싸기에도 지친 껍질은 매달려 있었다. 햇볕에 소용없어진 옷처럼, 겨울이나 값나갈 내 낡은 모럴처럼.

블리다

이 초여름 아침, 사헬에서 우리가 걸어 가던 길가의 그 엄청나게 큰 회향나무 줄기들은 비길 데 없이 화려한 것이었다(금빛 햇살 아래나 꼼짝 않는 유칼리나무들의 쪽빛 잎사귀들 아래 만발한 금녹색 회향꽃들의 광채).

그리고 놀란 것 같기도 태연한 것 같기도 한 유칼리나무들.

만물의 자연 참여 ;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만물을 둘러싸는 물리 법칙들. 어둠 속을 내닫는 열차 ; 아침에는 이슬을 뒤집어쓴다.

뱃전에서

아! 내 선실의 동그란 유리창, 닫힌 현창아, 그 몇 밤이나.—그 몇몇 밤이나 나는 내 간이침대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너를 바라보았던가 ; 이제 저 눈구멍만 하얘지면 새벽이다 ; 그럼 일어나서 내 불안을 떨쳐 버려야지 ; 새벽빛에 바다도 말끔히 씻기겠지 ; 그래서 우리는 낯선 땅에 상륙할 거고. 새벽이 왔으나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고, 육지는 아직도 멀어, 뒤숭숭한 해면 위에서 내 생각들만 비틀거리고 있었다.

몸에서 가시지 않는 물결의 멀미. 나는 생각했다 ; 혼들거리는 저 돌대 끝에 생각하나를 매달 것인가? 물결들아, 저녁 바람에 물 흘날리는 것밖엔 나는 보지 못할 것인가? 나는 내 사랑을 파도 위에 씨 뿌리고 ; 내 생각을 메마른 물결의 평원 위에 뿌린다. 내 사랑은, 서로 잇닿으며 서로 비슷해지는 물결들 속에 잠겨든다. 그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눈은 그것들을 순간도 못하게 되고 만다.—노상 들떠 있어

형태도 없는 바다 ; 네 물결들은 사람들에게서 동떨어져 있어 말이 없다 ; 그 변덕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그러나 그 침묵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 더 없이 엉성한 보트에도 물결은 부딪혀 그 소리가 우리더러, 태풍이 야단스럽다는 것을 믿게 해 준다. 커다란 파도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밀려오고 연달아 또 밀려온다. 파도들은 뒤를 이으며, 저마다가 차례로 같은 물방울을 자리도 바꾸지 않고 밀어 올린다. 단지 그 형태만이 이동한다 ; 물은 반기다가 헤어지곤 하지, 결코 파도를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다. 그 형태는 저마다가 아주 짧은 순간밖엔 같은 실체를 갖지 않는다 ; 형태는 실체 하나하나를 거쳐 이어지다가는 그 실체를 버리고 만다. 내 넋이여! 어떤 생각에도 달라붙질랑 말라. 너에게서 생각을 잊어갈 난바다 바람에 생각 하나하나를 던져 버려라 ; 제발 너 자신이 그 생각을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지는 말도록 하라.

변덕스러운 물결들, 내 생각을 이토록 비틀거리게 한 것이 바로 너희였구나! 내 넋이여, 너는 파도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파도는 어떤 무게 아래서도 빙소니치고 마니까.

이 맥 빠지는 표류 끝에, 이 정처 없는 방황 끝에, 다사로운 항구가 올 것인가? 마침내 가라앉은 내 넋이, 회전 등대 곁의 어느 단단한 방파제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게 될 그런 항구가 말이다.

제 4 부

I

우리가 그날 저녁에 모였던—
피렌체의 언덕(파에졸 맞은 쪽의 언덕) 위—
어느 정원에서 :

메날크는 말했다(그리고 나타나엘,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너에게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 양계르, 이디예, 티티르, 내 짚음을 불사른 열정을 너희는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다. 시간이 달아나는 것이 나는 몹시도 안타까웠었다. 선택의 마지못함이 나에게는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 선택이 나에게는 고르기라기보다는 내가 고르지 않은 것 물리치기로만 여겨졌으니까. 시간들의 좁다람과, 시간에는 차원이 하나밖에 없음을, 나는 무섭도록 깨달았었다 ; 널찍했으면 하고 내가 바란 것은 바로 하나의 선이었으며, 그래서 내 욕망들은 그 위를 달리다가 서로 겹치는 것이었다. 나는 도무지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저것이 당장에 아쉬워지곤 하는 바람에 나는 어리둥절해, 마치 두 팔을 늘 벌리고라도 있듯이 감히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가만있기가 일쑤였다, 잡으려고 두 팔을 웅크리면 단 하나밖에 잡지 못했을까 봐 겁이 나서 말이다. 그때부터 내 평생의 잘못은, 술한 판 공부들을 단념할 결심을 할 줄 몰라 어느 공부 하나도 오래 계속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 값을 치르고서는 무엇을 사도 너무 비싸게 먹었으며, 알량한 논리들도 내 고민을 이겨 내지는 못했었다. (누구 덕분인지?) 쓸 돈을 너무 적게 가지고 환락의 시장으로 들어서기다. 그 돈을 써서 무엇을 골라잡기! 그것은 바로 나머지 모두를 영영 단념하기였으며, 그 나머지의 엄청난 양이 그 어느 낱개보다도 나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땅 위의 그 어떤 소유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간의 반감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 당장에 그것밖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을 말이다.

상품들! 비축품들! 횡재물들 더미! 너희는 왜 두말없이 몸을 내놓지 않는 거지? 땅 위의 재물들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도(한없이 바꿔치기가 되는 것들이긴 해도), 내

가 비운 잔이 형제여, 너에게는 언제나 빈 잔이라는 것도 (샘물이 곁에 있긴 해도) 나는 알고 있다. 한데 너희들! 물질 아닌 관념들아! 삶의 얹매이지 않은 형태들, 과학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 진리의 잔들, 바닥나지 않을 잔들아, 어째서 우리 입술에 흘러드는 걸 가지고 흥정을 하는가? 우리의 갈증 모두로도 너희를 바닥내기에는 족하지가 않아, 너희 물은 새로 내민 입술마다를 위해 언제나 싱싱하게 넘쳐흐를 텐데도 말이다.—이 크고 거룩한 샘물의 물방울 모두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 가장 작은 물방울도 우리의 도취에는 족하며, 하느님의 완전한 전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한데 그 무렵에는 나의 광기가 무엇인들 바라지 않은 게 있었던가? 삶의 모든 형태를 나는 탐내었던 것이다 ; 남이 하는 것은 다 나 자신도 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 그것을 해치우기를 좋아한 게 아니고 해 보기로 말이다—내 말을 알아들어다오—왜냐하면 피로나 고통을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좋은 경험들로 믿고 있었으니까. 파르메니드가 터키말을 배운다고 해서 3주 동안 샘하기도 했다 ; 두 달 후에는 천문학을 발견한 테오도즈를 샘했고. 그래서 내 모습을 내가 그려도 더없이 막연하고 애매한 모습밖엔 그리지 못했다. 그 모습을 조금도 한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머지.—메날크, 당신의 경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하고 알시드가 말했고,—그래서 메날크가 말을 이었다 :

…18살에 학교 교육을 마치자 나는, 머리는 공부에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 맥이 풀리고, 몸은 속박에 역정이 나서, 방랑의 열기에 달떠가지고 정처도 없이 길을 떠났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다 겪어 봤어 ; 봄, 땅의 냄새, 들에서 꽂피는 풀들, 시냇가의 아침 안개, 그리고 목장을 뒤덮는 저녁 이내를. 여러 도시를 가로질렀으며, 어디서도 멎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생각했었다, 땅 위의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사이로 한결같은 열정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가정이며 가족들, 휴식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곳은 모조리 나는 미워했었다 ; 또 오래가는 애정도, 사랑에 대한 충직도, 관념들에의 집착도—요컨대 정의를 해치는 것 모두를 미워했던 것이다 ; 나는 말했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늘 손이 온통 비어 있어야 한다고.

자유란 다 일시적인 것이어서 자신의 예속을, 아니면 적어도 혼신을 택하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전에 책들에서 배웠다. 마치 엉겅퀴 씨앗이 뿌리내릴 기름진 땅을 찾아 날아다니다가도,—한곳에 뿌리박지 않고서는 꽂피지 않듯이 말이다. 그러나 논리가 사람들을 인도하지는 못하며, 논리마다에는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반대 논리가 맞설 수 있다는 것도 교실에서 배워두었기에 나는, 그 반대 논리를 열심히 찾았던 것이다. 때로는 머나먼 길 한복판에서도.

무슨 미래이건 흐뭇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리며 나는 살았었다. 쾌락을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갈증, 그것을 누리려는 갈증에는,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이내 뒤따르게 마련임을 나는 스스로 깨쳐 알았다. 마치 질문에 앞서 미리 기다리는 대답처럼 말이다. 샘물마다가 하나의 갈증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 주었기에, 또 갈증을 달랠 길 없는 물 없는 사막에서는 끈약별 아래서 끓어오르는 내 열기를 내가 사뭇 더 좋아했기에, 나는 행복했던 것이다. 온종일 바라온 것이기에 사뭇 더 시원하고 놀라운 오아시스들이 저녁에는 있었다. 햇볕에 짓눌려 마치 끝없는 잠과도 같이 아득한 모래 위에서—그토록 더위는 심했었고, 그래서 아른거리는 공기 자체 속에서도,—나는 느꼈다. 잠들지 못하는 생명의 설렘이, 지평선에서는 까무러쳐 떨고, 내 발치에서는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나는 오로지, 자연의 갈수록 더욱 단순한 침투만을 찾게 되고 말았다. 나 자신에 너무 얹매이지 않는다는 값진 재능을 나는 타고나 있었다. 지난날 생각도 나에게는, 내 삶에 일관성을 주기에 필요한 만큼의 힘밖에 없었다 ; 그것은 마치 테세우스를 그의 지난날의 사랑과 맺어 주면서도, 더없이 새로운 풍경들 사이로 걸어 가는 것을 막지도 않던 그 신비로운 실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기야 그 실도 끓어져야 했지만…신기한 윤회들!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느낌을, 내 감각의 어리고 싱싱함을, 나는 아침 산책에서 자주 맛보는 것이었다.—나는 외쳤었다 ; “시인의 타고난 재능, 그건 끊임없는 만남의 재능이다”라고—그래서 나는 사방에서 모든 것을 맞아들였다. 내 넋은 네거리에 열려 있는 주막이었다 ; 들어오고 싶은 자는 다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나긋나긋하고 상냥해져, 내 감각 모두를 열어 대기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질 만큼이나 주의해서 듣게

되었으며, 지나가는 감동은 다 잡되 그 반발은, 무엇에 대든다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나쁘게 보지 않을 만큼이나 작아지도록 했었다. 게다가 나는 곧 알아차렸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나의 사랑이 추한 것에 대한 미움의 뒷받침을 얼마나 적게 받고 있던가를.

권태의 소산임을 내가 알고 있던 그 피로라는 것도 나는 미워했으며, 그래서 사람은 사물들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우겨댔었다. 나는 아무 데서나 쉬었다. 밭에서 잠을 잤다. 들판에서도 잤다. 커다란 밀 다발들 사이에서 새벽빛이 살랑거리는 것을 보았다 ; 그리고 너도밤나무들 위에서 까마귀 떼가 깨어나는 것을. 아침에 풀밭에서 몸을 씻으면 떠오르는 해가 젖은 옷을 말려 주곤 했다. 푸짐한 수확물이 노랫소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육중한 짐수레들을 끌고 가는 소들을, 내가 본 그날보다도, 시골이 더 아름다운 적이 일찍이 있었다고는 누가 말할 것인가!

내 기쁨이 하도 벽차, 그것을 누구한테나 나눠주고 싶고, 내 가슴속에 그 기쁨을 짓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안달한 때도 있었다.

저녁에는 낯선 마을들에서, 낮에 흘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어울리는 것을 나는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일에 지쳐 돌아오고 있었다 ;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집마다 문이 빛과 따스함과 웃음으로 맞느라고 잠시 방긋 열렸다가는, 이내 밤에 대비해 다시 닫히곤 했었다. 떠도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는 추워 떠는 바람뿐이었다.—가정들, 나는 너희를 미워한다! 닫힌 가정들 ; 다시 닫힌 문들 ; 행복의 샘 많은 독차지.—때때로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유리창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어느 집안의 관습을 오래 들여다보기도 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 등불 곁에 ;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고 ; 할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다 ; 사내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 —그래서 내 마음은 그 애를 길로 데리고 나가고 싶은 욕망에 부풀어 오르곤 했었다.

이튿날 학교에서 나오는 그 애를 나는 다시 보았다 ; 그다음 날에는 그 애한테 말을 걸었다 ; 나흘 뒤에 그는 모두를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들판의 광채 앞에서 나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 들판이 자기를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

했다. 그러니 나는 그의 넋에 가르쳐 주었다, 더욱 떠돌다가 마침내는 즐거워지도 록—그러다가 나한테서도 벗어나도록, 자신의 고독을 깨닫도록.

나는 혼자서 자존심의 벽찬 기쁨을 맛보았다. 새벽 전에 일어나기를 좋아했었다 ; 밀 그루터기들 위에서 해를 불렀었다 ; 종달새 노래가 나의 환상곡이었고 이슬이 나의 새벽 화장수였다. 무척이나 검소한 식사를 즐겨, 하도 적게 먹는 바람에 머리는 오히려 가볍고 감각 모두가 나에게는 일종의 도취로 바뀔 정도였다. 그 후에 나는 술한 푸도주들을 마셨지만 정말이지 그 공복의 현기증을, 이른 아침에 들판의 그 가물거림을, 느끼게 해 주는 포도주는 없었다, 해가 떠서 내가 견초더미에 파고 들어 잠들기 전에 말이다.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뺨을 거의 실신할 때까지 손대지 않는 수도 있었다 ; 그럴 때는 자연이 덜 낯설게 느껴져 더욱 잘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었다 ; 그것은 밖에서 밀려드는 밀물이었다 ; 나는 열린 내 감각 모두로 해서 눈앞의 자연을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 내 속에는 모든 것이 초대받아 와 있는 것이었다.

내 넋은 마침내 서정적 감흥으로 넘치곤 했지만, 그 감흥도 내 고독 때문에 짜증만 내다가 저녁 무렵에는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존심으로 몸을 가누긴 했으나, 그럴 때는 그 전해에, 가뜩이나 너무 야성적이던 내 기질을 북돋워 주던 그 일레르가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에 나는 그와 함께 말하곤 했었다 ; 그도 역시 시인이었다 ; 그는 모든 할머니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연 현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그 원인이 읽히지는 자명한 언어가 되곤 했었다 ; 별레들은 나는 것을 보고, 새들은 그 노래를 듣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모래 위의 그 발자국을 보고, 알아 보는 법을 우리는 배웠었다. 모험하고 싶은 갈망에 그도 시달리고 있었다 ; 그는 자기 힘 때문에 대담해져 있었다. 그렇다. 젊은 우리 마음들, 어떤 영광도 너희와 맞먹지는 못하겠지! 즐겨 모두를 갈망하던 우리는 부질없게도 우리의 욕망들을 지치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열정이었었다 ; 무엇을 느끼는 데는 톡 쏘는 야릇한 맛이 있었다. 아름다운 앞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자신의 눈부신 젊음을 써 없애고 있었고, 그리로 가는 길이 그다지 끝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 길을 우

리는 성큼성큼 걸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꿀맛과 달콤한 쓴맛으로 입을 채워 주는 산울타리 꽃들을 깨물면서.

가끔 파리에 들르면 며칠이나 몇 시간 동안 나는, 공부벌레이던 내 어린 시절이 훌러간 아파트를 되찾곤 했다 ; 거기서는 모두가 조용했었다 ; 집을 비운 여인의 손 길이 가구들을 천으로 덮어 둔 채였었다. 램프를 손에 들고 이 방 저 방을 둘러보았다. 몇 해째 닫혀 있던 덧문들을 열어 보지도, 나프탈렌 냄새투성이인 커튼들을 걷어 보지도 않고. 공기는 무겁고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내 방만이 그전대로 차려져 있었다. 방들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조용한 서재에는, 서가와 탁자들 위의 책들이 내가 놓아둔 그대로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 ; 그중의 한 권을 펼쳐보는 수도 있었지만, 낯인데도 켜진 등불 앞에서 나는 시간을 잊는 것이 행복했었다 : 때로는 또 그랜드 피아노를 열어 기억 속에서 옛 곡의 리듬을 더듬기도 했다 ; 그러나 너무나 불완전하게 밖엔 떠오르지 않아, 서글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만두고 마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타고나기를 상냥한 내 마음은 마치 액체와도 같이 사방으로 흘러 범져나가고 있었다 ; 어떤 기쁨도 나 자신에게 딸린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 만나는 누구나 다 불러들였으며, 즐기는 것이 나 혼자일 때, 그것은 자존심 때문에 지나지 않았다.

더러는 나의 이기심을 나무랐다 ;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정이나 애착 또는 애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는 자부했었다. 그것을 하나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다른 하나에게서 빼앗고 싶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나를 빌려 주기만 하는 것이었다. 하물며 어떤 남의 몸이나 마음도 독차지하고 싶지는 않았다 ; 자연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떠돌이인 나는 어디서도 멎지는 않았다. 편애는 다 부당해 보였었다 ;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고 싶었던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도시마다의 기억에다 나는 난봉의 기억을 비끄러매었다. 베네치아에서는 가면무도회들에 끼어들었다 ; 내가 사랑을 맛보던 배에는 비올라와 플루트 협주가 뒤따랐다. 젊은 남녀를 가득 태운 다른 배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새벽을 기다리려 우리는 리도 쪽으로 갔으나, 해가 떴을 때는 지쳐서 자고 있었다. 음악도 벌써 그친 뒤

여서. 그러나 나는 그 덧없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남겨 주는 그 피로까지도, 또 기쁨들이 시들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그 깨어남의 현기증마저도, 나는 사랑하는 것 이었다.—다른 항구들에서는 큰 배의 선원들과 함께 갈 줄도 알았다 ; 불빛 희미 한 뒷골목들을 내려갔다 ;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경험의 욕망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비난했다 ; 그래서 뱃사람들을 사창가 곁에 남겨두고 나는 조용 한 선창으로 돌아가곤 했다, 별나고도 감동적인 웅성거림이 황홀을 통해 들려오던 그 뒷골목들에 대한 기억이 바로 밤들의 말 없는 충고로만 여겨지곤 하던 그 선창 으로. 나에게는 들판의 보물들이 더 나았던 것이다.

그럭저럭 25살이 되자, 여행에 지쳤다기보다는 그런 떠돌이 생활로 자라난 지독한 자존심에 시달린 나는,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가질 만큼은 나도 성숙한 것으로 알 았다, 아니 확신했다.

왜? 하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었다 : 왜 너희들은 나더러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하 느냐 ; 모든 길가에 새 꽃들이 피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그 꽃들이 이 기다리는 것은 이젠 바로 너희들이다. 꿀벌들도 한철밖에 꿀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 나중에는 금고지기가 되는 것이다.—나는 버려 두었던 아파트로 돌아갔다 : 창문들을 열었다 ; 떠돌이인 나도 모르는 양 쌓인 저축 덕분에 나는, 내가 장만 할 수 있었던 모든 값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꽃병들 이나 귀한 책들, 그리고 특히 내 미술에 관한 안목 덕분에 아주 헐값으로 구한 그림들에. 15년 동안을 나는 구두쇠처럼 축재했다 ; 있는 힘을 다해 부자가 된 셈이다 ; 나는 공부를 했다 ; 고대어들도 배워 술한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여러 가지 악기들의 연주도 배웠다 ; 날마다의 시간마다가 뭔가 유익한 연구에 바쳐졌다 ; 역사와 생물학에 특히 몰두했다. 문학도 이것저것 알게 되었다. 나의 너그러 운 마음과 어엿한 귀족 신분 덕분에 훔치지 않아도 된 우정들도 나는 쌓았다 ; 우정이야말로 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했지만, 그런 우정에도 나는 매달리지는 않았다.

50살이 되자 때가 왔다 싶어, 나는 모든 것을 팔았는데,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나의 틀림없는 안목과 견식이 나더러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은 하나라도 갖게는 해 주

지 않아, 나는 이를 만에 상당한 재산을 이룩했다. 언제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재산을 고스란히 투자했다. 이 땅 위에서는 어떤 사사로운 것도 간직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몽땅 팔아치운 것이다 ; 지난날에 대한 아무리 하찮은 기억마저도.

들판으로 나를 따라온 미르틸에게 나는 말했었다 ; —“이 멋진 아침의 느낌이, 이 안개며 이 빛이며 이 시원한 바람, 너의 생명의 고동의 느낌이, 얼마나 더한 기쁨을 너에게 주겠는가, 네가 그 느낌 속에 흠뻑 빠져들 춰만 안다면 말이다. 너는 그렇다고 믿고 있겠지만, 네 존재의 가장 나은 부분은 같혀 있단 말야 ; 네 처자며 네 책들, 네 연구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느님으로부터 너를 따돌리고 있는 거다.

힘차고 완전하고 직접적인 생명감을 너는 바로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다고 믿는가?—생명 아닌 것을 다 잊지 않고도 말이야. 네 사고방식이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 너는 과거나 미래 속에서만 살고 있어 저절로 느껴 알아차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르틸, 우리는 생명의 스냅사진 속에서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 그 스냅에서는 과거 모두가, 미래의 아무것도 태어나기 전에 죽어 가거든. 순간들! 그 현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너도 이해하겠지, 미르틸! 왜냐하면 우리 삶의 순간마다는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 때로는 오로지 순간에만 너를 집중시킬 줄도 알도록 하라고. 미르틸, 네가 바란다면, 네가 안다면, 바로 이 순간에 너는 아래도 자식들도 없이 땅 위에서 하느님 앞에 너 혼자가 되기도 할 텐데. 그런데도 너는 그들 생각만 하며, 네 과거 모두와 네 사람들 모두와 땅 위의 네 걱정거리들 모두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마치 그런 것들을 잊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러듯이. 나로 말하면 내 사랑 모두는 새로운 놀라움을 주려고 모든 순간에 나를 대기하고 있거든 ; 그 사랑을 나는 언제나 알아 보지만 절대로 다시 만나지는 않아. 미르틸, 하느님이 갖는 온갖 모습들을 너는 짐작도 못 해 ; 그중의 하나만 너무 들여다보다가 그것에만 빠져들면 너는 장님이 되는 거야. 고집불통인 네 숭배가 나는 괴로워 ; 나는 그것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해. 닫혀진 모든 문들 뒤에 하느님은 계신 거야. 하느님의 온갖 모습이 다 애지중지할 만한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모습인 거다.”

…이룩된 재산으로 나는 맨 먼저, 나와 함께 세 친구와 선원들과 네 소년 선원을 바다로 데려다 줄 선박 한 채를 빌렸다. 그중의 제일 못생긴 소년에게 나는 반했다. 그러나 그의 다정한 어루만짐보다는 커다란 파도 바라보기를 더욱 좋아했었다. 저녁에는 전설과도 같은 항구들에 들어갔다가는 새벽 전에 그곳을 떠나곤 했어, 때로는 밤새껏 사랑을 찾다가, 베네치아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창녀를 만났다 : 사흘 밤 동안 그녀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하도 아름다워 그녀 곁에서는 나의 다른 사랑들의 즐거움을 잊었었으니까. 내가 선박을 판 것은, 아니 주고 만 것은 바로 그녀한테였다.

코모 호수의 어느 호화 별장에서 나는 몇 달을 살았는데, 더없이 다정한 음악가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 조심성 있고 말솜씨도 좋은 미녀들도 나는 모아들였다 ; 그래서 저녁에는 음악가들이 우리를 호리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그리고는 끝단들이 물에 잠긴 층계를 내려가 떠도는 배들을 타고 노 젓는 조용한 장단에 맞춰 우리의 사랑들을 잠재우곤 했다. 즐면서 돌아오기도 했다 ; 기슭에 대어진 배가 느닷없이 깨어나고, 이두아느는 내 팔에 매달려 잠자코 층계를 되올라가곤 했었다.

이듬해에는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방데의 어느 널따란 동산에 있었다. 내 거처에서 베푼 환대를 세 시인이 노래해 주었다 ; 그들은 물고기와 식물들이 있는 못들에 대해서도, 포플러나무 늘어선 길들이며 외딴 떡갈나무들, 물푸레나무 숲들, 동산의 야기자기한 짜임새에 대해서도 말했었다. 가을이 오자 나는 가장 큰 나무들을 쓰러뜨리게 해, 내 거처를 짐짓 짓밟기를 좋아했다. 잡초가 멋대로 자라게 둔 오솔길들에서 적지도 않은 우리 패거리가 헤매며 돌아다니던 그 동산의 걸모습을 말해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겠지. 나무꾼들의 도끼 소리가 줄나무 길들 끝에서 끝까지 들렸었다. 길에 가로놓인 나뭇가지들에 드레스가 걸려 들곤 했다. 쓰러진 나무들 위로 펼쳐지는 가을빛은 눈부신 것이었다. 하도 어마어마한 장관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오랜 후에도 나는 다른 것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았으며, 그래서 나는 내 늘그막을 거기서 미리 알아 보았던 것이다.

그 후에 나는 알프스의 높은 산속의 어느 산장을 차지해 살았다 ; 몰타에서는, 레몬이 새콤달콤한 오렌지 맛이던 향기로운 치타 바키아 숲 근처의 어느 하얀 호화 별장에서 ; 달마티아에서는 떠돌이 사륜마차에서 ; 그리고 지금은 피렌체 언덕 위, 내가 오늘 저녁에 자네들을 모이게 한 이 피에졸 맞은편 언덕 위의 이 정원에서.

내 행복이 신변의 사건들 덕분이라는 말은 너무 하지들 말게 ; 그 사건들이 나에게 유리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이용한 것은 아니니까. 내 행복이 재산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생각들도 하지 말게 ; 땅 뒤에 아무런 집착도 없는 내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그대로이고, 그래서 나는 수월하게 죽어갈 테니까. 내 행복은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사를 구별 없이 골고루 거치면서 나는 미칠 듯이 열렬히 사랑했던 것이다.

II

우리가 있던 엄청난 동산은(나선 충계로 올라오게 돼 있었지만) 온 도시를 굽어 보고 있어, 우거진 잎가지들 위에서 마치 닻을 내린 엄청난 뜻배처럼 보였었다 ; 때로는 거리 쪽으로 달리는 것처럼도 보였고. 올여름에 나는 거리의 법석에 시달리 다가는 이따금씩 이 상상의 배 위 갑판으로 올라와 저녁의 명상하는 고즈넉함을 맛보곤 했었다. 모든 웅성거림이 올라오다 말고 힘이 빠져 버리곤 했었다 ; 그것이 물결들이어서 여기서 부서지고 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물결은 도도한 파도로 다시 밀려와 솟아오르다가는 담벼락에 부딪혀 퍼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물결이 닿지 못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곤 했다. 동산 꼭대기에서는 잎사귀들 살랑거리는 소리와 밤의 미친 듯한 호소밖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고른 줄나무로 심어진 푸른 떡갈나무들과 엄청난 월계수들이 하늘가에 와서 끝나고, 동산도 거기서 끝나 있었다 ; 그런데도 둥그런 난간들은 여전히 이따금씩 튀어

나와 불쑥불쑥 하늘 속의 발코니들과도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나는 와 앉아, 내 생각에 도취하는 것이었다 ; 거기서 나는 배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 거리 저편에 솟은 어두운 언덕들 위에서는 하늘이 금빛이었다 ; 내가 있던 동산에서 나온 가벼운 가지들은 눈부신 석양 쪽으로 기울거나 어둠 쪽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잎사귀도 거의 없이. 거리에서는 연기와도 같은 것이 솟고 있었다 ; 그것은 빛을 받은 먼지로, 떠돌다가는 더 많은 빛이 반짝이는 광장들 위로 간신히 솟아 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무더운 밤의 황홀 속에서 이따금씩 어디선지도 모르게 쏘아 올린 꽃불이 저절로인 양 솟구쳐, 흐르고, 아우성처럼 공간을 따라가고, 떨고, 맴돌고 하다가는, 그 신비롭게 피어나는 소리와 함께 스러져 떨어지곤 했다. 내가 특히 좋아하던 꽃불들은, 그 연한 금빛 불똥들이 하도 천천히 떨어지고 하도 함부로 흩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별들도, 저토록 놀라운 별들 또한, 그 갑작스러운 마술에서 생겨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으며, 그래서 불똥들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별들을 보고 어리둥절하다가는…서서히 그 하나하나를, 뮤인 별자리에서 알아 보게 되고,—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황홀감이 연장되곤 할 정도였다.

“나는 내키지도 않는 마음으로 신변의 사건들에 이용만 당해 왔어” 하고 조제프가 말을 잇자, 메날크가 대꾸했다 :

—할 수 없지 뭐! 나라면 차라리, 있지도 않은 일은 바로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라 고 생각하는 게 낫겠군.

III

그날 밤에 그들이 노래한 것은 바로 과일들이었다. 메날크와 알시드, 그리고 모인 몇몇 사람 앞에서 할라스가 석류의 롱드를 노래했다 :

석류의

롱 드

이 석류 세 알이 프로세르핀더러
그것을 화상케 하기에는 족했다.

넋들의 이루지 못할 행복을
너희는 여전히 오래 찾을 테지.
육신의 즐거움과 감각의 즐거움들
남은 마음대로 너희를 비난해도 좋아,
육신과 감각의 짜릿한 즐거움—
남은 너희를 비난해도 좋지만—나는 차마 못 해.

—열렬한 철학자 디디에여, 나도 물론 감탄은 해요
정신의 즐거움보다 나은 다른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당신의 신념에는.
하지만 이런 사랑들이 모든 사람들 정신 속에
다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소,

하기야 나도 좋아는 하지,
내 넋의 막무가내인 설레임들을,
마음의 즐거움과 정신의 즐거움을—
그러나 내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육신의 쾌락들이니.
풀처럼 부드럽고, 산울타리 꽃처럼 귀여운
육신의 즐거움,
목장의 개자리풀보다도, 만지기만 해도 쳐버리는
한심한 조팝나무보다도, 빨리 시들거나 베어지는 즐거움.

눈—우리 감각들 중의 가장 한심한 것…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은 다 우리를 당혹케 한다;
우리 눈이 탐내는 것을 우리 손이 붙잡기보다는
정신이 더욱 쉽사리 생각을 붙잡는다.
오! 나타나엘, 네가 만질 수 있는 것만 바라고,
더욱 완전한 소유일랑 찾지도 말라,
내 감각들의 가장 흐뭇한 즐거움들은
갈증을 풀어 주는 일이었으니.

그렇다, 들판에 돋는 햇빛에 안개는 멎지고
햇빛 또한 멎지구나;
우리 맨발에 밟히는 젖은 땅도 멎지고
바닷물에 적셔진 모래도 멎지다;
샘물은 우리가 목욕하기에 멎겼었고;
내 입술이 그늘에서 마주친 낯선 입술은 입 맞추기에 멎겼으니…
한데 과일들—과일들에 대해—나타나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오 나타나엘, 네가 과일들을 여태 몰랐다는 것,
나를 낙담시키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일 살은 마치 피나는 살결처럼,
무르고 물이 많아 기막힌 맛이었고,
상처에서 나오는 피처럼 새빨갰었지.
나타나엘, 그것들은 어떤 유별난 갈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냥 금빛 바구니에 담아 내놓은 것이니까;
그 맛이 턱없이 싱거워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었고;
우리네 땅의 어느 과일 맛과도 비슷하지 않았어;
너무 익은 번석류 맛 같다고나 할까.

그 살이 한물간 것만 같았었지 ;
떫은 뒷맛만 입안에 남곤 했으니 ;
새것 하나를 다시 먹지 않고서는 입이 가셔지지 않았으니 ;
그러니 그 과일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였어
기껏해야 그 과즙을 맛보는 순간뿐이었으니 ;
그래서 싱거운 뒷맛에 더욱 구역질이 나면 날수록
그 순간은 그만큼 더욱 소중하게만 여겨졌었지.
바구니는 삽시간에 비어 버렸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우리는 차라리
나눠 먹지 말고 남겨두기로 했지.

아! 나타나엘, 우리 입술에 남은 그 쓰고 얼얼한 뒷맛이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물로도 입술은 씻어지지가 않았었어.
그 열매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 넋에 사무치도록 괴로웠어.
사흘을 줄곧 우리는 여러 장터에서 그걸 찾아다녔지만 ;
그건 제철이 이미 끝난 뒤였어.
나타나엘, 다른 욕망들을 우리에게 줄 새로운 열매들은
우리의 나그네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테라스에서 먹는 과일들이 있다.
바다를 마주 보고 지는 해를 마주 보며.
리큐르를 조금 섞고 설탕 친 얼음에다
담가서 절이는 과일들도 있다.

담장 둘러친 금단의 정원들의
나무들에서 따가지고는,
여름철에 그늘에서 먹는 것들도 있다.

작은 식탁들이 차려지겠지 ;
가지만 흔들어 대면 열매들이
우리 둘레에 수북이 떨어지고
가지에서 잡든 파리 떼가 깨어나겠지.
떨어진 열매는 사발에 담겨지고
그 향기가 벌써 우리를 호리기엔 족할 테지.

껍질에 입술이 얼룩져 갈증이 심할 때만 먹는 것들도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모랫길들 길가에서 발견했다
만지려 들면 우리 손을 할퀴는
가시투성이 잎가지 사이로 반짝이던 그 열매들 ;
그래서 우리의 갈증은 별로 풀리지가 않았다.

햇볕에 끓도록만 내버려 둬도
잽이 될 것 같은 열매들도 있다.
겨울에도 여전히 살이 단단해
깨물고 나면 이빨이 시큼한 열매들도 있고,

여름에도 살이 늘 차가워 보이는 것들도 있다.
작은 선술집들 안쪽에서,
돗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들 먹는다.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면

생각만 해도 갈증 나는 것들도 있다.



나타나엘, 석류 이야기를 너에게 해 주랴?
그 근동의 장터에서는 단돈 몇 푼에 팔고 있었다,
갈대 밭 위에다 아무렇게나 쏟아 놓고.
먼지 속에 굴러다녀 별거승이 아이들이
주워 모으는 석류들도 보였었다.
그 즙은 덜 익은 나무딸기즙처럼 새콤하다.
그 꽃은 밀랍으로 된 것만 같고
색깔도 열매와 마찬가지다.

간직된 보물, 별집 칸막이들,
푸짐하기도 한 그 맛,
다섯모 꽂인 건축.
껍질이 터진다 ; 알이 쏟아진다,
하늘빛 잔들에 담긴 핏빛 알들 ;
또 더러는, 칠보 청동 접시들에 담긴 금빛 물방울들.

시미안, 이젠 무화과를 노래해요,
그 사랑들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감춰져 있는,
무화과를 노래하겠어요, 시미안이 말했다.
그 꽃은 속으로 포개어져 피어나죠.

흔례가 거행되는 달한 밀실 ;
흔례 이야기를 밖에서 해 주는 향기도 없고.
새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향기가 모조리 물 많은 맛으로 바뀌죠.
아름다움 없는 꽃 ; 맛좋은 열매 ;
제 꽃이 익은 것에 지나지 않은 열매.

그녀가 말했다 : 나는 무화과를 노래했어요,
이젠 온갖 꽃들을 노래해요.

—물론 우리는 온갖 열매들을 노래하지는 않았어, 하고 힐라스가 말을 이었다.
시인의 재능 : 하찮은 오얏에도 공연히 감동되는 재능.
(꽃이 나에게는 열매의 약속으로서의 값어치밖에 없거든.)
너는 오얏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차가운 눈이 와야 달콤해지는
산울타리의 시큼한 인목 열매.
문드러져야만 먹게 되는 서양 모과 ;
또 화로 불가에서 터뜨려지는
가랑잎 색깔의 밤.

—어느 봄시 추운 날 눈 속에서 내가 주운 그 산속의 월굴 열매 생각이 나는군.
—나는 눈이 싫어, 하고 로테르가 말했다 ; 그건 아직도 땅 편이 되지 않은 아주 신
비로운 물질이지. 경치를 멋게 하는 그 엉뚱한 하양이 나는 밉거든. 눈은 차갑기만
해 생명을 거부하지 ; 눈이 생명을 품어 주고 보호한다는 건 나도 알고는 있지만,
생명은 눈을 녹이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식물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눈이 반쯤 녹아 잿빛으로 더러워지기를, 그래서 거의 물이 되기를 나는 바란단 말

이야.

—눈을 그렇게만 말하질랑 말게, 눈도 아름다울 수는 있으니까, 하고 윌리크가 말했다. 눈이 슬프고 괴로운 것은 사랑에 겨워 제가 녹아 버리는 데서만 그래 ; 그래서 사랑을 눈보다 좋아하는 자네는 반쯤 녹은 눈을 더 좋아하는걸세. 눈은 제가 이겨서 우쭐거리는 곳에서 아름다운 거야.

—그런 곳에 우리는 가지 않을 거야, 하고 힐라스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잘됐다고 말하는 데서 자네가 딱하다고 말할 건 없잖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저마다가 발라드 형식으로 노래했다 ; 뮐리베는 더없이 이름난 애인들의 발라드를 불렀다 :

더없이 이름난 애인들의
발라드

술레이카! 작부가 따라주던 포도주 마시기를
당신 때문에 나는 그만두었다.

보아브딜, 그라나다의 헤네랄리페 궁전의
장밋빛 월계수들에 내가 물 준 것은 당신 때문이다.

발키스, 당신이 나한테 수수께끼를 내놓으러 남쪽 나라의 시골에서 왔을 때 나는
솔로몬이었소.

타마르, 나는 당신 오빠 암논이었소, 당신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죽어 가던 당신 오빠 말예요.

밧세바, 나는 나 때문에 당신 남편을 자살하게 한 다윗이었소, 내 궁전의 가장 높은 테라스까지 금빛 비돌기를 쫓아가다가, 당신이 목욕하러 알몸으로 내려오는 것

을 보았을 때 말예요.

슬라미트, 거의 종교적인 것으로 믿어질 그런 노래들을 나는 당신을 위해 불렀소.
포르나리나, 당신 품에서 사랑에 겨워 울부짖던 그 남자가 바로 나요.
조베이드, 당신이 아침에 광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노예가 바로 나요 ; 나는
빈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당신은 나더러 자기를 따라오며 그 바구니를 시
트론과 레몬과 오이로, 갖가지 양념들과 사탕과자들로 채우게 했었지 ; 그러다가
내가 당신 마음에 들고 또 내가 피로에 지쳤기에 당신은 밤에 나를, 자기 두 자매
와 세 왕자 곁에 두고 싶었던 거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내력을 이야기하면
서, 차례로 남들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었소.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오자 나는 말했
지 : 조베이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었소 ; 지
금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겠소? 당신이 내 삶 모두가 아닌가요?—이렇게 말하면서
침꾼은 과일들을 마구 먹어 대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어려서, 천 하룻밤에 단
골로 나오는 그 말린 챙들이 먹고 싶어 꿈까지 꾸던 생각이 난다. 그 후에 나는 장
미에센스가 든 그 챙을 먹어 보았고, 또 한 친구 말로는, 여주로 만든 챙도 있단
다.)

아리안, 나는 길손 테세우스요

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당신을 바커스에게 맡기고 떠난 테세우스요.

아리따운 에우리디케, 당신에게는 내가 오르페우스요

당신이 뒤따라오는 것이 귀찮아서 당신을,

힐끗 보고는 지옥에다 버리고 온 오르페우스요.

이어서 모프수스가 부동산들의 발라드를 노래했다 :

부동산들의
발라드

강물이 불어 오르기 시작하자
산 위로 피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
더러는 생각했다 : 진흙 덕분에 우리 밭들이 살찌겠지 ;
더러는 생각했다 : 이젠 파산이다 ;
더러는 아무런 생각도 통 하지 않았다.

강물이 다 불어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나무들이 보이는 곳들도 있었고,
집들의 지붕이며 종탑들이며 담장들이,
더 멀리는 언덕들이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
아무것도 통 보이지 않는 딴 곳들도 있었다.

가축들을 언덕 위로 올려 보낸 농부들도 있었고 ;
어린 자식들을 배로 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
보석이며 식량이며 문서들을,
돈이 되고 뜰 수 있는 것은 다 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것도 실어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물결에 끌려간 배로 도망친 사람들은,
전혀 낯선 땅들에서 깨어났다.
아메리카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
중국에서, 또 폐루 해안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통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어서 귀즈망이 질병들의 롱드를 노래했는데, 여기서는 그 끝머리만 인용하겠다.

질병들의
롱 드

…다미에트에서 나는 간헐열에 걸렸다.
싱가포르에서는 내 몸에 하양과 보라의 발진들이 피어나는 것을 봤다.
티에라 텔페고 섬에서는 내 이빨이 다 빠져 버렸다.
콩고에서는 카이만 악어가 내 발 하나를 먹어 버렸다.
인도에서는 쇠약증에 걸려 내 피부가 놀랍도록,
초록색으로 변해 마치 투명하다시피 되었다.
내 눈은 감상적일 만큼이나 커진 것만 같았고.

나는 어느 빛나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 ; 거기서는 저녁마다 온갖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런데도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못한 갤리선들이 계속해서 물에 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그중의 하나를 타고 떠났다. 시의 사령관이 노 젓는 마흔 사람의 힘을 내 변덕을 위해 대 주었던 것이다. 사흘 밤 나흘 낮을 우리는 저어갔다 ; 그들은 나를 위해 그 놀라운 힘들을 써 없앴다. 그 단조로운 피로 가 그들의 거친 정력을 잠재워 주었었다 ; 물결을 끝없이 휘젓느라 지치고 있었다 ; 그들은 더욱 멋있는 몽상가가 되어 갔으며, 그래서 그들의 옛날 생각들은 아득한 바다 위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 무렵에 운하가 사통팔달인 금빛 또는 갯빛 감도는 도시에 들어갔다, 갈색인지 금빛인지에 따라 암스테르담 또는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도시에.

IV

저녁에, 피렌체와 피에졸의 중간, 피에졸 언덕 기슭에 있는 동산에서, 보카치오 시대에 팜필과 피아메타가 노래하던 바로 그 동산에서,—너무 빛나던 낮이 끝나고—어둡지도 않은 밤에, 시미안, 티티르, 메날크, 나타나엘, 엘레느, 알시드,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심한 더위 덕분에 둔덕 위에서 다과로 가벼운 식사를 마친 우리는 오솔길로 내려가 있었고, 이제는 음악도 끝나, 월계수와 떡갈나무들 그늘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푸른 떡갈나무 숲에 가려진 샘물 곁 풀밭에 드러누워 한낮의 피로를 천천히 풀며 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이 패 저 패를 돌아다녔는데,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있었는데도 두서없는 이야기들밖에 들리지 않았었다.

—쾌락은 다 좋은 것, 맛볼 필요가 있지, 하고 엘리파스가 말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쾌락을 다 맛보라는 말은 아니지 ; 골라잡아야 해. 티불이 한 말이다.

좀 떨어진 데서 페드르와 바시르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테랑스였다 :

—나는 카빌리아 족 소녀를 사랑했었지, 검은 피부에 살결이 탄탄하고, 갓 성숙한 소녀였어. 그 애는 더없이 앳되면서도 이미 더없이 차분한 쾌락 속에 뜻하지 않은 신중함을 간직하고 있었어. 그 애는 나의 낮들의 권태이자 나의 밤들의 기쁨이었지.

그리고 시미안은 힐라스에게 :

—그건 저를 자주 먹어 달라고 부탁하는 조그만 열매지.

힐라스가 노래하고 있었다 :

—우리에게는 마치 길가의 밭에서 슬쩍하는 그 작은 과일들과도 같이, 맛이 시큼

해 더 달았으면 하고 바랐을, 그런 잘다란 쾌락들도 있었지.

샘물들 곁의 풀밭에 우리는 앉았다 :

…그들의 말보다는 내 곁의 밤새 노래에 잠시 동안 내 마음이 더욱 쓸렸다 ; 내가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 힐라스가 말하고 있었다 :

…그래서 내 감각들이 저마다 제 욕망을 갖게 됐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싶어져서 보니, 내 하인 하녀들이 내 식탁에 앉아 있었어 ; 내가 앉을 아주 작은 자리도 이미 없어지고 만 거지. 상석은 갈증이 차지하고 있었어 ; 다른 갈증들이 그 갈증과 좋은 자리를 다투고 있었고. 식탁 전체가 싸움판이었어 ; 그러나 나와 맞서서는 그 것들은 한마음이었지. 내가 식탁에 다가서려 들자 그것들이 일제히 나와 맞서 일어섰으니, 이미 취해 가지고들 ; 그것들이 나를 내 집에서 내쫓았어 ; 나를 밖으로 끌어냈고, 그래서 나는 집을 다시 나와 그것들이 먹을 포도송이를 따라 간결세.

욕망들! 아름다운 욕망들, 너희에게 찌그러진 포도송이들을 갖다 주마 ; 너희의 그 엄청난 잔들을 내가 다시 채워 주마 ; 하지만 내가 내 집에 돌아가도록은 내버려둬다오—그래서 너희가 취해 잠들었을 때 내가 또다시, 주홍과 송악의 왕관을 쓰고—내 이마의 시름을 송악 왕관으로 가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취기에 사로잡혀 이젠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다 ; 이따금씩, 지저귀던 새가 입 다물면 밤은 마치 바라보는 것이 나 혼자뿐이었던 것처럼 조용해지는 것만 같았다 ; 때로는 술한 우리 패거리 목소리에 뒤섞여 터지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 그 목소리들은 말하고 있었다 : —

우리도, 우리 또한, 우리 넋의 애처로운 권태를 모르지는 않았다.

욕망들이 우리더러 조용히 일하게 두지는 않는다.

—…울여름에는 내 모든 욕망들이 목말랐었다.

마치 여러 사막들이라도 건너온 것만 같았었다.

그래서 나는 마실 것을 주기를 거절했었다,
마셨기에 병들었음을 나는 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망각이 잡든 포도송이들이 있었다 ; 벌떼가 먹어 대는 포도송이들도 있었다 ; 햇빛이 어정거리고 있는 포도송이들도 있었다.)

욕망 하나가 저녁마다 내 머리맡에 와서 앉았다.
새벽마다 보아도 그 자리에 그냥 있다.
밤새도록 나를 지켜본 것이다.
나는 걸었다 ; 내 욕망이 지치기를 바랐다 ;
내 몸밖엔 지치게 할 수가 없었다.

클레오달리즈, 이젠 모든 내 욕망들의 롱드를 노래해 줘요 :

모든 내 욕망들의
롱 드

간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군.
깨어 보니 모든 내 욕망들이 목말라 있었지.
자는 동안 여러 사막들이라도 건너온 것만 같았다.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은 어정거린다.

욕망들아! 너희는 지치지도 않을 것인가?
오! 오! 오! 오! 지나가는 이 작은 쾌락!—이내 지나가고 말 이 하찮은 욕망!—
아! 딱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내 괴로움을 연장시키는 법을 ; 한데 내 기쁨을 어떻게 길들일지를 나는 모른다.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이 어정거린다.

그리고 온 인류가 나에게는, 잠자리에서 잠들려고 뒤척거리는 병자처럼 보였다—
휴식을 찾다가 잠조차 찾지 못하는 병자처럼.

우리의 욕망들은 이미 술한 세계들을 거쳐 왔다 :

욕망들은 일찍이 채워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온 자연이 고민하고 있다,

휴식의 갈망과 쾌락의 갈망 사이에서.

우리는 비참해서 울부짖었다.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아파트들에서.

우리는 탑들 위로 올라갔다

어둠밖에 보이지도 않던 탑들 위에.

암캐들처럼 우리는 괴로워서 울부짖었다

말라붙은 방죽들을 끼고가며 ;

암사자들처럼 우리는 오레스 산속에서 으르렁거렸다 ; 또 암낙타들처럼 짠 호수들
의 잿빛 마름들을 뜯어 먹고, 속 빈 줄기들의 진을 뺏아먹었다 ; 왜냐하면 사막에
는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제비 떼처럼 우리는 건너갔다.

아득한 바다들을 먹을 것도 없이 ;

메뚜기 떼처럼 우리는 모조리 짓밟아야 했다, 먹고살려고.

바닷말처럼 우리를 소나기가 뒤흔들었다 ;

눈송이처럼 우리는 바람에 굴러다녔다.

오! 끝없는 휴식을 위해 나는 유의한 죽음을 바란다 ; 그래서 마침내는 기진맥진한 내 욕망이 새로운 윤허들의 요구를 채워 줄 수 없게 되기를. 욕망! 나는 너를 이 길 저 길 끌고 다녔다 ; 들에서는 너를 괴롭혔다 ; 큰 도시들에서는 너를 취하게 했다 ; 네 갈증은 풀어 주지도 않고 취하게만 했지 ; —달빛 가득 찬 밤들 속에서 너를 벽감겼고 ; 도처에 너를 끌고 다녔다 ; 물결 위에서 너를 얼려주었고 ; 너를 파도 위에서 잠재우고 싶었다…욕망! 욕망! 너에게 내가 뭘 해 주랴? 도대체 너는 뭘 바라지? 너는 지치지도 않을 것인가?

한결같지만 여느 때만큼은 아름다운 달이 떡갈나무들의 가지 사이로 나타났다. 이제 그들은 끼리끼리 이야기하고들 있었고, 나에게는 흩어진 말귀들밖에 들리지 않았다 ; 저마다가 딴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말하면서도, 귀담아듣는 사람이야 있건 없건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윽고 대화들은 시들해졌고, 더욱 우거진 떡갈나무들 가지 사이로 달이 사라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잎사귀들 속에서 서로 기대고 누워 있었다. 이젠 알아듣지도 못할 남녀들의 뒤늦은 수다를 컷전으로 흘려 보내며. 한데 그 목소리들도 더욱 잠잠해져 나중에는, 이끼 위를 흐르는 시냇물의 속삭임과 뒤섞여서만 우리 귀에 들려왔다.

그러자 시미안이 일어서서 제가 쓸 송악 왕관을 하나 만들었고, 찢어진 잎사귀들의 냄새를 나는 맡았다. 엘레느는 머리를 풀어 드레스 위로 늘어뜨렸고, 라셀은 눈을 적셔 잠들일 젖은 이끼를 뜯으러 갔다.

달빛마저도 사라졌다. 나는 벽차도록 홀리고 슬프도록 도취되어 누워 있었다. 나는 사랑을 말하지는 않았다. 떠나서 무턱대고 길들을 달려가려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친 내 머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시간을 잤다 ; —그리고는 새벽이 오자 길을 떠났다.

제 5 부

I

비 잣은 노르망디 땅 :
길들여진 시골…

너는 말했었지 ; 우리는 봄에 서로를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지들 아래서 ; 이끼로 운통 뒤덮인 그곳에서 ; 그날 그 시간에 ; 공기도 그 따스함을 갖게 되고, 작년에 거기서 노래하던 새가 또 노래하겠지.—그러나 올해는 봄이 늦게 왔다 ; 너무 시원한 공기가 또 다른 기쁨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여름은 나른하고 포근했었다—너는 한 여인을 기대했었고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말했었지 : 가을은 적어도 내 실망을 벌충하고 내 권태를 달래주겠지. 내 짐작으로 그녀는 오지 않을 거다—그래도 큰 숲들은 단풍이 들겠지. 아직도 따스한 낮들에는, 지난해 그 많은 가랑잎들이 떨어진 그 연못가에 나는 가서 앉겠다. 저녁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며…다른 저녁들에는, 마지막 햇살이 쉬는 숲 기슭으로 내려가겠다. 한데 올해는 가을에 비가 잣았다 ; 습기 많은 숲들은 단풍이 별로 들지 않았고, 물 넘친 연못가에 너는 가서 앉을 수도 없었다.



나는 올해에 노상 땅에 매여 지냈다. 수확과 경작을 거들었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 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철은 비길 데 없이 따스했으나 비가 잣았다. 9월 말 경에는 무서운 광풍이 12시간을 줄곧 불어 대어 나무들을 한쪽만 밀려 놓았다. 바람을 피해 남아 있던 나뭇잎들이 얼마 후에 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서 하도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었기에, 이런 일도 다른 어떤 일 못지않게 중요한 화제로 여겨질 판이었다.



나날이 있고 다른 나날들도 있다. 아침들이 있고 저녁들이 있다.
잠기에 겨워 새벽 전에 일어나는 아침들이 있다.—오, 잿빛 가을 아침! 쉬지도 못한 채 깨어난 넋이 하도 열나는 밤샘에 지쳐, 더 자기를 바라며 죽음의 맛을 지레 짐작해 볼 정도인 그런 아침.—추워 떨고 있는 이 시골을 나는 내일 떠난다 ; 풀이 서리투성이이다. 나는 알고 있다, 마치 배고풀 때를 생각해서 빵이며 빠다귀들을 땅속에 몰래 감춰 둔 개처럼 나도, 따로 챙겨 둔 어떤 즐거움들을 어디서 찾아낼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움푹 팬 개울 모퉁이의 얼마간의 따스한 공기를 ; 수풀 올타리 위의 아직은 잎 떨어지지 않은 금빛 보리수 한 그루 ; 학교 가는 길에서 대장간 소년에게 주는 미소와 어루만짐 ; 좀 더 가면 수북한 낙엽 냄새 ; 내가 미소 지어 보일 수 있는 아낙네 ; 오두막집 옆에서 그 꼬마 아들에게 주는 뾰뽀 ; 가을에는 아주 멀리서도 들리는 대장간 망치 소리…그뿐인가?—아! 잠이나 자자! 너무 하찮은 일이다—그리고 나는 기대하느라 너무 지쳐 있으니…



새벽 전의 어스름 속에서의 끔찍한 출발들. 넋과 육신의 소름. 어지럼증. 더 갖고 갈 수 있을 것이 없나 하고 사람은 찾는다.—메날크, 출발들에서 당신이 그토록 좋았다는 게 무엇이오?—죽음을 미리 맛보기라고 그가 답했다.

정말이지 다른 것을 보겠다기보다는 나에게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모든 것과 헤어 지자는 것이다. 아! 나타나엘, 우리가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침내 사랑으로—우리의 단 하나 진짜 소유인 사랑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할 만큼이나 충분히 헐벗어 본 적이 없는 넋들.

아! 사람들이 못지않게 곧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그 모든 곳들! 행복이 부풀어 오를지도 모를 고장들. 일이 고된 농장들 ; 이루 헤아리지도 못할 밭일들 ; 피로 ;

한없이 잔잔한 잠…

떠나자! 그리고 아무 데서나 닥치는 대로만 몇도록 하자! …

II

합승마차 여행

지나친 체면을 차리도록 강요하는 도시 옷차림을 나는 버렸다.



그는 거기 있었다. 나에게 기대고 : 그의 심장의 고동을 들으며 살아 있는 한 피조물임을 나는 느끼고 있었고, 그 작은 몸뚱이의 열기에 내가 들며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기대고 자고 있었다 ; 그의 숨소리를 나는 듣고 있었다. 그 미지근한 입김이 나는 답답했지만, 그가 깔까 봐 두려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독히도 빽빽이 들어차 있던 마차의 심한 요동에 그 연약한 머리가 뒤흔들리고 있었다 ; 다른 사람들도 남은 밤이 아쉬운 듯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물론 사랑을 겪어 알고 있다, 사랑하고도 술한 다른 사랑들을 ; 그러나 그때의 그 애정에 대해서는 나도 아무 말을 못 할 것인가?

나는 물론 사랑을 겪어 알고 있다.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스쳐 갈 수 있게 되려고 나는 떠돌이가 되었다 : 몸 녹일 곳을 모르는 모두에게 나는 애듯한 정을 느껴, 떠도는 것은 다 열렬히 사랑했다.



나는 생각난다, 내가 지금 다시 지나가는 이 작은 도시에서 4년 전에 어느 날 저녁 나절을 보낸 일이 ; 철은 지금처럼 가을이었었다 ; 그때도 일요일은 아니었고 더운 시간이 지난 뒤였었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나는 지금처럼 길거리를 거닐다가, 그 아름다운 고장을 굽어 보는 계단식 정원이 열리는 거리 범두리까지 갔다.

지금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 모두가 눈에 익다.

내 발자국과 내 감동들을 나는 되밟고 있다…돌 벤치가 하나 있어 나는 거기 앉았었지.—바로 여기였어.—벤치에서 책을 읽었었지. 무슨 책을?—아! : 베르길리우스였어.—그리고 빨래하는 여자들의 방망이 소리가 솟아오르는 것을 나는 들었었지.—지금도 들려온다.—그때도 공기는 잔잔했었어,—오늘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온다 ; 그때 생각이 난다. 행인들이 지나간다, 전에 지나갔던 것처럼. 해가 지고 있었지 ; 지금도 저녁이다 ; 그래서 낮의 노래들이 곧 그칠 참이고…

이게 모두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시 한 편을 짓기에는 족하지가 않은데…앙젤이 말했다.

—그럼 이만해 두지, 하고 내가 답했다.



우리는 새벽 전의 이른 기상에도 익숙해졌다.

안마당에서는 마부가 말을 달고 있다.

물 양동이들이 돌 깐 길을 씻어 내고 있다.

생각들에 시달리다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흐리멍덩한 머리. 떠나가야 할 곳들 ; 작은 방 ; 나는 잠시 동안 내 머리를 여기다 두었다 ; 나는 느꼈다 ; 나는 생각했다

; 나는 밤을 새웠다.—사람이 죽으면 어때! 또 아무 데서면 어때 (이미 살지 않게 되고 나면 어디건 상관없고 어디에도 없는 것). 살았으니 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두고 떠난 방들! 서운한 것이기를 내가 바란 적이 없는 출발들의 불가사의. 이것을 눈앞에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언제나 흥분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만 더 이 창문에서 몸을 내밀어 보자…출발의 순간이 오고 있다. 출발의 순간이 이 순간을 앞서 갔으면 싶다…거의 끝나가는 이 밤에,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 쪽으로 내가 또다시 몸을 내밀 수 있도록.

매혹의 순간아, 아득한 하늘에 새벽빛 물결을 쏟으렵…

합승마차는 채비가 되어 있다. 떠나자! 내가 방금 생각한 것이 모조리 나처럼 도망의 현기증 속에 사라지기를…

숲 통과. 향기로운 기온들의 지대. 가장 따스한 기온은 땅 냄새를 지니고 있고 ; 가장 차가운 기온은 잠긴 잎사귀 냄새를 지니고 있다.—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 눈을 다시 뜬다. 그렇다 ; 저것은 나뭇잎들이고 ; 이것은 파헤쳐진 부식토이고…

스트라스부르

오, “엉뚱한 성당이여!”—공중에 솟은 너의 탑!—꼭대기에서는 마치 흔들리는 기구 곤돌라에서처럼 지붕들 위에 황새들이 보였었다

기다란 다리 달린
정통파의 딱딱한 황새들이,
느릿느릿.—그 다리를 놀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주막들

밤에 나는 곳간 안쪽에 가서 자곤 했다 :
마부가 건초더미 속으로 나를 찾으러 오곤 했다.

주막들

…버찌 술 석 잔째에, 더욱 뜨거워진 피가 내 머리통 아래를 맴돌기 시작했다 ;
넉 잔째에, 나는 그 가벼운 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대상들을 끌어다가 내
손 닿는 곳에 갖다 두던 그 취기가 ;
다섯 잔째에는, 내가 있던 방이, 세계가, 마침내 더욱 고상한 균형이 잡혀, 거기서
는 고상한 내 정신이 더욱 자유롭게 설치는 것이었다 ;
여섯 잔째에서는, 좀 고단했기에 나는 잠들고 말았다.

(우리 감각의 기쁨들은 다 거짓말처럼 불완전한 것들이었다.)

주막들

오랑캐꽃 맛이 되어 되돌아와서는 깊은 낮잠이 들게 하는, 주막들의 그 텁텁한 포
도주를 나는 알게 되었다. 온 지구가 당신의 힘찬 생각의 무게 하나에 눌려 흔들거
리는 것만 같을 때의, 그 저녁의 도취도 알게 되었다.

나타나엘, 도취에 대해 너에게 말해 주마.

나타나엘, 더없이 간단한 욕구 충족도 나에게는 하나의 도취이기 일쑤였으니, 그
토록이나 나는 미리 욕망들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찾던 것도
우선은 주막보다도 내 허기증이었던 것이다.

도취들—이른 아침부터 걸어 배고픔이 이미 식욕이 아니고 현기증일 때는, 허기의 도취. 저녁때까지 걸었을 때는, 갈증의 도취.

그럴 때는 더없이 검소한 소찬도 나에게는 성찬처럼 대단한 것이 되어, 나의 알찬 생명감을 서정적으로 맛보곤 했었다. 그럴 때는 내 감각들의 관능적인 이바지로, 내 감각들에 닿는 대상마다가 내 손에 만져지는 뚜렷한 행복과도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생각들을 슬쩍 일그러뜨리는 도취도 나는 알게 되었다. 생각들이 마치 오페라글라스 통처럼 줄어들던 날 생각이 난다. 끝에서 둘째 생각이 그래도 가장 팬찮은 것으로 늘 여겨졌었다; 그러다가 그 생각에서 사뭇 더 팬찮은 게 늘 나오곤 했다. 생각들이 하도 동그레지는 바람에 정말이지, 굴러가게 내버려 둘 도리밖엔 없던 날 생각도 난다. 생각들이 하도 말랑말랑해서 저마다가 다른 모든 생각들의 형태들을 잇달아 갖게 되고, 서로가 형태를 바꾸곤 하던 날 생각도 난다. 어떤 때는 두 가지 생각이 평행을 이루면서 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자라나려고 드는 것만 같기도 했었다.

사람을 실지 그대로의 자기보다도 더 낫다고, 더 위대하다고,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더 덕이 높다고, 등등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도취도 나는 알게 되었다.

가을들

들판에는 커다란 경작지들이 있었다. 밭고랑들이 저녁 하늘에 김을 내뿜고 있었 다. 지친 말들이 발걸음을 더욱 늦추고 있었다. 저녁마다가 나를 도취시켰었다, 마치 내가 거기서 땅 냄새를 처음 맡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나는 숲 가장 자리 비탈에 앓기를 좋아했었다. 가랑잎들 사이에; 경작지의 노래들에 귀도 기울이고, 기진맥진한 해가 들판 끝에서 잡드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축축한 계절; 비 잣은 노르망디 땅…

산책들.—광야들, 그러나 우툴두툴하지는 않다.—절벽들.—숲들.—얼어붙은 시내. 나무 그늘의 휴식 ; 잡담들.—다갈색 고사리들.

—아! 우리는 생각했었지, 목장이여, 여행에서 우리는 왜 너를 만나지 않았지, 그럼 우리는 말을 타고 가로지르고 싶었을 텐데(목장은 완전히 숲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저녁 산책들.

밤 산책들.—

산책들

…존재하기가 나에게는 엄청나게 관능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었다. 삶의 온갖 형태를 모조리 나는 맛보고 싶었던 것일까 ; 물고기의 그것들도 식물의 그것들도 말이다. 모든 감각의 기쁨들 중에서도 나는 촉각의 기쁨들을 탐내었던 것이다.

가을에, 들판에서, 소나기에 둘러싸인 외딴 나무 한 그루 ; 그 단풍든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 깊숙이 젖어든 땅속에서 그 뿌리를 물이 오래오래 적셔 주고 있다는 생각을 나는 했었다.

그 나이 때 내 맨발은, 젖은 땅이나 웅덩이의 찰랑거리는 물과의,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진창과의 접촉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내가 그다지도 물을, 더구나 젖은 것들을, 좋아하던 까닭을 나는 알고 있다 ; 그것은 물이 공기보다는 더욱, 변덕스러운 제 온도들의 차이를 당장에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가을의 젖은 숨결을 나는 좋아했던 것이니…비 잦은 노르망디 땅이여.



라로크

냄새 물씬한 갈건이들을 싣고 짐수레들이 돌아왔다.

곳간이 꼴들로 가득 찼다.

비탈에 부딪고 바퀴 자국들에 덜커덕거리는 육중한 짐수레들 ; 너희는 나를 몇 번
이나 들에서 데려다 주었던가, 풀 말리는 투박한 사내들과 뒤섞여 건초더미 위에
누워 둑구는 나를!

아! 나는 언제 또다시 날가리 위에 누워 저녁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저녁이 오고 있었다 ; 다들 곳간에 당도했었다—마지막 햇살이 어정거리고 있던
농가 안마당에.

III

농장

농부여!

농부여! 당신의 농장을 노래하라.

나는 거기서 잠시 쉬면서—곳간 근처에서, 건초 냄새가 나에게 떠올려 줄 여름을
꿈꾸어 보고 싶다.

당신의 열쇠들을 집어 들고 ; 차례차례 ; 문 하나하나를 열어다오…

첫 문은 곳간 문이다…

아! 세월이 변덕 없이 꾸준한 것이라면!…아! 나는 왜 곳간 곁의 포근한 건초 속에
서 쉬고 있지 않지!…열정에 달떠 떠돌며 사막의 가뭄을 이겨 내려 들지 말고!…그

랬더라면 나는 갈진이꾼들의 노래나 들으며,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확물들이, 엄청난 비축 식량들이, 짓눌린 짐수레들에 실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마치 내 욕망의 물음들을 미리 기다리고 있는 대답들처럼 말이다. 그 욕망들을 채워 줄 것을 찾아 다시는 들판에도 가지 않을 테고 ; 여기서 천천히 욕망들을 배불리 먹여줄 텐데.

웃을 때가 있고—웃고 난 때도 있다.

웃을 때가 있다. 그렇다—그리고 나서 웃고 난 것을 떠올릴 때도 있다.

나타나엘, 저 같은 풀들이 살랑거리는 것을 바라보던 것은 틀림없이 나 자신이었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였단 말이야—잘린 것들이 다 그렇듯이, 지금은 시들어 건초 냄새를 풍기는 저 풀들이—살아 있는 것을, 초록색이다가 금빛이 되는 것을,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던 것은 바로 나였었던 말이야.—아! 잔디밭 가장자리에 누워 있던…우리의 사랑을, 깊숙이 우거진 풀이 반겨 주던 그때로 왜 되돌아갈 수 없단 말인가?

사냥감들이 나뭇잎들 아래를 줄지어 다니고 있었다 ; 그 오솔길들 하나하나가 가로수 길이었다 ; 그리고 내가 몸을 굽혀, 이 잎사귀 저 잎사귀, 이 꽃 저 꽃을 살피며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술한 곤충들이 눈에 띄었었다.

초록의 광채와 꽃들의 종류를 보고 나는 땅의 습도를 알아 보곤 했었다 ; 어떤 풀밭은 데이지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 한데 우리가 좋아해 우리 사랑에도 이용되던 그 잔디밭은 산형 꽃들로 온통 하얘져 있었다. 연한 색의 가냘픈 꽃들과, 큰 어수리꽃처럼 칙칙하고 엄청나게 벌어진 꽃들로. 그 꽃들이 저녁 무렵에는 더 깊숙해진 풀 속에서, 마치 솟는 안개에 쳐들려 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반짝이는 해파리들처럼, 등등 떠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둘째 문은 곡식 광 문이다.

날알더미들아, 나는 너를 찬양하겠다. 곡물들 ; 갈색 밀, 대기 중인 가별 ; 엄청난 비축.

우리의 빵이 동나면 어때! 곡식 광이여, 내가 네 열쇠를 갖고 있으니. 날알더미들아, 너희가 거기 있다. 너희는 내 허기가 지치기도 전에 다 먹히고 말 것인가? 들에는 하늘의 새 떼, 곡식 광들에는 쥐 떼 ; 그리고 우리 식탁에는 모든 가난뱅이 들…내 허기가 끝날 때까지 남아돌 게 있는가…

날알들아! 너희 중의 한 줌을 나는 간직한다 ; 그것을 내 기름진 밭에 씨 뿌린다 ; 좋은 계절에 씨 뿌린다 ; 한 알이 백 알을 낳고, 다른 한 알이 천 알을…

날알들아! 내 허기가 넘치는 곳에는 너희도 남아돌게 넘쳐 있겠지! 날알들아!

처음에는 쪘그만 연둣빛 풀처럼 짹트는 밀아, 노랗게 물드는 어떤 이삭을 네 휘어 진 줄기가 지탱하게 될지 말해 보렴!

금빛 밀짚, 도가머리며 다발들—내가 씨 뿌린 한 줌의 날알…



셋째 문은 우유 가공실 문이다 :

휴식! 고요 ; 치즈가 오므라드는 채들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방울 ; 쇠 대롱들 속에 서 다져지는 버터 덩어리들 ; 7월의 무더운 날들에는, 엉긴 우유 냄새가 더욱 시원하면서도 더욱 김빠진 것처럼 여겨졌었다…아니다, 김빠진 게 아니고, 쏘는 맛이 하도 은근하고 연해서 콧구멍 안에서만 느껴질 정도로, 이미 냄새라기보다는 차라리 맛이었었다.

더없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우유 휙젓는 기계. 양배추 잎사귀들 위에 놓인 잘다란 베터 뎅이들. 농부 아낙의 시뻘건 손. 늘 열려는 있어도 고양이나 파리가 못 들어 가게 쇠 그물 친 창문들.

크림이 다 떠오르기까지는 노상 더욱 노래지는 우유로 가득 찬 사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크림이 천천히 떠올라 평평해진다 ; 부풀어 올라 주름이 잡히고, 유장이 드러난다. 유장이 완전히 맹탕이 되면 걷어 내고…(하지만, 나타나엘, 이런 걸 너한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기막하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지 ; 그는 나한테 물건 저마다의 쓸모를 설명해 주고, 따라서 유장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더군.) (노르망디에서는 그걸 돼지 먹이로 주지만, 그보다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야.)



넷째 문은 외양간으로 통한다 :

외양간은 못 견디게 무덥지만 암소들 냄새는 구수하다. 아! 땀 배인 살 냄새도 구수하던 농부 아이들과 함께 암소들 다리 사이로 달리던 그때로 나는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 ; 우리는 꼴 시렁들 구석에서 달걀을 찾곤 했었지 ;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암소들을 눈여겨보기도 했지 ; 쇠똥 떨어져 터지는 것도 보며 ; 어느 놈이 맨 먼저 놀지 내기를 하기도 했으며, 하루는 한 놈이 갑자기 새끼를 낳을 것만 같았기에, 내가 질겁해 도망치기도 했다.



다섯째 문은 과일 광 문이다 :

햇볕 바른 창구명 앞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줄에 매달려 있다 ; 포도 알마다가 생각에 잠겨 익어 가면서 몰래 햇빛을 새김질하고 있다 ; 향기로운 당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배들. 수북한 사과더미. 과일들아! 너희들의 물 많은 살을 나는 먹었다. 씨들은 땅에 되던졌다 ; 그 씨들이 싹텄으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 주도록.

까다로운 편도 ; 불가사의의 약속 ; 씨 응어리 ; 기다리며 잠자는 작은 봄. 두 여름 사이의 씨앗 ; 여름을 난 씨앗.

나타나엘, 짹트는 괴로운 생각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씨앗을 뿜고 나오려는 풀의 노력이란 감탄할 만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수정마다에 관능의 기쁨이 따른다는 사실에만 감탄하기로 하자. 열매가 단맛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 그리고 생명에 대한 끈질긴 참을성은 즐거움에 둘러싸이고.

과일의 살, 사랑의 맛 좋은 증거.



여섯째 문은 압착실의 문이다 :

아! 나는 왜 지금—더위도 스러지는 헛간 아래서—네 곁에 누워 있지 않을까, 사과찌꺼기 틈에, 짜고 난 땊은 사과들 틈에 끼여서. 아! 술라미트! 그랬으면 우리는 애써 알아내려 들고 있을 테지, 우리 관능의 기쁨이 축축한 사과들 위에서는,—그 달콤한 향기에 힘입어 연장된 기쁨이, 덜 빨리 말라버리는지 어떤지를…

절구 소리가 내 옛 생각을 얼러서 재워 주고 있다.



일곱째 문은 중류실로 통한다 :

어슴푸레한 빛 ; 이글거리는 화덕 ; 엉큼한 기계들. 냄비들의 구릿빛이 드러나 보인다.

중류기 ; 소중히 모아진 그 신비로운 고름(나는 마찬가지로 송진을, 야생 벚나무의 병적인 고무진을, 끈적끈적한 무화과 젖을, 목 잘린 종려나무 술을, 받아 모으는 것도 본 일이 있다). 좁다란 술병 ; 도취의 물결이 온통 네 속에 몰려든다 ; 열매 속에 있던 달콤하고 힘찬 것 모두를 지닌 에센스 ; 꽃 속에 있던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을 지닌 에센스.

중류기 ; 아! 방울방울 스며 나려는 금빛 방울. (졸인 벼찌 진액보다도 더 맛난 방울들도 있다 ; 목장처럼 항내 나는 딴 방울들도.) 나타나엘! 이거야말로 기적 같은 눈요기다 ; 봄이 고스란히 여기에 엉겨든 것만 같군…아! 나의 도취가 이제는 그 봄을 연극처럼 떠벌려 펼쳐보라. 너무 어두워 이젠 나도 못 알아볼 이 방에 죽치고 앉아 마셔볼까—내가 바라는 그 딴 곳들의 온갖 환영을 내 몸에 되돌려 줄 것을 마셔 봐야지—또 내 정신도 해방시키게…



여덟째 문은 차고 문이다 :

아! 내 금잔을 나는 깨뜨렸다—나는 깨어난다. 도취란 아무래도 행복의 대용품일

따름이다. 마차들아! 모든 도망이 다 가능하다 : 썰매들아, 열어붙은 나라여, 나는 너희들에게 내 욕망들을 말 삼아 매단다.

나타나엘, 우리는 사물들 쪽으로 갈 것이다 ; 모든 것에 차례로 가 닿을 것이다.
내 안장 양옆 가죽 주머니에는 금이 들어 있다 ; 내 상자들에는 추위마저 좋아하게
만들 모피들이. 바퀴들아, 도망치는 너희의 회전을 누가 세기라도 할 것인가? 우
리의 환락을 위해 매어 달린 날렵한 집, 마차들아, 우리의 변덕에 끌려가라! 쟁기
들아, 우리 밭들 위에서 황소들에게 끌려 다녀라! 멧돼지 코처럼 땅을 파헤쳐라 :
쓰이지 않는 보습날이 헛간에서 녹슬고 있고, 그 온갖 연장들도…더없이 아름다운
고장들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어떤 욕망이 저한테 말 삼아 매달리기를 기다리며
어정거리는—우리 존재들의 게으른 가능성들아, 너희 모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속도가 일으킬 눈보라는 우리를 뒤따르라! 썰매들아! 내 온갖 욕망을, 나는
말 삼아 너희들에게 매다느니…



마지막 문은 들판으로 통해 있었다.

제 6 부

린세우스

Zum sehen geboren,
Zum schauen bestellt,
괴테 《파우스트》, 2

하느님의 계명들, 너희가 내 넋을 괴롭혀 왔다.
하느님의 계명들, 너희는 열인가 스물인가?
너희는 제 한계들을 어디까지 좁힐 것인가?
금지된 더 많은 일들이 늘 있다고 너희는 가르칠 것인가?
땅 위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게 될 모든 것에 대한 갈증에는 새로운 벌들이 언
약되어 있다고 가르치겠는가?
하느님의 계명들, 너희가 내 넋을 병들게 했다.
내 갈증을 풀어 줄 하나뿐인 물에다 너희는 담장을 둘러쳤다.

…그러나 나타나엘, 지금 내 마음은
사람들의 나약한 실수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느낌이다.



나타나엘, 만물이 다 거룩하도록 자연스러운 것임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타나엘,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말해 주마.

꼬마 양치기야, 쇠붙이 안 달린 지팡이를 네 손에 집혀 주마, 그래서 여태 어느 주
인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암양들을 우리가 모든 곳으로 천천히 인도해 주도록 하
자.

양치기야, 땅 위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 쪽으로 내가 네 욕망들을 인도해 주마.

나타나엘, 나는 네 입술을 새로운 갈증으로 불타게 하고는, 시원한 잔들을 갖다 대 주마. 나는 마셨다 ; 입술들이 갈증을 푸는 샘물들을 나는 알고 있다.

나타나엘, 샘물들 이야기를 너에게 해 주마 :

바위들 사이로 용솟음치는 샘물들이 있다 :

빙하들 밑에서 솟는 것들도 있다 ;

하도 시퍼레서 더욱 깊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시라쿠사에는 그 때문에 신기한 시아네 샘물.

하늘색 샘물 ; 감싸인 수반 ; 파피루스 사이로의 물의 탄생 ; 우리는 조각배에서 몸을 내밀었다 :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조약돌 위에 하늘색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자구양에서는 님프 샘에서, 옛날에 카르타고를 적셔 주던 물이 솟고 있다.

보클뤼즈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흘렀던 것처럼 푸짐한 물이 땅에서 솟는다 ; 그것은 이미 땅 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하나의 강물이다 ; 강물은 동굴들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 햇불 빛이 가물거리다가 숨 막히고 만다 ; 안 되겠어, 더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겠군, 하고 중얼거리게 될 만큼이나 캄캄한 곳도 있다.)

바위들을 호화롭게 물들여 주는 철분 섞인 샘물들도 있다.

초록색의 더운 물이 처음에는 독이 든 것처럼 보이는 유황질 샘물들도 있다 ; 하지만 나타나엘, 거기서 목욕을 하면 살갗이 하도 기막하게 부드러워지는 바람에, 나중에 만지기에도 사뭇 더 기분 좋아질 정도이지.

저녁에 안개가 날아오르는 샘들도 있다 ; 밤에는 주위를 감돌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가.

이끼와 골풀 사이에서 빛바랜 아주 단순한 작은 샘물들.

여자들이 빨래하러 오기도 하고, 물방아를 돌리기도 하는 샘물들.

무궁무진한 밑천! 물의 용솟음. 샘 밑의 푸짐한 물 ; 숨은 저수지들 ; 벌어진 물 항
아리들. 단단한 바위도 터질 것이다. 산이 소관목들로 뒤덮일 것이다 ; 메마른 고
장들이 흥겨워지고, 사막의 고통이 다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우리의 갈증을 풀고도 남을 샘물들이 용솟음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물들
; 되떨어지는 하늘의 수증기들.

들판에서 물이 모자라거든 들판은 산으로 마시러 가라—아니면 땅속의 물길들이
산의 물을 들판으로 날라다 주도록 하라.—그러나다의 놀라운 관개.—저수지들 :
님프의 사당들.—그렇다, 샘물들 속에는 보기 드문 미녀들이 있다—거기서 미역감
을 보기 드문 즐거움들이 있다. 수영장들! 수영장들! 우리는 깨끗해져서 너희들로
부터 나올 것이다.

흐르는 너희들 물속에서 우리는
지친 우리 팔다리를 씻겠다,
해가 새벽빛 속에서 그러듯이,
달이 밤이슬 속에서 그러듯이.

샘물들 속에는 보기 드문 미녀들이 있다 ; 그리고 땅 밑에서 스며 나오는 물속에
도. 그 물이 나중에는, 마치 수정을 깨뚫고 나오기라도 한 것만큼이나 맑아 보인다
; 그 물을 마시는 데는 보기 드문 즐거움들이 있다 ; 물은 공기처럼 해맑고, 마치
없기라도 한 것처럼 색깔이 없고 맛도 없다 ; 그 더할 나위 없는 시원함으로만 물
인 줄 알아 보게 마련이며, 그것은 물의 숨겨진 미덕과도 같은 것이다. 나타나엘,
사람이 물 마시기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너는 깨달았느냐?

내 감각들의 가장 큰 기쁨들 그건 바로 갈증을 풀어 주는 일이었다.

나타나엘, 이제는 풀린 내 갈증의 롱드를 너에게 말해 주마 :

풀린 내 갈증의
통 드

넘치는 술잔에 갖다 대려고 우리는 입술을

키스 때보다도 더 바짝 내밀었기에 ;
넘치는 술잔도, 너무 빨리 비어 버렸지.

내 감각들의 가장 큰 기쁨들
그건 바로 갈증을 풀어 주는 일이었으니…



쥐어짠 오렌지즙을 가지고
시트론, 레몬의 즙을 가지고
장만하는 음료들,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기에 마시면
시원해지는 음료들이 있다.

이빨들이 가 닿기도 전에
입에만 닿아도 깨어질 것만 같은
얄따란 잔들로도 나는 마신 적이 있다 ;
잔과 입술을 갈라놓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
그런 잔에서는 음료가 더 맛있는 것만 같다.
포도주가 자기 입술까지 올라가도록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눌러 대는

고무 같은 컵들로도 나는 마셔 보았다.

꾀약볕에 걸어온 그런 날들 저녁에는
주막의 투박한 잔들로 걸쭉한 시럽을 마시기도 했다;
또 때로는 물탱크의 아주 싸늘한 물이 나중에
저녁의 그림자를 한결 더 느끼게도 하였다.
타르 칠한 염소 가죽 냄새를 풍기는
가죽 부대에 간수된 물도 나는 마셔 보았다.

미역이라도 감고 싶은 시냇물 기슭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물을 마신 적도 있다.
하얀 조약돌들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흐르는 맑은 물 바닥까지 두 맨발을 잠그고…
그러면 냉기가 어깨로도 스며들곤 했었다.

양치기들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있었다;
밀짚으로 빼는 법을 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름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을 줄곧,
꾀약볕 아래를 걷던 날들도 있었다.
풀어 줄 수 있는 심한 갈증을 짐짓 찾아서.

그리고 생각나는가, 친구여, 우리가 그 끔찍한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 오지 항아리에서 언물을 마시려고 땀에 젖어 일어난 일이?

웅덩이들, 아낙네들이 물 길러 내려가는 숨은 우물들. 햇빛이라고는 본 적도 없는
물들; 그들의 맛. 바람이 매우 잘 통하는 물들.

별나게도 투명한 물, 그래서 더욱 차가워 보였으면 하고 내가 하늘색이기를 바라던, 아니 그보다도 초록색이기를—그리고 아니스 향미도 좀 나기를 바라던 물,

내 감각들의 가장 큰 기쁨들
그건 바로 갈증을 풀어 주는 일이었다.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다 세지 못했다, 하늘이 지닌 별들 모두를, 바다에 있는 진주들 모두를, 물굽이 언저리에 있는 하얀 날개들 모두를.
나뭇잎들의 속삭임들 모두도 ; 새벽빛의 미소들 모두도 ; 여름의 웃음들 모두도.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입이 다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도 쉬고 있는 줄 아는가?

오, 하늘빛에 미역 감는 밭들!
오, 꿀로 적셔진 밭들!

꿀벌들은 밀랍을 잔뜩 짚어지고 오겠지…
활대와 뜻들의 철망 뒤에 새벽이 숨어 있는 컴컴한 항구들을 나는 보았다 ; 아침에는 큰 기선들의 선체 사이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작은 배들의 출범. 팽팽한 닷줄들 밑을 지나가느라 몸들을 구부리는 것이었다.
밤에는 범선들이 수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으로, 낮 쪽으로 빠져들어 가며.



진주만큼 빛나지는 않는다 ; 물만큼 반짝거리지도 않는다 ; 그런데도 오솔길의 조약돌들은 빛나고 있다. 내가 걷던 나무 덮인 오솔길들에서 반겨 주던 그 다정한

빛.

그러나 나타나엘, 인광에 대해서는, 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모든 법칙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물질! 속속들이 투명한 물질이, 정신 앞에서는 한량없이 잔구 명투성이이니 말이야. 그 회교 도시의 성벽들이 저녁에는 시뻘게지고 밤에는 어슴 푸레 조명되는 것을 너는 못 보았어. 낮에는 줄곧 빛이 쏟아지던 깊숙한 성벽들 ; 한낮에는 금속처럼 하얀 성벽들(빛이 고스란히 거기에 쌓인다) ;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성벽들이 밤에 되풀이하며 가만가만 소근거리는 것만 같았었다.—도시들아, 언덕 위에서, 멀리서 바라본 너희는 투명해 보였어, 사방으로 둘러싸는 엄청난 밤 그림자 속에서 너희는 반짝거리고 있었지, 마치 신앙심의 상징인 그 웅푹한 흰 대리석 램프들처럼—잔구명투성이인 양 스며들어 도시를 가득 채우는 광명, 그 섬 광이 굽이 터져 우유처럼 주위에 스며 나오는 그 광명 때문에.

그늘진 길들의 하얀 조약돌들 ; 광명의 집합처 ; 광야의 저녁 어스름 속의 하얀 히 스나무들 ; 회교 사원들의 대리석 타일 ; 바다 동굴의 꽃들, 말미잘…하얀 것은 다 간수된 광명에서 오는 것이다.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모든 존재들을 판단하는 법을 나는 배워 알게 되었다 ; 낮에 햇빛을 맞아들일 줄 안 존재들은, 나중에 밤에도 광명의 세포들로 여겨졌다.—한낮에는 들판을 흐르던 물이, 멀리서는 불투명한 바위들 밑으로 스며들어, 거기 쌓인 금빛 보물들을 넘쳐흐르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나타나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물들에 대해서 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니다—왜냐하면

…저 근사한 해초들처럼, 물에서 꺼내면 빛이 바래고 마니까…
마찬가지로…등등.

—경치들이 감출 수 있는 행복의 온갖 형태들을, 명상이나 슬픔의 형태들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경치들의 무한한 다양성이 우리에게 노상 밝혀 보여 주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다, 어린 시절의 어떤 날들, 브르타뉴의 광야에서 내가 여전히 가끔은 슬프던 때에, 내 슬픔이 갑자기 나에게서 도망치는 수도 있었던 것을. 슬픔은 그토록 경치 속에 포함되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느껴졌었고—그래서 나는 그 슬픔을 눈앞에 기분 좋게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새로움.

그는 아주 간단한 무슨 일을 하고는, 이어서 말한다 :

그것이 일찍이 만들어진 적도, 생각된 적도, 말해진 적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그러자 갑자기 모두가 완전한 쳐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내계는 여겨졌다. (현재의 순간 속에 고스란히 흡수된 세계의 과거 모두).



7월 20일, 새벽 2시

일어남.—하느님은 가장 덜 기다리게 해야 할 분이다, 하고 나는 일어나면서 외치고 있었다 ;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역시, 이미 돌고 있는 생명을 보게 마련이다 ; 더 일찍 드러누운 생명이 우리보다는 덜 저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새벽들아, 너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즐거움이었었다.

여름날들의 새벽인 봄이여!

날마다의 봄인 새벽들아!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지…

…아침에 제대로 일찍 일어나지 않거나,
달을 보기에 필요할 만큼이나
저녁 늦도록 깨어 있지도 않으니…

잠.

여름에 나는 낮잠을 알게 되었다—한낮의 잠—너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을 마친 다음 ; 짓누르듯 펴붓는 잠.

2시.—잠든 아이들. 숨 막히는 침묵. 음악의 가능성, 그러나 짐짓 하지 않는다. 무명 커튼 냄새. 히아신스와 틀립. 속옷가지들.

5시.—땀에 젖어 깨어난다 ; 두근거리는 심장 ; 몸서리 ; 가쁜한 머리 ; 육신의 홀가분함 ; 모든 것이 너무나 기분 좋게 스며드는 것만 같은 잔구명투성이 육신. 낮은 해 ; 누런 잔디밭들 ; 하루의 끝 무렵에 피어나는 두 눈. 오, 저녁나절의 사색의 리큐르 술! 저녁에 펼쳐지는 꽃들. 미지근한 물로 이마를 씻다 ; 밖에 나가다…과수장들 ; 담장 둘러친 양지바른 정원 길 ; 방목장에서 돌아오는 동물들 ; 볼 필요도 없는 일몰—이미 충분한 감탄.

돌아오다. 램프 곁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다.



나타나엘, 잠자리들에 대해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짚더미들 위에서 잤다 ; 밀밭 고랑에서도 잤다 ; 양지바른 풀밭에서도 잤다 ; 밤에는 건초 저장소들에서도. 나뭇가지에 내 해먹을 매달곤 했었지 ; 나는 물결에 흔들리며 잔 적도 있다 ; 기선 갑판 위에 누워서 ; 아니면 얼빠진 현창 눈을 마주 보며 비좁은 간이침대들 위에서 ; 창녀들이 나를 기다리던 잠자리들도 있었다 ; 내가 소년들을 기다리던 다른 잠자리들도. 내 몸과 함께 사랑을 짜내는 것으로 여겨

질 만큼이나 부드러운 천이 깔린 잠자리들도 있었다. 캠프장에서 널빤지 위에 잔일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잠이 조난과도 같은 것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도 잤다, 동요하는 느낌을 잠시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나타나엘, 잠에 대한 훌륭한 준비들이 있다 ; 훌륭한 깨어남들도 있다 ; 그러나 훌륭한 잠은 없으며, 그래서 나는 꿈도 그것이 현실로 여겨지지 않는 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없이 아름다운 잠도

깨어나는 순간만은 못하니까.

나는 활짝 열린 내 창문 앞에서 자는 버릇이 들었다, 마치 하늘 바로 아래서라도 자듯이. 7월의 너무 더운 밤들에는 알몸으로 달빛 아래서 자기도 했다 ; 새벽이 되자 티티새들 노래에 잠이 깨곤 했다 ; 나는 차가운 물에 온몸을 담그곤 했는데, 나의 하루가 매우 일찍 시작되는 것을 나는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주라 산속에서는 내 창문이 골짜기 위에 열려 있었고, 골짜기는 이내 눈에 파묻히고 말았다 ; 내 침대에서 숲 기슭이 보였었다 ; 까마귀나 갈까마귀가 거기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 가축 떼의 방울 소리에 나는 아침 일찍 잠이 깨곤 했다 ; 내 집 근처에는 샘물이 있어 소몰이들이 물을 먹이려 가축 떼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브르타뉴의 주막집들에서는 뻣뻣한 시트와 냄새 구수한 세탁물의 촉감을 좋아했었다. 벨릴에서는 뱃사람들 노래에 잠이 깨곤 했다 ; 나는 창가로 달려가 멀어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 이어서 나는 바다 쪽으로 내려가곤 했다.

훌륭한 주택들이 있다 ; 그 어느 주택에서도 나는 오래 머무르고 싶지는 않았다. 다시 닫히고 말 문들, 그 함정들이 두려워서다. 정신을 가두고 다시 닫혀지는 감방들. 떠돌이 생활은 양치기들의 생활이다.—(나타나엘, 네 손에 내 지팡이를 잡혀 줄 테니 이번에는 네가 내 양 떼를 지키도록 하라. 나는 지쳤다. 이젠 네가 떠나야지 ; 어느 고장이나 다 활짝 열려 있고, 결코 물릴 줄 모르는 양 떼는 노상 새 먹이를 찾아 매애매애 울어 댄다.)

나타나엘, 때로는 별난 거처들이 나를 불들기도 했다. 그것은 숲 한복판에 있었다

; 물가에도 있었다 ; 널따란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으레 벼룻대로 그것들에 주목 하기를 그만두자마자, 창문들이 대 주는 것에 끌려 거처에는 놀라지 않게 되자마자, 그래서 생각하려 들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그 거처를 떠나곤 했던 것이다.

(나타나엘, 새로운 것을 찾는 이 극성맞은 욕망을 나는 너에게 설명할 수가 없구나 ; 그 욕망이 무엇이건 건드려 망가뜨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 다만 갑작스러운 내 감각이 애초부터 하도 알차서 나중에 아무리 되풀이해 주어도 늘어나지 않을 정도 였던 것이다 ; 따라서 내가 같은 도시나 같은 장소에 자주 되돌아가는 수가 있었던 것도 거기서, 눈에 익은 모습으로는 더욱 뚜렷해지는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느껴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 또 내가 알제에 살 때 저녁마다를 같은 무어식 작은 카페에서 보낸 것도, 저녁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마다의 미묘한 변화를 분간하기 위해서였고, 똑같은 작은 공간을 시간이 서서히 바꿔 놓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로마에서는 핀치오 언덕 근처의 길거리와 같은 높이의 내 창문으로, 감옥의 창문처럼 쇠창살 달린 내 창문으로, 꽃 파는 여자들이 와서 장미꽃을 나더러 사 달라고 조르곤 했었다 : 덕분에 공기가 온통 향기로워지는 것이었다. 피렌체에서는 내 테이블에 앉은 채 범람한 누런 아르노 강을 볼 수 있었다. 비스크라의 테라스 위로는 메리엠이, 밤의 아득한 고요 속에 달빛을 이고 찾아오곤 했었다. 그녀는 온몸을 감싸 주던 하얀 천의 찢어진 커다란 하이크를 유리문에 들어서 떨어뜨리곤 했었다 ; 내 방에서는 맛난 과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다에서는 내 방의 벽난로 위에 촛대 대신 수박 두 덩이가 놓여 있었다. 세빌리아에는 파티오들이 있다 ; 그것은 그늘과 시원한 물로 가득 찬 흰 대리석 안뜰들이다 ; 철철 흘러가다가 끊 한복판의 연못에서 찰랑찰랑 소리를 내는 물로.

북녘 바람에는 두껍고 남녘 빛에는 잔구멍투성이인 벽 ; 바퀴로 굴러 떠돌아다니면서, 남녘의 온갖 혜택들에는 투명한 집…나타나엘, 하나의 방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는가? 하나의 정치 속의 한 피난처가 아니고.



창문들 이야기를 너에게 더 해 주마 ; 나폴리에서는 발코니 위에서의 잡담들과, 저녁에 여인들의 연한 색깔 드레스 곁에서 빠져드는 몽상들 ; 반쯤 처진 커튼들이 우리를 떠들썩한 무도회 패거리로부터 따돌려 주고 있었다.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난처해 질 만큼이나 세련된 것이어서 나중 얼마 동안은 다들 말도 않고 가만있을 정도였다 ; 이어 정원으로부터 오렌지나무들의 견디기 힘든 꽃 냄새와, 여름밤 새들의 노래가 솟아올랐다 ; 그러고는 바로 그 새들마저도 이따금씩 입을 다물곤 했다 ; 그럴 때는 파도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발코니들 ; 등나무 바구니와 장미 바구니 ; 저녁나절의 휴식 ; 포근함.

(오늘 저녁에는 한심한 비바람이 흐느끼며 내 유리창에 부딪혀 철철 흘러내린다 ; 이 비바람을 무엇보다도 좋아해 보려고 나는 애쓰고 있다.)



나타나엘, 도시들 이야기를 너에게 해 주마 :

스미르나가 마치 잠자리에 눕혀진 소녀처럼 잠자는 것을 나는 보았다 ; 미역 감는 탕녀와도 같은 나폴리와, 새벽이 다가오면 양 볼이 빨개지던 카빌리아 양치기와도 같은 자구양. 알제는 양지에서는 사랑에 떨고 어둠 속에서는 사랑에 까무러친다. 북녘 나라에서는 달빛 아래 잠든 마을들을 보았다 ; 집집의 벽들은 번갈아 파랑과 노랑 칠이었다 ; 그 둘레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 밭들에는 건초더미들이 흩어져 있었고. 인적 없는 벌판으로 나갔다가 잠든 마을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도시들도 갖가지다 ; 누가 저런 곳에 저런 도시들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수도 있다.—오! 근동의 도시들, 남쪽 나라의 도시들 ; 지붕들이 납작한 도시들, 밤이면 들뜬 여인들이 꿈꾸러 오는 하얀 테라스들. 쾌락들 ; 사랑의 축제들 ; 이웃

언덕들에서 굽어볼 때는 어둠 속의 인광처럼 보이는 광장의 가로등들.

근동의 도시들! 불타오르는 축제 ; 그곳에서 거룩한 길들이라 불리는 길들에서는, 카페들이 창녀들로 득실거리고, 너무나 날카로운 음악이 그녀들을 춤추게 한다. 하얀 옷차림의 아랍인들이 거기서 맴돌고, 또 아이들도—글쎄? 벌써 사랑을 알기에는 사뭇 어려 보이던 아이들도. (어미 새 품에 안긴 새끼들보다도 더 뜨거운 입술의 아이들도 있었다.)

북녘 나라의 도시들! 선창들 ; 공장들 ; 연기로 하늘이 가려진 도시들. 기념 건조물들 ; 활기찬 탑들 ; 개선문들의 거드름. 한길의 기마행렬들 ; 불비는 군중. 비 온 뒤에 번쩍이는 아스팔트 ; 마로니에가 시들어 가는 거리 ; 노상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들. 나른한 밤들이 있었다. 하도 나른해서 누가 부르기만 해도 내가 금방 까무러치는 기분이었을 그런 밤들이.

11시.—가게 문 닫기 ; 쇠 몇문들의 새된 소리. 주택 단지들. 밤에 쓸쓸한 길거리를 내가 지나갈 때는, 쥐 떼가 아주 재빨리 하수도로 되돌아가곤 했었다. 반 벌거숭이 남자들이 빵을 굽고 있는 것이 지하실들 환기창으로 보이기도 했었다.



—오, 카페들!—우리의 미친 짓거리가 밤이 이슥하도록 계속된 곳 ; 술과 수다의 취기가 마침내 잠을 이겨 냈었다. 카페들! 그림과 거울들로 가득 차고 호화스러워, 매우 고상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던 카페들이 있었다 ; 익살맞은 노래들을 불러대고, 여자들이 춤추려고 스커트를 바짝 치켜 올리던, 다른 작은 카페들도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 저녁나절에 광장으로 넘쳐 나오던 카페들이 있었고, 거기서는 맛좋은 레몬 아이스크림을 먹었었다. 알제리에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암살당할 뻔했다 ; 이듬해에 가보니 경찰에 폐쇄당해 있었다 ; 거기에는 수상한 자들밖에 드나들지 않았으니까.

또다시 카페들…오! 무어식 카페들!—거기서는 이따금씩 이야기꾼 시인이 긴 이야기를 한다 ;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걸 들으러 그곳에 몇 밤이나 갔던가!…하지만 정말이지,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침묵과 석양의 보금자리인 너, 오아시스 끝의 흙 오두막집, 밥 엘 데르브의 작은 카페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사막이 온통 시작되고 있었으니까—거기서는 한결 숨 가쁜 하루를 보낸 뒤에 한결 더 평화로운 밤이 내리는 것을 나는 바라보곤 했었다. 내 곁에서는 단조로운 피리 가락이 넋을 잃고 있었다.—또 나는 하피즈가 칭찬하던 카페, 쉬라즈의 작은 카페, 너를 생각한다 ; 장미꽃들이 넘실거리던 테라스에서 보이가 따라주는 포도주에 취하고 사랑에 취해 잠자코 있던 하피즈, 잠든 보이 곁에서 시를 지으며 날이 새기를 밤새껏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피즈.

(시인이 부를 노래가 그저 모든 것들을 열거하는 일뿐이던 그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싶다. 그랬으면 내 감탄이 그 하나하나에 차례로 쏠렸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칭찬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었을 텐데 ;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이유가 되었을 텐데.)



나타나엘, 우리는 아직도 나뭇잎들을 함께 본 적이 없다. 나뭇잎의 모든 곡선들을 말이다…

나뭇잎 가지들 ; 빠져나갈 구멍투성이인 초록빛 동굴들 ; 산들바람에도 자리가 곧 잘 바뀌는 배경들 ; 영토 지배권 ; 형상들의 소용돌이 ; 우툴두툴한 칸막이들 ; 나긋나긋한 가지들의 뼈대 ; 나무랄 데 없는 균형 ; 얇은 잎 조각들과 잔구멍들… 제멋대로 흔들리는 가지들…그 까닭은, 잔가지들의 탄력이 갖가지여서 바람에 대한 저항력도 갖가지고, 바람에서 받는 충격 또한 갖가지이기…등등 때문이다.—다른 이야기로 넘어 가자…무슨 이야기로?—얼개 따위는 아예 없었으니 여기서 딱

히 선택할 것도 없지 않은가…비어 있는 손! 나타나엘, 무엇이건 잡을 수 있게 늘 비어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감각들의 느닷없고도 동시적인 긴장에 의해, (말하기도 힘들지만) 자신의 생명감 자체를 모든 외부 접촉의 집중된 느낌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아니면 그 반대로라도).—나는 여기 있다 ; 바로 여기서 이 구멍을 차지하고 있고, 이 구멍에는 온갖 것들이 속속들이 끼어들고 있으니 :

내 귀에는 ; 이 끊임없는 물소리 ; 이 소나무들 사이에서 커졌다가 잔잔해졌다가 하는 이 바람 소리 ; 들리다 말다 하는 메뚜기들 소리, 등등이.

내 눈에는 ; 시냇물에 반짝이는 이 눈부신 햇빛 ; 소나무들의 움직임…(저런, 다람 쥐 한 마리가)…이 이끼 속에 구멍 하나를 파고 있는 내 발의 움직임, 등등이.

내 살에는 ; 이 습기의 (느낌) ; 이끼의 이 물렁물렁한 느낌 ; (아! 어느 가지가 나를 찌르지?) 내 손에 닿은 내 이마의 느낌 ; 내 이마 위의 내 손의 느낌, 등등이.

내 콧구멍에는 : …(쉿! 다람쥐가 다가온다), 등등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등등, 작은 한 무더기가 되어 ; —이게 바로 삶이다 ; —이게 모두인가?—아니다! 다른 것들이 언제나 더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느낌들의 집합소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내 삶이란 언제나, 이것 더하기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이야기는 다음번에 너에게 해 주마. 오늘은 너에게 더는 말해 주지 않겠다.

정신의 갖가지 형태들의
롱드도

가장 좋은 친구들의
롱드도

모든 만남의
발라드도

다만 이 발라드에는 이런 구절들이 들어 있었다 :

코모에서는, 레코에서는, 포도알들이 무르익어 있었다 ; 옛 성들이 허물어져 있는 엄청난 언덕 위에 나는 올라가곤 했다. 거기서는 포도 냄새가 하도 달콤해서 오히려 거북할 지경이었었다 ; 그 냄새가 마치 맛처럼 콧구멍 깊숙이 스며들어 나중에 먹어 봐도 이렇다 할 아무런 새 맛도 이미 없었다—그러나 내가 하도 목마르고 허기졌던 나머지 몇 송이만으로도 춰하기에는 죽했었다.

…한데 이 발라드에서 나는 특히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 말했으며, 지금 내가 이 발라드를 너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책에서는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너도 알아차렸을 테니까. 심지어는 나도 여기서는 환영일 따름이다. 나타나엘, 나는 그 탑지기 린세우스인 것이다. 밤이 꽤 오래 계속된 뒤였다. 탑 꼭대기에서 나는 너희를 향해 그토록 부르짖었었다. 새벽들아! 아무리 밝아도 결코 지나치게 눈부시지 않은 새벽들아! 하고.

새로운 빛에 대한 기대를 나는 밤이 새도록 간직했다 ; 지금도 여태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기대하고 있다 ; 어느 쪽에서 동이 틀지를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온 군중이 채비를 하고 있다 ; 거리의 웅성거림이 탑 위에서도 들린다. 낮이 태어나고 말 것이다! 축제 기분인 군중이 이미 해를 마중하러 걸어 가고 있는 것이다.

—파수꾼이여, 밤은 어떤가? 말해 봐, 밤은 어떤가?

—올라오는 한 세대가 보이고, 또 내려가는 한 세대가 보인다. 완전무장하고 올라오는, 삶을 향한 기쁨으로 완전무장하고 올라오는 엄청난 한 세대가 보인다.

탑 위에서는 뭐가 보이는가? 내 형제, 린세우스여, 뭐가 보이는가?

아! 아! 다른 예언자는 울게 두라 ; 밤이 오고 낮 또한 오니.

그들의 밤이 오고, 우리의 낮도 온다. 자고 싶은 사람은 자라. 린세우스여! 이젠 당신의 탑에서 내려오라. 낮이 태어나고 있으니. 들판으로 내려가라. 사물마다를 더욱 가까이서 자세히 눈여겨보라. 린세우스, 이리 오라! 다가오라. 이젠 날이 밝았고, 우리는 낮을 믿고 있다.

제 7 부

Quid tum si fuscus Amyntas,
베르길리우스.

향해.

1895년 2월.

마르세유 출범.

사나운 바람 ; 눈부신 공기. 철 이른 따스함 ; 흔들거리는 둑대들.
깃털로 치장된 찬란한 바다. 물결에 망신당하는 배. 지배적인 영광의 인상. 지나간
모든 출발들이 떠오른다.

향해.

그 몇 번이나 나는 새벽을 기다렸던가…

…낙담한 바다 위에서…

그리고 나는 새벽이 오는 것을 보았다…바다는 그래도 잔잔해지지 않은 채.
관자놀이에 송송한 땀. 무기력. 될 대로 되라는 심정.

바다 위의 밤.

사정없는 바다. 갑판을 씻어 내리는 파도. 발을 굴러 대는 스크루…

오! 진땀 나는 조바심!

터질 듯한 내 머리 밑의 베개…

오늘 저녁 갑판 위의 달은 보름달이어서 눈부셨지만—나는 달을 보려 거기 가 있
지는 않았다.

—물결을 기다리기.—느닷없이 부서지는 물더미 ; 숨막힘 ; 다시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 자아 무력증 ; 저 속에서 나는 무엇일까?—하나의 코르크 병마
개—물결 위에 뜬 시시한 병마개일 따름.

망각의 파도에 내맡기기 ; 체념의 즐거움 ; 하나의 물건이 되어 보기.

밤의 끝 무렵.

너무 시원한 아침, 양동이들로 길어 올린 바닷물로 갑판을 씻고들 있다 ; 환기.—나무 바닥을 미는 솔들 소리가 내 선실에서도 들린다. 엄청난 쇼크.—현창을 열고 싶었다. 땀 배인 이마와 관자놀이에 확 끼치는 바닷바람의 너무 세찬 입김. 현창을 다시 닫고 싶어졌다…간이침대 ; 다시 드러눕다. 아! 항구에 닿기 전의 이 온갖 끔찍한 뒤죽박죽! 하얀 선실 칸막이벽에 반사하는 그림자들의 퍼레이드. 옹색함.

무엇을 보기에도 지친 내 눈…

밀짚 빨대로 나는 이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빨고 있고…

그러다가 새로운 땅에서 깨어나기, 마치 병자가 회복기에서 깨어나듯—꿈에도 보지 못하던 것들



알제

아침에 어느 바닷가에서 깨어나기 ;
밤새껏 파도에 흔들리고 나서.

언덕들이 와서 쉬는 고원들 ;
낮들이 까무러치는 석양 무렵 ;
배들이 몰려드는 해변들 :

우리의 사랑이 잠자리 오는 밤들…
밤은 널따란 정박지처럼 우리 쪽으로 오겠지 ;
밝은 낮의 생각들이, 햇살들이,
우울한 새들이 거기 쉬러 오겠지 ;
모든 그림자 조용해지는 잡목 숲들 속으로…
목장의 잔잔한 물도, 풀 우거진 샘물들도.
그리고는, 긴 여행들에서 돌아올 때.
잔잔해진 물가들,—선장에 배들.
떠돌이 새와 정박한 배가 잠드는 것을
우리는 보겠지, 가라앉은 물결 위에서—
우리 곁에 온 저녁이 침묵과 우정의
그 널따란 정박지를 펼치는 것도.
—이젠 모두가 잠들 때다.—

1895년 3월

사헬의 꽃! 블리다여! 겨울에는 멋없이 시들었던 네가 봄에는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그것은 비 오는 아침이었다 ; 정답고 서글프며 무심한 하늘 ; 꽂핀 네 나무들의 향기가 네 긴 가로수 길들에 감돌고 있었다. 조용한 네 연못의 분수 ; 멀리서는 병영들의 나팔 소리.

여기 또 다른 정원이 있다, 하얀 회교 사원이 올리브나무들 그늘에서 은은히 번쩍이고 있는 벼려진 숲이.—거룩한 수풀! 지칠 대로 지친 내 생각과, 사랑의 불안으로 맥 빠진 내 육신이,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쉬고 있다. 덩굴나무들 아, 지난겨울에는 너희를 보고도, 이토록 희한하게 꽂필 줄은 짐작도 못했었다. 살랑거리는 가지들 사이의 보라색 등꽃들, 줄향으로처럼 기울어진 꽃 송아리들이며, 길의 금빛 모래 위에 떨어진 꽃잎들. 물소리 ; 연못가의 젖은 소리며 찰랑거리는 소리들 ; 거인 같은 올리브나무들, 하얀 조팝나무들, 라일락 숲들, 가시덤불, 장미 숲들 ; 이곳에

혼자 와서 지난겨울을 떠올리면, 하도 고단하게 느껴져 봄마저 딱하게도!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을 정도다 ;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은 엄격을 바라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토록 넘쳐나는 멋이 딱하게도! 외톨이를 반기고 웃어 대며, 욕망들로만, 아양 떠는 행렬들로만, 텅 빈 가로수 길들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조용한 이 연못의 물소리가 들리는데도, 주위의 주의 깊은 고요는, 여기 없는 것들을 너무나 사무치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내 눈꺼풀을 식히리 갈 샘물을 나는 알고 있다,
그 거룩한 수풀을 ; 나는 길을 알고 있다,
나뭇잎들을, 그 시원한 숲 속의 빈터를 ;
저녁에 나는 가겠다. 모두가 거기서 입 다물 줄 알 때,
그리고 어루만져 주는 공기가 벌써 우리를
사랑보다는 잠으로 이끌어 줄 때.
밤이 고스란히 내려앉게 될 차가운 샘물.
희붐한 새벽빛에 떠는 아침이 비쳐 보이게 될
얼음 같은 물. 순결의 샘물.
내가 새벽빛 속에서 아직은 놀라며 광명과 사물들을
보곤 하던 그 무렵에 새벽빛이 지니고 있던 그 맛을
나는 곧 되찾게 되지 않겠는가?
새벽빛이 나타날 때 그 새벽빛 속에서…
내가 새벽빛 속에 뜨거운 내 눈꺼풀을 씻으러 갈 때에.

나타나엘 앞 편지.

나타나엘, 너는 상상도 못 해, 퍼붓는 이 빛이 끝내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 그리고 끈질기게 오래 끄는 이 더위가 주는 관능의 흥분이 어떻게 될지도…하늘에 솟은 올리브나무 가지 하나 ; 언덕들 위의 하늘 ; 어느 카페 문간의 피리 소리…알 제가 하도 덥고 온통 축제판인 것만 같아 나는 사흘쯤 거기를 떠나 있고 싶었어 ; 그러나 내가 피신해 있던 블리다에서도 내가 발견한 것은 꽃이 만발한 오렌지나무 들이었지 뭔가…

아침만 되면 나는 밖으로 나가지 ; 산책을 하려 ; 내가 아무것도 눈여겨보지 않는 데도 다 보이거든 ;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 감동들의 신기한 심포니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 절로 엮어져 나간단 말이야. 시간은 가고 ; 내 감동은 느려지지, 마치 수직에서 기운 해가 걸음도 느려지듯이. 이어서 나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내가 반할 만한 것을 택하지,—한데 나는 그게 움직이는 것이기를 바라거든, 왜냐하면 내 감동도 고정되기만 하면 이미 생기를 잃고 마니까. 그럴 때는 새로운 순간마다 여태 아무것도 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도망치는 것들을 정신없이 뒤쫓고 있는 셈이지. 어제만 해도 나는 블리다를 굽어 보는 언덕들 위를 뛰어다녔어, 해를 좀 더 오래 보려고 ; 해가 지는 것과, 타오르는 구름 떼가 하얀 테라스들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려고 말이야. 나무 그늘과 그 침묵을 기습하기도 하고 ; 달빛 속을 어슬렁거리기도 하지 ; 나는 헤엄치고 있는 느낌이기가 일쑤인데, 빛나고 더운 공기가 그토록 이나 나를 감싸며 가만가만 들어 올리는 거야.
…나는 믿고 있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바로 내 길이고, 또 이 길을 나는 벼짓이 따라가고 있다고. 선서만 했더라도 신앙이라고 불릴지도 모를 그런 대단한 믿음의 습관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 것일세.

비스크라

여자들이 문 앞에서들 기다리고 있었다 ; 그녀들 뒤로는 곧은 충계 하나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들은 거기 문 앞에 점잖게들 앉아 있었다. 우상처럼 분칠을 하

고 돈으로 만든 관들을 쓰고. 밤이 되면 그 길은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충계들 꼭 대기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 여자는 저마다 충계의 공간이 만드는 그 빛의 골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 그 얼굴은 반짝이는 관의 금빛 그늘에 머물러 있었다 ; 그리고 저마다 나를, 특히 나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 올라갈 사람은 금화 하나를 관에다 덧붙이는 것이었다 ; 창녀는 지나가면서 등불들을 끄고 ; 그녀의 비좁은 방으로들 들어가서는 ; 작은 잔들에 든 커피를 마시고 ; 이어서 낮은 긴 의자 비슷한 것들 위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었다.



비스크라의 정원들

아트망, 자네는 나한테 써 보냈었지 : “당신을 기다리는 종려나무 그늘에서 저는 기축 폐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봄이 나뭇가지를 사이에 와 있을 겁니다 ; 우리는 산책을 같이 할 거고, 골치 아픈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게 될 테니까요...”

—아트망, 종려나무 그늘에서 염소를 지키는 자네는 이제, 나를 기다리며 봄이 오지 않았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될걸세. 내가 왔으니까 ; 봄이 나뭇가지를 사이에 나타났고 ; 우리는 같이 산책을 하고, 골치 아픈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게 되었으니.

비스크라의 정원들

오늘은 잿빛 하늘 ; 향기로운 미모사들. 습기 많은 온기. 마치 공중에서 생겨나듯이 떠도는 굵직하거나 묵직한 빗방울들. 그것들이 나뭇잎들에 앉아 뒤덮다가는 느닷없이 굴러떨어진다.

…어느 여름의 비 생각이 난다 ; 하지만 그것도 역시 비였던가?—그 초록과 장미색 햇살 퍼진 종려나무 정원에, 그 미지근한 빗방울이 하도 굵직하고 묵직하게 떨

어지는 바람에, 잎사귀와 꽃과 가지들이 마치 사랑의 선물인 꽂다발이 흐트러지듯 물 위에 듬뿍 떨어졌다. 시냇물들이 꽃가루를 먼 데서 수정시키려고 실어 가고 있었다 ; 그 물이 누렇게 흐려져 있었다. 연못들에서는 물고기들이 까무러치고. 수면에서는 잉어들 입 벌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비 오기 전에는 헐떡이던 한낮의 바람이 땅속 아주 깊숙이 화상을 입혀 놓았고, 그래서 가로수 길들은 지금 가지들 아래로 무럭무럭 나는 김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 미모사나 무들은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벤치들을 감싸 주려는 듯이.—그것은 환락의 정원이었다 ; 양털 옷을 입은 남자들과 줄무늬 하이크 차림의 여자들이, 습기가 몸에 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들 있었으나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진 뒤여서, 저마다가 소나기 빗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여름에 잠시 들르는 빗물에 옷 천이 무겁게 적셔지고 내놓은 살이 씻겨지도록 내맡기고.—축축한 공기와 육중한 잎사귀들이 하도 대단해 나도 그들 곁의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랑에는 거역할 힘도 없이.—그러다가 비가 지나가고 가지들만이 흠뻑 젖어 있게 되자, 저마다가 신발이나 샌들을 벗고는 맨발로 그 젖은 땅을, 육감적일 만큼이나 부드러운 땅을 밟아 보는 것이었다.



아무도 거닐지 않는 정원에 들어가다 ; 하얀 모직 옷을 입은 두 소년이 나를 안내해 준다. 안쪽에 문 하나가 열려 있는 아주 깊숙한 정원. 더욱 큰 나무들 ; 더욱 낮은 하늘이 나무들에 매달려 있다.—담장들.—비를 온통 맞고 있는 마을들.—그리고 저기에는 산들 ; 생겨나고 있는 개울들 ; 나무들의 양분 ; 심각하고도 맥 빠지는 정밭이 ; 떠도는 향기들.

뒤덮인 개울들 ; 물 흐름이 거기서는 느리기 때문에 '세 기아스'라고들 부르는—수로들(잎사귀와 꽃들의 뒤범벅).

위험한 매력들을 지닌 가프사의 수영장 ; —Nocet can-tantibus umbra(밤이 애인들에게는 위험하다). 밤이 지금은 구름도 없이 아득해 안개도 별로 없다. (아랍인들 식으로 흰 모직 옷을 입은 아주 잘생긴 소년은 이름이, 애인이라는 뜻의 ‘아주’였었다. 또 하나는 장미의 계절에 태어났다는 뜻의 ‘와르디’였었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적셔 준,
공기처럼 따스하던 물…

어둠 속에서는 뚜렷해 보이지도 않던 물—달빛이 하얗게 비춰 주기 전까지는. 그 물은 나뭇잎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만 같았으며, 밤 짐승들이 거기서 우글거렸다.



비스크라—아침에.
새벽부터, 밖으로 나가자—솟아오르자,—아주 새로워진 공기 속에서.
협죽도 가지 하나가 몸서리치는 아침 공기 속에서 떨고 있겠지.

비스크라—저녁에.

그 나무에는 노래하는 새들이 있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다. 아! 새가 어쩌면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우렁차게. 마치 나무 자체가 아우성을—제 잎사귀들 모두로 아우성을 치는 것만 같았다.—새는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생각했었다 ; 새들은 곧 죽을 거다 ; 저건 너무 강한 열정이다 ; 한데 오늘 저녁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 새들은 밤이 가면 새 아침이 다시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영영 잡들어 버릴까 봐 무서워서인가? 하루저

녁에 사랑으로 녹초가 되고 싶다는 걸까? 마치 앞으로는 저희가 끝없는 밤에서만 살아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늦봄의 짧은 밤!—아! 여름날 새벽이 새들을 다시 깨워 주는 기쁨, 그것은 하도 대단한 기쁨이어서 잠에 대한 기억도 바로, 죽을 두려움이 다음 날 저녁에는 좀 줄어들 만큼밖에 나지 않을 정도다.

비스크라—밤

조용한 잡목 숲들 ; 한데 주위의 사막은 메뚜기들의 사랑의 노래로 설레고 있다.



셋트마

길어지는 낮들.—저기에 드러눕자. 무화과나무 잎들이 다시 넓어졌다 ; 잎을 비빈 손에서도 향기가 난다 ; 그 줄기는 젖을 눈물처럼 흘린다.

다시 심해지는 더위.—아! 네 염소 떼가 저기 오는구나 ; 내가 사랑하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 이리로 올 것인가? 아니면 다가가게 될 것이 바로 나인가?

느린 시간들.—말라 버린 작년의 석류 하나가 아직도 가지에 매달려 있다 ; 온통 터져서 말라붙어 버렸다 ; 바로 그 가지에 벌써 새로운 꽃망울들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맷비둘기들이 종려나무들 사이로 지나간다. 꿀벌들이 목장에서 부산하게 일하고 있다.

(예쁜 여자들이 내려가던, 랑피다 근처의 우물 생각이 난다 ; 멀지 않은 곳에 잿빛과 장밋빛 섞인 엄청난 바위 하나 ; 그 꼭대기는 꿀벌투성이라는 말을 들었다 ; 정 말이지 숱한 꿀벌 떼가 윙윙거리고 있다 ; 벌집들은 바위 속에 있다. 여름이 오면 더위에 터진 벌집에서 새어나온 꿀이 바위를 따라 흘러내린다 ; 랑피다 사람들이 와서 담아 간다.)—목동아, 이리 온!—(나는 무화과 잎사귀 하나를 씹는다.)

여름! 녹아서 새어 나오는 금 ; 푸짐함 ; 불어나 눈부신 빛 ; 가없이 넘쳐흐르는 사

랑! 누가 꿀을 맛보고 싶은가? 밀랍방들이 녹아내렸으니.

그날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외양간으로 데리고 돌아오던 암양 폐였다. 종종 걸음치는 그 찍그만 발들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소리가 났었다 ; 해는 사막에서 져가고, 암양들은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오아시스들! 그것들이 섬들처럼 사막에 떠있었다 ; 푸르른 종려나무들이 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샘물이 있음을 멀리서부터 알려 주고 있었다 ; 때로는 샘물이 푸짐해 협죽도 나무들이 그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그날 10시 무렵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더 멀리 가기를 처음에는 거절했다 ; 이 동산의 꽃들의 매력이 대단해 떠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오아시스들! (다음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아메트가 나에게 말했다.)



오아시스들. 꽃들과 졸졸거리는 소리로 더욱 가득 찬 다음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더욱 큰 나무들이 더욱 푸짐한 물 위에 늘어져 있었다. 오정 때였다. 우리는 미역을 감았다.—그러고는 그 오아시스도 역시 떠나가야만 했다.



오아시스들.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것은 사뭇 더 아름다워 우리는 거기서 저녁을 기다렸다.

동산들아! 저녁 전의 너희의 그 아득한 고요가 어떠했던가를 나는 그래도 되풀이 해 말하겠다. 동산들! 몸이 씻겨지는 것처럼 여겨질 그런 동산도 있었다 ; 살구가 익어 가는 단조로운 과수원에 불과한 것 같은 동산도 있었다 ; 또 꽃과 꿀벌들

로 가득 찬 다른 동산들에서는, 하도 세게 감도는 향기가 무슨 음식 구실이라도 한 듯, 리큐르를 마신 만큼이나 우리가 취하기도 했다.

이튿날 나는 이미 사막밖엔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우마크

바위와 모래 속에 그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불볕 찌는 오정 때에 우리가 들어가니, 별이 하도 뜨거워 기진맥진한 마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을 정도였다. 종려나무들도 몸을 통 구부리지 않았다. 노인들이 문 앞에서 지껄이고 있었다 ; 남자들은 졸고 있었다 ;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 여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흙으로 된 그 마을의 낮에는 분홍색이고 석양에는 보랏빛인 길들 ; 한낮에는 인적 없는 너희도 저녁에는 활기를 띠게 되겠지 ; 그때에는 카페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오고, 노인들은 문간에서 여전히 지껄이고, 햇살은 지쳐서 졸고, 테라스에 올라가 베일을 벗고 꽃처럼 피어난 여자들은 자신의 걱정 근심을 서로 장황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알제의 그 길이 오정 무렵에는 아니스술과 압생트술 냄새로 가득 차고 있었다. 비스크라의 무어식 카페들에서는 커피나 레모네이드나 차밖엔 마시지를 않았었다. 아랍 차 ; 후추처럼 톡 쏘는 단맛 ; 생강 ; 더할 나위 없이 더욱 극단적인 근동을 연상시키는 음료—맛도 없다 ; —잔 바닥까지는 마실 수가 없다.

투구르의 광장에는 향료 장수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한테서 여러 가지 나뭇진들을 샀다. 더러는 냄새를 맡는 것들이었다. 더러는 씹는 것이었다 ; 불태우는 것들도 있었다. 불태우는 것들은 드롭스 모양이기 일쑤였다 ; 불을 땡기면 아주 묘한 향기가 섞여든 매운 연기를 자욱이 퍼뜨리는 것이었다 ; 그 연기는 종교적 황홀감을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되며, 회교 사원들의 제식에서 피워지는 것이 바로 이 향료

다. 씹는 향료들은 입안을 당장에 쓴맛으로 가득 채우며, 이빨이 기분 나쁘게 끈적 거렸었다. 맵고 나서도 그 맛이 여전히 오래가는 것이었다. 냄새 맡는 향료들은 그저 느껴질 따름이었다.

테마신의 회교 도사 집에서는 식사 후에 향료 든 과자가 나왔다. 금빛, 회색, 또는 장미색 잎사귀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빵 속을 주물러 만들어진 것 같았다. 입안에서 모래처럼 부스러졌다 ; 그런데도 어떤 즐거움이 발견되기도 했었다. 더러는 장미 냄새가, 더러는 석류 냄새가 났고, 다른 것들은 도통 김이 빠져 버린 것만 같았다.—그런 식사에서는 담배라도 마구 피워 대지 않고서는 도취감에 이를 수가 없었다. 지겹도록 술한 요리 접시들이 나돌았으며, 접시가 돌 때마다 화제도 바뀌는 것이었다.—나중에는 한 흑인 남자가 자루 달린 물병에서 향료 든 물을 우리 손가락에 부어 주었다 ; 물은 대야로 다시 떨어졌다. 또 그곳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끝난 뒤에 여자들이 남자를 씻어 줄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투구르

광장에서 야숙하는 아랍인들 ; 불붙는 모닥불들 ; 저녁 어스름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연기.

—사막의 대상들!—저녁에 온 대상들 ; 아침에 떠난 대상들 ; 끔찍스레 지치고, 신기루에 취해, 이젠 절망에 빠진 대상들! 대상들이여! 나는 왜 당신들과 함께 떠날 수가 없는가, 대상들이여!

백단향과 진주, 바그다드의 꿀 과자, 상아, 수놓은 것들을 찾아 근동 쪽으로 떠난 대상들이 있었다.

호박과 사향, 금가루와 타조 깃털을 찾아 남쪽으로 떠난 대상들도 있었다.

저녁에 떠나 눈부신 마지막 햇빛 속에 사라져 가던, 석양 쪽으로 항한 대상들도 있

었다.

몹시 지쳐 빠진 대상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 낙타들이 광장에 끓어앉고 ; 그 무거운 짐이 마침내 부려지는 것이었다. 두꺼운 천의 고리짝들이었지만, 무엇이 들었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다른 낙타들은 여자들을 가마 비슷한 것에 감추어 태우고 있었다. 천막 재료들을 실은 낙타들도 있어 그것을 펼쳐 밤 채비를 하는 것이었다.—오, 끝없는 사막 속의 어마어마하고도 아득한 피로들!—광장들에서 는 저녁 식사를 위한 불들이 지펴진다.



아! 빛과 찌는 듯한 열기 넘치는 아득한 별판아, 이미 감당도 못하게 너무 눈부신 그 빛의 샘물 쪽으로 몸을 숙이듯 하고 나는, 내 욕망들을 네 쪽으로 그 몇 번이나 내밀었던가—새벽부터 일어나, 영광보다는 햇살로 더 가득 차 시뻘게진 근동을 향해 그 몇 번이나—생명이 사막을 더는 이겨 내지 못 해, 마지막 종려나무들도 시들어 가던 그 오아시스 끝에서 그 몇 번이나…얼마나 우쭐한 황홀감, 얼마나 억센 사랑이, 사막의 열기를 이겨 낼 만큼이나 열렬할 것인가?

지독한 땅 ; 인정도 사정도 없는 땅 ; 열광과 열정의 땅 ; 예언자들의 사랑받던 땅—아! 괴로운 사막, 영광의 사막아,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했다.

나는 보았다, 신기루 그득 찬 염수호들 수면에서 하얀 소금켜가 물의 걸모습을 닦아 가는 것을.—하늘의 쪽빛이 거기에 반사된다는 것, 그것은 나도 이해가 된다—바다처럼 쪽빛인 염수호들은—그러나 무슨 까닭인가—골풀 덤불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허물어진 편암 낭떠러지는—저 떠 있는 배 걸모습들과 더 멀리 궁전 걸모습들은 무슨 까닭인가?—저 가공의 깊은 물 위에 매달린 저 뒤틀린 모든 것들은. (염수호 물가의 냄새는 메스꺼웠었다 ; 그것은 소금이 섞여 타고 있는 하나의 이회

암이었었다.)

나는 보았다, 아마르 카두 산들이 비낀 아침 햇살을 받아 장밋빛이 되는 것을, 마치 불타고 있는 물질처럼 되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바람이 지평선 끝으로부터 모래를 일으켜 오아시스를 혈떡이게 하는 것을. 오아시스는 이미 소나기에 몸서리치는 한 척의 배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 바람에 뒤집혀있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의 길거리들에서는 깡마른 별거승이 사내들이 지독한 열병의 갈증에 몸들을 비틀어 꼬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쓸쓸한 길들을 따라 낙타 해골들이 허옇게 바래 가는 것을 ; —너무 지쳐 더는 기어갈 수도 없게 되자 대상들이 버리고 간 낙타들, 처음에는 파리떼에 뒤덮여 끔찍한 구린내를 풍기며 썩어 가던 낙타들을.

나는 보았다, 벌레들의 이가는 소리 말고 다른 노래들은 이야기해 주지도 않던 저녁들을.

—나는 사막에 대해 더 말하고 싶다 :

구렁이들 득실거리는, 아프리카 나래새의 사막 ; 바람에 일렁거리는 푸른 벌판. 돌의 사막 ; 가뭄 ; 혈암들이 반짝거린다 ; 길앞잡이들이 파닥거린다 ; 골풀들이 말라 간다 ; 모두가 햇볕에 탁탁 튀고 있다.

찰흙의 사막 ; 여기서는 물만 조금 흘러 주어도 모두가 살 수 있을 텐데. 비만 왔다 하면 모두가 푸르러진다 ; 너무 말라빠진 땅이 비록 웃는 습관을 잃은 것 같기는 해도, 풀이 여기서는 딴 곳들보다 더 부드럽고 더 향기로워 보인다. 풀은 사뭇 더 서둘러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는다, 열매를 맺기도 전에 햇볕에 시들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 풀의 사랑은 다급한 것이다. 해가 되돌아온다 ; 땅이 갈라지고 말라 부스러져, 물이 사방으로 빻소니친다 ; 끔찍하게도 틈 벌어진 땅 ; 큰비가 와도

물은 모조리 움푹 패인 골들로 도망친다 ; 비웃음만 당하고, 무엇을 붙잡아 두지도 못하는 땅 ; 절망적으로 굽주리고 목마른 땅.

모래의 사막.—바다 물결처럼 노상 움직이는 모래 ; 노상 자리를 바꾸는 모래 언덕 ; 피라미드와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대상들을 인도한다 ; 어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평선 끝에 다른 언덕 꼭대기가 눈에 띈다.

바람이 불면 대상은 멎는다 ; 낙타몰이들은 낙타들 밑으로 피신하고.



모래의 사막—쫓겨난 생명 ; 그곳에는 이미 꿈틀거리는 바람과 열기밖엔 없다. 모래가 응달에서는 슬쩍 비로드처럼 부드러워진다 ; 저녁에는 불타오르고 아침에는 재처럼 보인다. 모래 언덕들 사이에는 온통 하얀 골짜기들이다 ; 우리는 말을 타고 그곳을 건너가곤 했다 ; 우리 발자국들을 모래가 다시 뒤덮곤 했다 ; 지쳐서, 새 언덕에 부닥칠 때마다 도저히 넘어 가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다.

모래의 사막아,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했던 것이다. 아! 너의 제일 작은 모래알도 유일한 제자리에서 우주 전체를 되풀이해 말해 주었으면!—모래알아, 어떤 삶을 너는 회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에서 부스러져 나왔는가?—모래알은 칭찬받기를 바란다.

내 넋이여, 모래 위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허옇게 마른 뼈들—속 빈 조가비들.

어느 날 아침에 우리는, 햇볕을 가려 줄 만큼이나 높은 모래 언덕 근처에 다다랐다. 우리는 앉았다. 그늘이 꽤 시원해 골풀들이 곱게 자라고 있었다.

한데 밤에 대해서는, 밤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것은 느린 항해다.

물결도 사막보다는 덜 푸르다.

사막이 하늘보다도 더 밝게 빛났었다.

—별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인,

그런 저녁도 나는 알고 있다.

사막으로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 사울—너는 네 나귀들을 되찾지는 못했지만—네
가 찾지도 않던 왕권은 곧잘 찾아낸 셈이다.

자기 몸에 이를 먹여 살리는 즐거움.

삶이 우리에게는

원시적인 것이어서 그 맛도 갑작스러운 것이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행복도,

죽음 위의 꽃피어남 같은 것이었으면 나는 좋겠다.

제 8 부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달라붙는다.
마치 인광이 인에 달라붙듯이;
행위들이 우리를 빛나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닳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다.

내 정신아, 네가 엉뚱한 산책들을 하는 동안 줄곧 너는 무척이나 흥분했었지!

오! 내 마음아! 나는 너를 실컷 물 먹여 주었다.

내 육신아, 나는 너를 사랑에 흠뻑 취하게 해 주었다.

푹 쉬고 난 지금 내가 내 재산을 셈해 보려고 애써도 부질없는 짓이다. 재산이라곤 없으니까.

과거 속에서 옛 생각 한 뜯음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내 이야기 하나를 꾸며보는 수도 있지만, 그 속의 내가 나 같지는 않아 내 생명이 거기서 넘쳐나고 만다. 우선 당장은 늘 새로운 순간 속에서만 사는 느낌이다. 이른바 심사숙고라는 것도 나에 게는 되지도 않을 속박이다 ; 고독이라는 날말도 나는 이제 이해되지가 않는다 ; 내 안에 홀로 있기, 그것은 이미 아무도 아니기다 ; 내 안에는 여럿이 살고 있으니까.—게다가 나는 도처에서 말고는 내 집에 있는 것도 아니다 ; 또 욕망이 노상나를 거기서 몰아낸다. 가장 아름다운 옛 생각도 나에게는 행복의 찌꺼기 같은 것으로밖엔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더없이 작은 물방울들도, 설사 눈물 한 방울이더라도, 내 손을 적시기가 무섭게 그것이 나에게는 더욱 값진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다.



메날크, 나는 자네 생각을 하고 있어!

말해 보게나! 물결 거품에 더러워진 자네 배가 어느 바다 위로 저어 가게 될지를?

메날크, 이젠 돌아오지 않겠는가? 대단한 사치를 싣고, 그것으로 내 욕망들을 다

시 목마르게 할 생각에 흐뭇해져서. 설사 내가 지금 쉬고 있다 해도 자네의 풍성함 속에서는 아니지…천만에—자네는 나에게 결코 쉬지 말도록 가르쳐 주었어.—그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에 자네는 아직도 지치지 않았는가? 나로서는 피로워 때로는 소리 지른 일도 있었겠지만, 무엇에도 피로하지는 않았어 ; —또 내 몸이 지쳤을 때도 내가 나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나약함이야 ; 내 욕망들이 내가 더욱 꿋꿋하기를 바랐으니까.—정말이지 내가 오늘에 와서 무엇인가 뉘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숱한 열매들을, 자네가 일러준 열매들을,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랑의 신을, 깨물어 보지도 않고 상하도록, 나한테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둘다는 점이야.—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읽어 주던 복음서에서는, 오늘 포기하는 것은 나중에 백배로 되찾게 된다니까…아! 내 욕망이 붙잡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더러 어찌란 말인가?—왜냐하면 나는 하도 강한 쾌락들을 이미 알았기에 조금만 더 해도 그것을 맛볼 수도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속죄를 하고 있었다고, 먼 데서는 소문이 났지만—
뉘우쳐 본들 그게 나에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사디

그렇고말고! 내 젊은 날은 깜깜했었다 ;

나는 그것을 뉘우치고 있다.

나는 땅의 소금 맛도

커다란 짠 바다의 맛도 맛보지 않았었다.

나는 내가 땅의 소금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맛을 잊을까 봐 두려워했었다.

바다의 소금은 제 맛을 전혀 잊지 않는다 ; 그러나 내 입술은 이미 늙어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 아! 내 넋이 바닷바람을 탐내던 때에 나는 왜 그것을 들이마시지 않

있는가? 이젠 어떤 포도주가 나를 취하게 하기에 족할 것인가?

나타나엘, 아! 네 넋이 네 기쁨에 미소 지을 때 네 기쁨을 만족시켜 주고—네 입술이 아직은 입 맞추기에 아름답고 너의 포옹이 즐거울 때, 네 사랑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게 될 테니까 : —과일들이 거기 있었다 ; 그 무게에 가지들은 휘어져 이미 지쳐 있었다 ; —내 입이 거기 있었고, 욕망에 가득 차 있었다 ; —한데 내 입은 닫힌 그대로였고, 내 두 손은 내밀 수가 없었다, 기도 하느라고 맞잡고 있었으니 ; —그리고 내 넋과 육신은 여전히 절망적으로 목말라 있었다.—시간은 절망적으로 지나가 버렸고.

(슬라미트,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란 말인가?—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내가 통 모르고 있었다니!

당신이 나를 찾았는데도 다가오는 당신 발소리도 나는 듣지 못했다니.

아! 짚음—사람은 그것을 한때밖에 지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짚음을 떠올리며 보낸다.

(쾌락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대꾸해 주고 있었다 ; 나는 열어 주지도 않고 그냥 끓어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물은 물론 아직도 술한 밭들을 적셔 줄 수 있고, 많은 입술들이 그것으로 갈증을 푼다. 한데 물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물은 잠시 동안의 시원함 말고는 나를 위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지나고 나면 다시 뜨거워지는 그 시원함 말고는.—내 기쁨의 허울들, 너희도 물처럼 흘러가 버리겠지. 물이 노상 새로워지는 것도 변함없는 시원함을 위해서이기를.

시내들의 무궁무진한 시원함, 개울들의 끝없는 용솟음, 너희는 전에 내가 손을 담근 그 가로챈 적은 물, 시원함이 가시고 나면 버려지는 그런 물은 아니다. 가로챈 물, 너는 사람들의 지혜와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의 지혜, 너는 시내들의 무궁무진한 시원함을 지나지 못했다.

불면증

기다림. 기다림 ; 신열 ; 가고 만 젊은 날의 시간들…너희가 죄악이라 부르는 것 모두에 대한 불타는 갈증.

개 한 마리가 달을 보고 슬피 짖어 대고 있었다.

고양이가 찡얼거리는 어린애 같았었다.

도시는 마침내 약간의 고요를 맛보려는 참이었다, 이튿날에는 제 소망 모두가 되 젊어진 것을 보려고.

가고 만 시간들을 나는 떠올려 본다 ; 돌바닥을 밟는 맨 발 ; 발코니의 젖은 쇠붙 이에 나는 이마를 기대고 있었다. 따도록 무르익은 희한한 과일과도 같이 달빛을 받아 빛나던 내 몸의 광채. 기다림들! 너희는 우리를 시들게 하는 패거리였었지… 너무 익은 과일들! 우리는 갈증이 너무 심해져 목이 타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너희를 깨물었었다. 상한 과일들아! 너희는 우리 입을 싱거운 독 약 맛으로 채웠고, 내 넋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았다.—무화과들아, 아직은 시큼 한 너희 살을 아직은 젊어서 깨문 사람, 그래서 사랑의 향기 풍기는 네 젖을 더는 기다리지 않고 빨아들인 사람…나중에는 시원해져서—우리가 고된 나날들을 마치 게 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지.

(나는 물론 내 넋이 지독하게 닳는 것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 한데 내 감각들이 닳지 않고서는 내 넋더러 제 신을 잠시도 잊게 할 수는 없었다 ; 내 넋은 밤낮없이 줄곧 제 신 걱정만 했었다 ; 힘든 기도에만 애쓰고 있었다 : 내 넋은 그 열정에 다 타 리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어느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바다새들이 날개를 펼쳐 가며 미역을 감고 있었다.) 아! 나타나엘, 그래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욕망으로 가득 찬 입술 위에 놓인 맛좋은 과일인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들이 있다.

엄청난 기대들이 있었다—팔다리는 마치 사랑 때문에 구부리진 듯이 지쳐 가지고, 부질없이 내가 잠을 청하던 침대 위에서—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기 일쑤이던 기대들이.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쾌락 저편에서, 더욱 감추어진 제2의 쾌락 같은 것을 내가 찾는 수도 있었다.

…내 갈증은 마실수록 시시각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마침내는 갈증이 하도 심해지는 바람에, 그 욕망에 시달리다 못해 내가 읊을 지경이었다.

…내 감각들은 많다못해 투명해져 벼렸으며, 그래서 아침에 내가 거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늘의 쪽빛이 내 몸에 배어들었다.

…내 입술 살을 뜯느라고 몹시도 안달이던 이빨들—그래서 끝이 온통 닳아 버린 것만 같다. 마치 안의 흡수작용 때문인 듯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꽃핀 양파밭들의 냄새에도 나는 쉽사리 토할 지경이었다.

불면증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 아! 그 목소리는 한탄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 냄새 고약한 꽃들의 열매로군 : 열매는 달콤하다. 나는 앞으로 내 욕망의 막연한 시름을 이 길 저 길로 끌고 다니겠어. 방풍이 된 네 방들에서는 나는 숨이 막히고 네 침대들도 이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다시는 네 끝없는 방랑에서 목표를 찾질랑 말고…

—우리의 갈증이 하도 심해져 있었기에 나는 그 물을 분간하기도 전에 한 잔을 끌꺽 마셨던 거다. 아! 그 물은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이었던가.

…오, 술라미트! 나에게는 당신이, 달한 비좁은 정원들 그늘에서 익은 그 열매들과
도 같은 것이었다.—

아! 나는 생각했었다, 온 인류가 잠 욕심과 쾌락 욕심 사이에서 지쳐 가고 있다
고.—끔찍스러운 긴장, 애타는 집중 다음에는 육신의 허탈이 와, 잠잘 생각밖에는
없어지고 만다—아! 잠!—아! 욕망들이 또다시 소스라쳐 우리를 삶 쪽으로 다시 깨
워 주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온 인류는, 고통을 덜려고 침대에서 뒤척거리는 병자처럼밖에 꿈틀거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 몇 주일을 일하고 나면, 영원한 휴식들.

…마치 사람이 죽어서도 어떤 옷을 간수할 수 있더라도 하듯이! (간소화) 그리고
우리는 죽게 마련—잠자려고 벌거벗는 사람처럼.

메날크! 메날크, 나는 자네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말했었지, 그래, 나는 알고 있어 : 아무렴 어때?—

여기서건—저기서건—우리는 똑같이 팬찮을 거다.

…지금, 그곳에서는, 저녁이 오고 있었고…

…오! 시간이 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과거가 되돌아올 수
만 있다면! 나타나엘, 생명이 내 속에서 끌처럼 흐르던 내 젊은 날의 그 사랑의 시
절로 너를 데리고 가고 싶구나.—그 많은 행복을 맛본 것으로 넋이 달래지기나 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그 정원들 속에 있었으니까, 다른 누가 아니고 바
로 내가 말이다 ; 나는 그 새들의 노래를 듣고 있었지 ; 그 꽃들 향기를 들이마셨
었지 ; 그 소년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루만졌었지—하기야 그런 재미 하나하나

는 새 봄마다에 뒤따르게 마련이지만,—그때의 나, 그 딴사람, 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다시 될 수 있단 말인가!—(지금 거리의 지붕들 위에는 비가 오고 있다 ; 내 방은 쓸쓸하다.) 그곳에서는 로시프의 가축 떼가 돌아오던 시간이다 ; 산에서들 돌아오곤 했었지 ; 해 질 무렵에는 사막이 온통 금빛이었었고 ; 저녁의 그 고즈넉 함…지금 ; (바로 지금.)

6월의 밤—

파리—

아트망, 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 ; 비스크라, 네 종려나무들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투구르, 네 모레 생각을…

—오아시스들아, 그곳에서는 살랑거리는 네 종려 잎가지들을 메마른 사막 바람이 아직도 뒤흔들고 있는가? 더위에 말라 터진 석류들아, 새콤한 너희 알들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세트마, 시원한 네 물줄기들과, 곁에 가면 땀나던 뜨거운 네 샘물 생각이 난다.—금빛 다리인 엘 칸타라, 소리 울려 퍼지는 네 아침들과 어수선한 네 저녁들 생각이 난다.—자구앙, 네 무화과나무들이며 협죽도들이 내 눈에 선하다 ; 카이루앙, 네 선인장들이 ; 수스, 네 올리브나무들이 눈에 선하다.—허물어진 도시, 늪에 둘러싸인 성벽들의 우마크, 네 황폐한 모습을 나는 꿈꾼다.—그리고 음침한 도로의 황폐한 모습도, 독수리 드나드는 끔찍스러운 마을, 목소리 쉰 협곡이여.

높다란 세가, 너는 여전히 사막만 바라보고 있는가?—므레예, 너는 내 가냘픈 위성버들을 염수호에 담그고 있는가?—메가린, 너는 찐물을 톡톡히 맛보고 있는가?—태마신, 너는 여전히 햇볕에 시들고 있는가?

랑피다 근처의, 봄에는 꽃이 흘러내리던 민둥바위 생각이 난다 ; 별거벗다시피 한 무척 아름다운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던 우물이 그 곁에 있었다. 절반은 늘 허물어져 있던 아트망의 작은 집, 너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가, 지금쯤은 달빛을 받으면서?—네 어머니가 길쌈을 하고, 아무르의 아내인 네 누이가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

를 하던 그 집 ; 선잠 든 잿빛 물 곁에서—산비둘기 새끼들이 어둠 속에서 흥겨워 재잘거리던 그 집.—

오, 욕망! 나에게는 잠 대신이던 꿈에 너무 빠져들어, 나는 그 몇 밤이나 잠을 설치곤 했던가! 오! 저녁나절에 안개만 있다면, 종려 잎가지 그늘에 피리 소리만 있다면, 오솔길들 깊숙이 흰 옷들만 있다면, 뜨거운 핫빛 곁에 기분 좋은 그늘만 있다면…나는 가겠어…!

…작은 오지 기름 등잔! 네 불꽃이 밤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 —창문이 사라지고 ; 그냥 벽 구멍에 비친 하늘 ; 지붕들 위에는 고요한 밤 ; 달.

풀해진 길거리들 인쪽에서 이따금씩 합승마차 한 대,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 그리고 멀리서는 도시를 떠나가는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도망치는 소리가—커다란 도시가 잠 깨기를 기다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방바닥에 드리워진 발코니 그림자, 하얀 책 페이지에 어른거리는 불꽃. 숨 쉬는 소리.

—달은 이제 숨고 없다 ; 내 앞의 정원이 녹음의 연못으로 보이고…흐느낌 ; 악문 입술 ; 너무 대단한 확신들 ; 생각의 고민.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참된 것들—남—자기 삶의 소중함 ; 그에게 말해 주어야지…

맺음말을 같음하는
찬가

M.A.G. 에게

돌아나는 별들 쪽으로 그녀는 눈을 돌렸다. 그녀는 말했다 ; “저 별들 이름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 저마다 이름이 여럿입니다 ; 저마다 다른 미덕들을 지니고 있고
요. 우리 눈에는 조용해 보이는 별들의 걸음걸이도, 실은 빨라서 별들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별들의 불안한 열정이 극성맞은 달음박질의 원인이고, 별들의 광채가
그 결과입니다. 어떤 내부 의지가 별들을 밀어 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 어떤 알
뜰한 열성이 별들을 불사르며 태워 없애고 있는 거지요 ; 별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별들은 미덕과 힘이라는 밧줄들로 서로 꼽 꼽 묶여 있으며, 따라서 하나는 또 하나
에 달려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이 그어져 있어
저마다가 제 길을 찾아갑니다. 길마다 주인이 있으니 남을 그 길에서 밀어 내지 않
고서는 아무도 길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마다는 제가 그 길을 꼭
따라가야만 하던가에 따라 제 길을 택하게 됩니다 ;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바라기
도 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숙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길이 별 저마다에게
는 마음에 드는 길인 것입니다. 저마다가 완전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어떤
눈부신 사랑이 별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 별들의 선택이 법칙들을 정하며, 우
리는 그 법칙들에 달려 있습니다 ; 우리가 그 법칙들에서 도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사

나타나엘, 이젠 내 책을 팽개쳐. 내 책에서 해방되도록 해. 나를 떠나가라고. 나를 버리고 ; 나는 이제 네가 성가셔 ; 네가 거추장스럽단 말야 ; 너에게 떠벌여 보여준 사랑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누군가를 교육하는 체하는 데도 나는 지쳤어. 네가 나를 닮기를 바란다는 말을 내가 언제 했니?—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네가 나와는 다르기 때문이야 ; 나는 너한테서 나와 다른 점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야. 교육한다고!—내가 나 자신 말고는 도대체 누구를 교육한단 말인가? 나타나엘, 이 말을 너에게 해야겠는가? 나는 끝없이 할 수 있을 일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다.

나타나엘, 내 책을 팽개쳐 ; 내 책에서 만족하질랑 말고 ; 너의 진리가 어느 남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고는 믿지 말게 ; 그걸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 내가 네 끼니들을 찾아 준다면 너는 그걸 먹을 만큼 시장하지도 않을 거야 ; 내가 네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너는 거기서 잘 만큼 졸리지도 않을 거고.

내 책을 팽개치라고 ; 이건 삶과 맞서는 수천 가지 가능한 자세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 너만의 자세를 찾도록 하라고. 남도 너 못지않게 곧잘 해낼 일이라면 하지도 말게. 남도 너 못지않게 곧잘 할 말이라면 말하지도 말고,—너 못지않게 곧잘 쓸 글이라면 쓰지도 말게. 너 자신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에만 달라붙도록 하고, 너를 가지고. 아! 무엇과도 바꿔칠 수 없는 다시없는 존재를 창조해 내도록 하라고. 애타게. 아니 참을성 있게.

새로운 양식

Les Nouvelles Nourritures

제 1 부

I

내가 이미 땅 위의 소리들도 듣지 못하고 내 입술이 그 이슬도 못 마시게 되고 말 때 오게 될 자네—어쩌면 나중에 내 책을 읽게 될 자네—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자네를 위해서다 ; 왜냐하면 자네는 살아가는 일에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 자네의 삶이라는 그 아주 멋진 기적에도 자네는 제대로 감탄하지도 않으니까. 때로는 자네가 뭘 마시게 되는 것도 바로 내 갈증 때문이고, 자네가 어루만지는 그 다른 존재 위에 쏠리게 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의 욕망 때문인 것처럼 지레 여겨지는 수가 있다.

(욕망이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얼마나 흐릿해지는가에 나는 감탄하고 있다. 내 사랑이 하도 흐릿하게, 하도 한꺼번에, 그녀 몸을 온통 감싸고 있었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주피터처럼 먹구름으로 둔갑한 기분일 정도였으니.)

떠돌이 산들바람이
꽃송이들을 어루만졌다.
나는 진심으로 너에게 귀를 기울인다,
세계의 첫 아침 노래여.

아침나절의 도취,
태어나는 햇살들, 리큐르술에
온통 끈적끈적해진 꽃잎들…

너무 기다리지 말고
더없이 다정한 충고에 따르라
그래서 미래가 너에게 가만가만
침입해 들어오도록 가만두렴.

햇빛의 따스한 어루만짐이
바야흐로 너무나 은밀해지니
더없이 겁 많은 넋도 못내
사랑에 빠져들고 말 지경.

사람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
그렇다, 자연 모두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해가 불러서 땅에서 스며 나와 흘어진 하나의 기쁨이 땅을 미역 감기고 있다—마치 원소가 이미 생기를 얻어, 애초의 엄격에 아직은 순종하다가도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이 대기를 감동시키려는 듯이…뒤얽힌 법칙들로부터 멋진 복잡성들이 태어나는 것이 보인다 : 계절들 ; 출렁거리는 밀풀과 썰물 ; 분리되었다가,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수증기들 ; 조용히 번갈아드는 나날 ; 주기적으로 되돌아오는 바람 ; 이미 활기를 띠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조화로운 리듬이 흔들어 주고 있다. 모두가 기쁨을 장만할 채비를 하고 있으니, 이윽고 생기를 얻어 잎사귀 속에서 철없이 꿈틀거리다가 이름을 갖고 구분되는 기쁨은, 꽃송이에서는 향기가 되고, 열매에서는 맛이 되고, 새에서는 의식과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돌아온 과정보, 그리고 그 상실은, 햇살 속에서 증발되었다가 소나기 속으로 다시 모여드는 물의 에움길과도 비슷하다.

동물 하나하나는 기쁨 한 무더기씩에 지나지 않다.

모두가 존재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존재가 흥겨워한다. 자네가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맛이 들었을 때의 기쁨이다 ; 그 기쁨이 노래가 될 때는 새라고 부르고.

사람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 그렇다, 자연 모두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식물을 짹트게 하고, 벌통을 꿀로, 사람 마음을 착함으로 채워 주는 것은 바로 관능의 기쁨을 노리는 노력이다.

나뭇가지들 사이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산비둘기,—바람에 나부끼는 잔가지들,—
흰 조각배들을 기울게 하는 바람,—가지들 사이로 반짝거리는 바다 위에서,—꼭대
기에 흰 거품 이는 물결들,—그리고 웃음소리며, 창공이며, 이 모두의 광명,—누이
여, 제 속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제 행복을 네 행복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땅 위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나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말해 주었다 ; 만일에 그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란 말인가?

내가 있기 전에도 이미 나는 있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 만큼이
나, 내가 있다는 사실에 생생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인 토론은 겨울로 미루기로 하자, 그 문제에는 골칫거리가
수두룩하니까.

백지상태. 나는 모조리 쓸어 버렸다. 이젠 됐다! 나는 알몸으로 처녀인 땅 위에 텅
빈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다.

아니! 포이보스, 너로구나! 너는 서리 덮인 잔디밭에 네 술 많은 머리카락을 늘어
뜨리고 있군. 해방의 활을 갖고 오라. 네 금빛 화살이 감겨진 내 눈꺼풀로 스며들어,
그늘에 와 닿는다 ; 화살은 승리하고, 그래서 마음속의 악마가 항복한다. 내
살에는 빛깔과 열을, 내 입술에는 갈증을, 내 마음에는 눈부심을 갖다다오. 네가
하늘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지는 모든 명주 사다리를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을 나
는 불잡겠다. 나는 이제 흙에 집착하지 않는다 ; 햇살 하나의 끝에서 나는 흔들거
리고 있다.

오, 내가 사랑하는 너, 아이야! 내 도망 길에 너를 데려가고 싶다. 재빠른 손으로
햇살을 잡아라 ; 이게 바로 천체다! 무거운 짐을 팽개쳐라. 아무리 가벼운 과거의
짐도 너를 노예로 삼도록 두질랑 말라.

더는 기다리지 말자. 더는 기다리지 말자! 오, 봄비는 길! 나는 무시하고 간다. 이젠 내 차례니까. 햇살이 나에게 눈짓을 해 주었다 ; 내 욕망이 내게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며, 오늘 아침에 나는 모든 것에 반해 있다.

반짝이는 수천 가닥의 실이 꼬이면서 내 가슴에 와서 달라붙는다. 가냘픈 수천의 지각들을 가지고 나는 기적의 웃을 짜낸다. 신이 그 사이로 웃어 보이고, 나는 신에게 미소를 보낸다. 그러니 위대한 목신이 죽었다고 누가 말하던가? 내 입김 너머로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입술이 목신 쪽으로 내밀어진다. 너는 왜 꾸물대느냐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속삭이던 것이 바로 그가 아닌가?

나는 모든 너울들을 정신과 손에서 물리친다. 빛나는 것, 벌거벗은 것 말고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지도록까지.

계을러빠진 봄이여,
너의 관용을 나는 빈다.

나른해 빠진 너에게
내 마음을 내맡긴다.
우유부단한 내 생각이
산들바람 따라 나부낀다.

끌이 다정스레 흘러내려
내 가슴에 스며든다.
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 보지 말고, 아! 듣지도 말자.

내 눈꺼풀을 통해 나는
네 빛을 맞아들인다,

나를 이루만져 주는 해여 ;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고…

방비 없는 내 마음을 마셔다오,

더없이 너그러운 해여.

오늘 너희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아담인 나다. 이 시내는 내 갈증이다 ; 이 숲 그늘은 내 잠이다 ; 이 벌거벗은 아이는 내 욕망이다 ; 새의 지저귐이 내 사랑의 목소리가 된다. 내 마음은 이 별통에서 봉봉 거린다 ; 왔다 갔다 하는 지평선아, 내 한계가 되어다오 ; 너는 비낀 햇살 아래서 자꾸만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파리해진다.

이곳이 바로 사랑과 생각의 합류점이다.

하얀 책 페이지가 내 앞에서 반짝인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듯이, 내 관념도 와서 리듬의 법칙들에 순종한다.

나의 완전한 행복의 모습아, 재현의 화가인 나는 더없이 생생하게 설레는 색채를 여기다 펼쳐 놓는다.

나는 이제 낱말들을 낱개로만 붙잡겠다. 내 기쁨의 산비둘기야, 그게 바로 너냐?
아! 아직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마라. 이리, 내려와 ; 좀 쉬렴.

나는 땅바닥에 누워 있다. 내 곁에서는 터질 듯한 열매들이 잔뜩 달린 가지가 풀에 닿도록 휘어져 있다 ; 가지가 풀을 건드린다 ; 가지는 더없이 부드러운 잔디 이삭을 스치며 이루만진다. 구구하고 우는 비둘기 소리 무게에도 가지가 하늘거린다.

16살 때의 나와 비슷하면서도 더 자유롭고 더 숙성한 소년이 나중에, 가슴 두근거리는 제 물음에 대한 답을 여기서 발견하도록 하려고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한데 그의 물음은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 시대와의 접촉이 대단치가 않아, 내 동시대인들의 놀이들이 나를 즐겁게 해 준 일이 별로 없다. 나의 관심은 현재 저쪽에 쏠린다. 나는 무시하고 나아간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꼭 요긴해 보이는 일이 이미 이해되기 힘들 그런 시대를 나는 예견한다.

나는 새로운 조화들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더욱 정묘하고 더욱 솔직한 낱말들 예술을 ; 수사법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들지 않는 그런 예술을.

아! 누가 내 정신을 무거운 논리의 쇠사슬들에서 풀어 줄 것인가? 나의 가장 참된 감동도, 내가 그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당장에 비뚤어지고 만다.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는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지혜는 이성 속이 아니고 사랑 속에 있다. 아! 나는 이날까지 너무나 조심스레 살아왔다. 새로운 법칙에 귀를 기울이려면 법칙 없이 있어야 한다. 오, 해방! 오, 자유! 내 욕망이 미칠 수 있는 그곳까지 나는 갈 것이다. 오, 내가 사랑하는 너, 나와 함께 가자 ; 너를 그곳까지 데려가주마 ; 네가 사뭇 더 멀리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만남들

조화롭고 율동적인 몸짓밖에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빈틈없는 체조 선생들처럼, 우리 삶의 갖가지 행위들을 마치 하나의 춤처럼 해 내며 우리는 종일토록 즐겼었다. 마르크는 공들여 다듬어진 리듬에 맞추어 물을 찾아 펌프로 가더니, 펌프를 자아 양동이를 들어 올리곤 했었다. 지하실에서 포도주 한 병을 찾아, 마개를 뽑고, 마시는 데 필요한 모든 동작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 그 동작들을 우리는 분석해 본 셈이다. 우리는 장단 맞추어 건배를 했었다. 삶의 힘든 상황들에서 곤경을 빠져 나오기 위한 스텝들도 우리는 발명해 내었다 ; 마음의 불안을 고백하기 위한 다른 스텝들도 ;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스텝들도. 애도의 빠스뻬에 춤이 있었

고, 축하의 그것도 있었다. 터무니없는 소망의 리고동 춤이 있었고, 어엿한 갈망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뉴에트도 있었다. 유명한 발레들에서처럼, 갈등의 스텝, 불화의 스텝, 화해의 스텝이 있었다. 우리는 양상을 동작에서 뛰어나 있었다 ; 하기야 완전한 단짝 스텝은 혼자 추어졌지만. 우리가 발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던 것은, 큰 목장을 끼고 함께 수영장 쪽으로 내려가는 스텝이었다 ; 그것은 매우 빠른 동작이었다, 땀을 흘리며 도착하고들 싶었으니까 ; 깡충깡충 뛰는 것이었고, 목장 비탈이 우리의 엄청난 큰 걸음을 부추겨 주었었다. 전차를 뒤쫓는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가 입은 헐렁한 가운을 여미며 ; 온통 숨이 차서 물가에 다다라서는, 곧장 깔깔대며 물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말라르메의 시를 읊어 대면서.

그러나 이 모두가 서정적이기에는 덤덤함이 좀 모자랐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아! 내가 잊고 있었다 : 느닷없는 자발성의 앙트르샤도 우리는 갖고 있었다.

나는 행복해 질 필요가 없다고 내가 믿게 된 그날부터 행복이 내 마음속에 깃들이기 시작했다 ; 그렇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믿은 그날부터. 이기주의를 곡괭이로 내리치고 나서는 당장에, 기쁨이 하도 넉넉히 내 가슴에서 용솟음치는 바람에, 남들 모두에게도 그것을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만 같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본보기를 보여 주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내 행복을 하나의 소명으로 나는 받아들인 것이다.

뭐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네 영혼이 네 몸과 함께 놓아 없어져야 한다면, 네 기쁨을 되도록 일찍 실현시키라. 영혼이 영락없이 불멸이라면 너는, 네 감각들에는 아랑곳없는 것에 영원히 매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네가 지나가는 이 아름다운 고장을 너는 깔보고 그 매력들을 마다할 작정인가? 그 매력들이 금방 도로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해서. 너의 통과가 빠를수록 네 눈길도 더욱 탐욕스러워야지 ; 너의 뺏소니가 다급할수록 너의 포옹도 더욱 갑작스러워야지! 그러니 한순간의 애인인 내가 왜, 내가 붙잡아 둘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애정을 덜 쏟아 껴안는단

말인가? 변덕 많은 영혼아, 서두르라! 가장 아름다운 꽃은 또한 가장 일찍 시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 그 향기에 얼른 관심을 두라. 불멸의 꽃에는 냄새도 없다.

즐겁도록 타고난 영혼아, 이젠 네 맑은 노래를 흐리게 할 것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지나가는 모든 것에 한결같이 꾸준하신 하느님이, 물체가 아니고 사랑 속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 그래서 나는 이제 순간 속에서 평온한 영원을 맛볼 줄 아는 것이다.

이 기쁨의 상태, 그 속에 네가 머무를 줄 모르거든, 거기 이르고자 너무 애쓰지도 말라.

다정한 눈부심이여
나의 깨어남을 반겨다오!
물질 아닌 것을 지녔노라고
뽐내기에는 나는 아직 어림도 없으니 ;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티 없는 창공아.
아리엘처럼 가벼운 나는
하늘의 어느 한구석에만
매달려도 이내 죽고 만다.

내가 아는 한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너에게 귀 기울이기, 그건 네 말을 듣기다.

이 꿀을 맛보기 위해
나는 더 기다리고 싶지 않구나.

오늘 아침에는 내가 마치, 잉크가 너무 묻은 줄 아는 펜으로, 얼룩이 질까 봐 두려워 낱말들의 꽂다발을 그리는 사람과도 비슷하다.

II

나더러 날마다 하느님을 발명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있다는 사실에 놀라 끊임없이 감탄한다. 괴로움이 가시고 오는 기쁨이 어째서, 기쁨이 끝나고 오는 고통보다 덜한가? 그 까닭은, 괴로움 속에서 너는 빼앗긴 행복을 생각하지만, 행복의 품 안에서는 네가 면한 괴로움을 생각하는 수가 없기 때문이다 : 행복하다는 것이 너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한 것이다. 피조물 하나하나에게는, 제 감각들과 제 심장이 얼마나 감당해 내는가에 따라 알맞은 몫의 행복이 돌아간다.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빼앗긴다면 나는 도둑맞은 셈이다.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생명을 요구했었는지의 여부를 나는 모른다 ;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모두가 내 몫이다. 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도 애틋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는 당연히도 너무나 애틋한 것이어서, 바람의 하찮은 어루만짐도 내 마음에 고마움을 일깨워 줄 정도이다. 고마워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나한테 오는 모든 것으로 행복을 만들도록.

비틀거릴까 봐 겁이 나서 우리의 정신은 논리의 난간에 매달린다. 논리가 있고,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있다. (나는 비논리도 성가시지만, 지나친 논리도 지겹다.) 이 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남들이 이치에 맞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 (내 심장이 된다고 해서 내 이성이 트집 잡더라도,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내 심장이다.) 살지 않고도 배기는 사람들이 있고, 옳지 않아도 예사인 사람들 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논리 없이이다. 오,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상냥한 내 생각이여! 너의 탄생을 정당화시키려고 더 오래 애써본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늘 아침만 해도 나는 플루타르코스에서, 로물루스와 테세우

스 전기의 첫머리에서, 이 두 위대한 도시국가 건설자가 ‘내연 관계에서 남몰래’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로 여겨졌었다는 대목을 읽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내 과거에 얹매여 기를 통 못 퍼고 있다. 어제의 내가 결정짓지 않는 몸짓이라곤 오늘 하나도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의 나는, 갑작스럽고 덧없으며, 무엇과도 바꿔칠 수 없는 나는, 도망을 치니...

아! 나 자신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이 속박을 나는 뛰어넘고 말 텐데. 내 콧구멍은 바람 앞에 열려 있다. 아! 닻을 올리자, 더없이 무모한 모험을 위해…그리고 그것이 내일 일에는 지장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기를 바라며.

결과라는 이 낱말에서 내 정신이 비트적거린다. 우리 행위들의 결과 ; 자기 자신과의 결과. 나는 이제 나에게서 하나의 결과밖에 기대하지 않을 것인가? 결과 ; 망신 스러운 짓 ; 미리 그어진 길. 더는 걷고 싶지 않고 뛰고 싶다. 펄쩍 뛰어 내 과거를 밀어 내어 잡아떼고 싶다 ; 더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 나도 할 만큼은 해 왔으니! 미래여, 네가 충실치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할 것인가!

내 생각이여, 어느 바닷바람이나 산바람이 너를 날려 보낼 것인가? 날개 파닥이며 떨고 있는 파랑새여, 너는 이 깎아지른 막바지 바위 위에 남아 있다 ; 현재가 너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은 멀리 너는 이미 나아가고 있으며, 그러다가 눈을 부릅뜨고 뛰어들어 미래 속으로 도망친다.

오, 새로운 불안들!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질문들!…어제의 고통에 나는 지쳤다 ; 그 쓴맛을 나는 톡톡히 맛보았다 ; 이제 나는 그것을 믿지도 않는다 ; 그래서 나는 현기증도 없이 미래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본다. 심연의 바람아, 나를 날려 보내다 오!

III

긍정이 저마다 완성되는 것은 바로 자기희생 속에서다. 네가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것은 다 생명을 얻게 된다. 자기를 내세우려 드는 자는 다 자기를 잃게 되고 ; 자기를 버리는 자는 다 자기를 얻게 된다. 완전한 소유는 오로지 중여에 의해서만 입증된다. 네가 줄 줄 모르는 것 모두가 너를 차지하는 것이다. 희생 없이는 부활도 없다. 바쳐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꽂피어나지 않는다. 네가 마음속으로 보호할 작정인 것은 조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과일이 익었음을 너는 무엇으로 알아 보는가?—가지에서 떨어진다는 사실로. 모든 것은 주어지려고 익고, 바쳐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오, 즐거움으로 둘러싸인, 맛도 푸짐한 과일, 네가 짹트려면 너를 내던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네 둘레의 그 단맛은 죽어야 한다! 암, 죽어야지. 그 그윽하고 달콤하고 푸짐한 살은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은 땅에 딸린 것이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살은 죽어야 한다. “열매가 죽지 않고서는 저 혼자만 남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 주여,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죽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미덕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버림으로써다. 과일의 그지없는 맛이 열망하는 것은 바로 짹트기인 것이다.

참된 응변은 응변을 버린다 ; 개인은 자신을 잊을 때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게 마련이다. 자기 생각만 하는 자는 자기를 가로막는다. 자기가 아름다운 줄을 이미 잊고 있을 때만큼이나 내가 미녀에 감탄하는 일은 없다. 가장 감동적인 몸매 또한 가장 체념한 몸매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느님이 되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버림으로써다. 또 거꾸로 하느님이 창조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버림으로써 인 것이다.

만남들

장—풀 알레그레에게

1

그날 우리는 공상에 잠겨 거리를 무턱대고 거닐다가 세느 거리에서—자네도 생각 나겠지만—초라한 흑인 하나를 만나,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피슈바 셰르 책방의 진열창 높이에서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서정적이기 위해서는 때로 만사에 정확하기를 그만두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멈춰서는 구실 삼아 진열창을 쳐다보는 척했었다 ; 그러나 우리가 쳐다보던 것은 바로 그 흑인이었다. 초라하다면, 그는 영락없이 그랬었지만, 그가 덜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 왜냐하면 그는 체면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흑인이었으니까. 그는 실크 모자를 쓰고 단정한 프록코트를 입고 있었다 ; 한데 모자는 곡마단 모자들과 비슷했고 코트는 끔찍이도 해져 있었다 ; 속옷도 영락없이 입었으나 어쩌면 흑인한테서만 희게 보일 그런 것이었다 ; 그의 가난은 특히 구멍 난 구두에서 엿보였다. 정처도 없이 걷다가 이내 더는 나아가지도 못할 그런 사람처럼 그는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 그리고 네 발짝마다에 멈춰 서서는, 그 난로 연통 같은 모자를 쳐들어 추운데도 부채질을 하고는, 지저분한 스카프를 포켓에서 꺼내어 이마의 땀을 닦고는 다시 집어넣곤 했다 ; 그 이마는 은발 밑에 훤히 벗겨져 있었다 ; 그 눈길은 마치 아무것도 삶에서 기대하지 않게 되고 만 사람들의 그것처럼 흐릿해, 마주치는 행인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 그러나 누가 자기를 보려고 멈춰 서면, 체면 차리느라 얼른 모자를 다시 쓰고는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보나 마나 그는 누구를 찾아가 무엇을 부탁하다 거절당하고 오는 길이다. 소망이 없어지고 만 사람처럼 보였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다시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죽겠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틀림없이, 검둥이로 태어난 것으로도 굴욕을 받아들이기에는 족하지가 않다

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보여 주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 나는 그를 따라가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얼마나 알고 싶었던가 ; 그러나 그는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았다. 아! 나는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었다. 게다가 삶에 관한 모든 것,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때 나를 따라오던 자네의 관심을 어느 정도까지나 끌는지도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 그래도 나는 역시 그에게 다가갔어야만 하는 건데.

2

우리가 지하철로 돌아오다가, 물고기 어항을 거추장스레 들고 다니던 그 인상 좋은 작은 사나이를 본 것도 바로 같은 그날 얼마 후이다. 어항은 형겼이 씩워져 옆쪽만 들여다볼 수 있게 벌어져 있었고, 전체가 종이에 싸여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몰랐으나, 하도 조심스레 감추고 있었기에 내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

—폭탄인가요?

그러자 그는 나를 불빛 곁으로 끌고 가더니 무슨 비밀이라도 되듯이 :

—물고기들입니다.

하고는 금방 말을 잇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천성이 상냥한 데다 우리가 잡담 밖엔 부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감추는 겁니다 ; 하지만 댁에서들 예쁜 것을 사랑하신다면 (예술가들이 틀림없겠지만) 이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더니 갓난애 기저귀 같아 주는 엄마 같은 손짓으로 조심스레 어항을 벗기면서 계속하는 것이었다 :

—이건 제 장사입니다 ; 물고기 사육사지요. 보세요! 요 꼬마들은 한 마리에 10프랑짜립니다. 아주 작지요 ; 하지만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는 댁들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얼마나 예뻐요! 광선을 받을 때 한 번 보기나 하세요. 여기요! 이건 초록,

이건 파랑, 이건 분홍 ; 제 색깔은 없으면서 모든 색깔을 다 갖게 되거든요.
어항 물속에는 열두어 개의 재빠른 바늘밖엔 없었고, 고깃들이 차례로 형겼 텀바
구니를 지나가면서 알록달록해지는 것이었다.

—요놈들을 기르는 게 바로 당신인가요?

—딴 놈들도 기르고 있죠! 하지만 딴 놈들은 내가 갖고 다니질 않아요. 너무 까다
롭거든요. 생각 좀 해 보세요! 한 마리에 50프랑, 60프랑이나 값나가는 것도 있어
요. 그런 놈들은 우리 집에 와서들 보게 하고, 또 팔리기 전에는 내놓지도 않습니
다. 지난주에도 어느 부자 애호가가 120프랑짜리 한 마리를 사 갔지요. 중국산 잉
어였어요 ; 터키 고관처럼 꼬리가 셋이나 달린 놈이었는데…그런 놈들은 기르기에
힘드냐고요? 그럼요! 먹이기도 힘들어 간장병에 걸리기 십상이죠. 주일에 한 번은
비시 광석수에 넣어 줘야 합니다. 비용이 비싸게 먹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죠
: 토끼처럼 번식하거든요. 선생, 댁도 애호가시지요? 저를 만나러 한번 오셔야 겠
네요.

지금은 그 주소도 잊고 없다. 아! 그 집에 가 보지 않은 것이 뉘우쳐진다.

—가장 중요한 발명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바로 이 점에서 출
발해야 합니다, 하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 발명들은 단지 가장 단순한 것들의
확인 설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비밀들은 드러나 있어 날마다 우리
눈에 띠는데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을 때를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나중에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의 우리를 가엾게 여길 겁니다. 우리의 불빛
과 연료를 깊은 땅속에서 이토록 힘들여 파내는 우리, 다음 세대 걱정은 하지도 않
고 석탄을 마구 쓰는 우리를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빈틈없이 알뜰해져서, 지구
의 모든 뜨거운 지점에서 계제 나쁘거나 남아도는 열을 끌어 내어 한군데로 모으
는 방법을 언제나 배우게 되겠어요? 그럴 날이 오겠지요! 암, 오고말고요, 하고 그

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었다. 그럴 날이 오겠지요, 지구가 다시 식기 시작할 때 말예요, 왜냐하면 석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때일 테니까요.

—한데, 선생의 말씀이 너무나 예민한 걸로 봐서 선생 자신도 발명가가 틀림없겠네요? 그가 다시 빼저들 것으로 보인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내가 말했다.

—선생,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고 그는 얼른 말을 이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수레바퀴나 바늘이나 팽이의 발명자, 그리고 아이가 굴리는 굴렁쇠가 똑바로 선다는 걸 맨 먼저 알아챈 사람에 비한다면, 파스퇴르나 라부아지에, 푸시킨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볼 줄 알기,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잘 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세요, 호주머니만 해도 얼마나 멋진 발명입니까! 그럼요!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겠지요? 아무튼 모두가 그걸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찰만 하면 됩니다. 아! 보세요! 지금 들어오는 저 사람을 조심하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갑자기 어조를 바꾸고 내 소매를 옆으로 잡아당기면서. 저건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으면서 남들 것을 가로채려 드는 얼간이 노인입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제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그는 양로원의 수석 의사인 내 친구 C…였다). 그가 저 가엾은 신부님께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보세요 ; 평복을 입고 있어도 저기 저 신사는 사제거든요. 위대한 발명가지요, 저분 역시. 저분과 내가 서로 통할 수 없었다는 건 딱한 일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함께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 ; 내가 말을 걸면 저분은 마치 중국말로 대답하듯 하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나를 피하고 있어요. 좀 있다가 저 늙은 얼간이가 비켜나거든 가서 만나 보세요. 저분이 별의별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도 알게 될 겁니다 ; 다만 저분이 생각의 일관성만 좀 모자라지 않다면…됐어요, 이젠 혼자 있군요. 자 가보세요.

—선생이 발명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요.

—그게 꼭 아시고 싶으세요?

그는 먼저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몸통을 갑자기 뒤로 젖히며, 소리를 낮추어 이상하도록 점잖은 말투로 :

—내가 바로 단추의 발명자입니다.

내 친구 C…가 멀어지자 나는, ‘그 신사’가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두 손으로 이마를 받친 채 앉아 있던 벤치 쪽으로 갔다.

—어디선가 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까? 하고 내가 인사 삼아 말을 걸었다.

—나도 그런 것 같군요.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한데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아까 그 가엾은 대사와 이야기하시던 게 바로 선생 아니신가요? 그래요, 지금 저기서 혼자 거닐다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는 저 친구 말예요…저 친구는 어떻게 지내던가요? 우리는 전에 좋은 친구였었지요 ; 한데 샘 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나 없이 자기 혼자로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를 두고 볼 수가 없게 되고 만 겁니다.

—그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친김에 내가 물었다.

—곧 아시게 됩니다. 선생. 선생도 그에게서 들었을 테지만, 그는 단추를 발명했습니다. 한데 단춧구멍의 발명자는 바로 나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사이가 틀어지셨군요?

—그럴 수밖에요.

IV

복음서의 글자에서 방어나 금지를 나는 딱히 찾아내지 못한다. 그보다는 되도록 밝은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며, 그래서 나는 겪어 보고 느낀다, 내가 탐내는 이 땅의 물건은 저마다가, 바로 내가 탐내기 때문에 불투명해져, 온 세계가 당장에 투명을 잊게 되거나 내 눈이 빛을 잊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느님이 내 넋에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피조물 때문에 창조자를 저버린 내 넋은 영원 속에서 살기를 그만두고, 하느님 나라의 소유권도 잊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이 그 살아 있는 형체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듯이, 저는 제 마음에 거짓말하기에 지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거룩한 친구인 당신을 피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도, 제가 도처에서 되찾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까다로운 제 마음이 만족하는 것은 이제 당신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완벽하다는 것을, 또 모두를 벼려야 저는 당신을 되찾을 수 있기에, 제가 당신 말고는 모두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제 마음속의 악마만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된 젊음의 문턱,
천당의 현관이여,
새로운 기쁨에
제 넋이 얼떨떨하니…
주여, 저의 도취를 부추겨 주소서.

고임을 잊고 불행에 빠져
당신을 그리는 제 넋을
당신에게서 따돌리는
이 공간을 없애 주시고…
주여, 저의 황홀을 더해 주소서.

맨발 자국이 새겨지는
메마른 사막,
솟된 나의 시여
각운을 피하지 말라.

무사태평과 과거 망각에
도취한 내 넋이.

장단 맞는 물결을 타고
건들거리며 나아간다.

첫물 꽃들도 푸짐한
떨기나무가 웃을 때,
눈물 글썽이는 늙은 떡갈나무에다
술한 새 떼가 둥지를 짓는다.

웃음들아, 거룩한 리듬들아,
잎가지들을 흔들어 주렴!
포도주보다도 더 독한
음료를 나는 먼저 맛보았다.
오, 너무나 밝은 빛이여
내 눈꺼풀에 스며들라!
주여, 당신의 진리가 저를
심장에 이르도록 명들게 했습니다.

만남들

어느 축제 날, 피렌체에서였다. 무슨 축제? 이젠 생각도 나지 않는다. 산 트리니타
다리와 베키오 다리 사이의 아르노 강둑 쪽으로 난 내 방의 창문에서 나는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 군중이 더욱 달아오를 때 그 속에 뛰어들고 싶어지
기를 기다리며. 상류 쪽에서 응성거리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베
키오 다리 위에서, 다리 꼭대기를 꾸미는 집들의 배경이 느슨해지면서 다리 한복
판에서 얼마간의 공간을 드러내는 바로 그곳에서, 군중이 서둘러 대며 난간 위에
몸을 숙이는 것이, 팔을 뻗고 내민 손들로 흙탕인 강물 위의 작은 물건 하나를 가

리키는 것이 보였다. 소용돌이 속에서 떴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며 물살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나도 내려갔다. 행인들에게 물어 보니 한 소녀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다 ; 펼쳐진 치마 덕분에 얼마 동안은 떠 있었지만, 지금은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작은 배들이 기슭에서 풀려 나갔다 ; 갈고리 든 사람들이 저녁때 까지 강물을 뒤지고 다녔다 ; 부질없이.

이럴 수가! 이 북적대는 무리 중에서 아무도 그 아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붙잡지를 못하다니!…나는 베키오 다리로 갔다. 그 소녀가 아까 뛰어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열댓 살 난 소년이 행인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었다. 그 소녀가 느닷없이 난간을 뛰어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 달려들어 소녀의 팔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잠시 동안은 허공에서 불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 뒤에서는 군중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지나쳤다 ; 혼자서는 그 아이를 다리 위로 끌어올릴 힘이 없어 도움을 청하고 싶었었다 ; 한데 그때 소녀가 그에게 말했다 : “제발 좀 내버려 둬.” 그 목소리가 하도 애처로워 끝내는 손을 놓아 버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 자신도 어쩌면 가족이 없다면 텔 불행했을지도 모를 그런 불쌍한 아이들 중의 하나였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상해 보았다. 그 소녀를 팔로 붙잡고 죽음에서 구해 주려던 그 순간에, 소녀의 절망을 함께 느낀 그도 소녀처럼 절망적인 사랑에, 둘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던 그 사랑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가 손을 놓아 준 것은 바로 동정 때문이었던 것이다. ‘Prego…lasciatemi’).

아는 사이냐고 누가 물었다 ; 천만에, 처음 봤다는 것이다.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었고, 며칠 동안의 온갖 수소문도 헛일이었다. 시체는 되찾았다. 14살짜리 아이의 시체였다 ; 무척 여위고 무척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못 내놓았겠는가! 혹시 아버지에게 정부나, 어머니에게 애인이 있었던가, 그래서 살기 위해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부서지고 만 것인지…

—하지만 당신이 기쁨에 바치겠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고 나타나엘이 나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사뭇 더 간단한 표현으로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정말이지 남의 가난을 빌미로 삼는 행복이라면 나는 바라지도 않아. 남의 것을 빼앗는 부유도 나는 바라지 않고. 내 옷 때문에 남이 벗어야 한다면 나도 벗겨벗고 가겠어. 아! 주님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모두에게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의 그 잔치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모두가 거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는 너무나 엄청난 가난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자기 행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서는 그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행복해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행복해져야 할 의무, 거역 못 할 의무를 나는 마음속으로 느낀다. 그러나 남을 희생시키고 남에게서 빼앗은 소유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행복은 다 나에게는 가증스러워 보인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비극적인 사회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내 이성의 온갖 논증들로도 공산주의의 비탈에서 나를 부축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¹ 그리고 하나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가진 사람더러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일이다；한데 자기 넋이 얹매여 있는 재산의 자발적인 포기를 가진 사람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튼 생각인가. 나로서는 모든 독점적인 소유를 싫어해 왔다；내 행복은 남에게 베푸는 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죽음도 내 손에서 대단한 것을 앗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껏 앗아 가 봤자 흘어져 있는 천연의 재산들, 불들리지 않는 만인 공유의 재산들이 고작일 것이다；내가 유달리 물리도록 누려 본 재산들 말이다. 그 밖의 것들로 말하자면, 더없이 잘 차려진 식탁보다도 나는 주막집 식사가 좋고, 담장을 둘러친 더없이 아름다운 정원보다도 공원이, 더없이 희귀한 판본보다도 마음 놓고 산책에 들고 갈

1 나에게는 오르막길로 보이는 이 비탈에서 내 이성이 내 마음을 다시 만났다. 뭐라고 말할까? 내 이성이 오늘날에는 마음을 앞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더러 이론가에 불과한 것이 때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지만, 공산주의를 감정의 문제로 삼으려 드는 그딴 잘못 또한 지금의 나에게는 중대해 보이는 것이다. (1935년 3월)

수 있는 책이 좋으며, 또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라야 한다면, 그 작품이 아름다울수록 더욱 내 슬픔이 기쁨을 앞서게 될지도 모른다. 나의 행복은 남들의 행복을 늘여 주는 데 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모두의 행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나는 기쁨을 향한 초인간적인 노력에 감탄해 왔고, 감탄하기를 그만둔 적이 없다. 우리에게 인용된 그리스도의 첫 말, 그것은 바로 “행복하도다…”이다. 그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둔갑시킨 일이다. (참된 기독교도는 맹물에도 족히 취하는 사람이다. 가나의 기적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도 자신 속에서이니까.) 슬픔과 고통의 신성화나 승배를 복음서 위에 덧씌우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가증스러운 해석이 필요했었다.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너희는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덜어 줄 테니”라고 그리스도가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려면 짐을 지고 무진 애를 써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 그래서 그분이 베푸는 짐 덜어 주기를 ‘너그러운 용서’로만 알았던 것이다.

기쁨이 슬픔보다는 더 드물고 더 힘들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여겨 왔다. 그래서 아마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틀림없는 이 발견을 내가 했을 때는, 기쁨이 나에게는 비단(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타고난 욕구에 그치지 않고—나아가서는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자기 주위에 행복을 퍼뜨리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기 자신이 행복의 모습을 갖는 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행복하면서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전에 쓴 적이 있다 ; —왜냐하면 무지 위에 세워진 그런 행복이 나에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첫 말씀은, 슬픔마저도 기쁨 속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우리는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이 말에서 올도록 부추긴다는 뜻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만저만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 2 부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있다(Je pense, donc je suis)—
내가 걸려서 비트적거리는 것이 바로 이 그러니(donc)에서다.
나는 생각하고 나는 있다(Je pense et Je suis) ; 다음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
나는 느낀다, 그러니 나는 있다—아니면 또 :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나는 있다—왜
냐하면 이것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마니까 :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있다고 느낀다.
한데 이 세 가지 명제 중에서는 마지막 것이 가장 옳고,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여
겨진다 ;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요컨대, 내가 있다는 뜻을
어쩌면 품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내가 있다고 믿는다”도 마찬가지다.
하나에서 또 하나로 옮아가는 데는, “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다”를 하느님의
존재 증거로 삼는 만큼의 대담성이 있다. 한편 : “나는 내가 있다고 느낀다…”—여
기서는 내가 판사이자 원고이다.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틀리겠는가?

나는 그러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Je pense donc que je suis)—나는 내가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있다.—왜냐하면 나는 그 무엇밖엔 생각할 수 없으니
까—

보기 : 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삼각형의 각들이 2직각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있다.—그렇다면 밝
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다 ; …그러니 이를테면—나는 중성으로 남아 있게 되
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 그러니 나는 있다.
이것은, 나는 괴로워한다, 나는 숨 쉰다, 나는 느낀다 : 그러니 나는 있다 :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도, 생각하지
않고도 곧잘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느끼기만 하는 동안은, 내가 있다는 생각은 않은 채 나는 있는 것이

다. 이 생각하는 행위에 의해 나는 내 존재를 깨닫는다 ; 한데 동시에 나는 있기만 하기를 그만둔다 :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있다라는 말은,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와 맞먹으며, 저울대와도 같아 보이는 이 ‘그러니’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다. 저울판 양쪽에는 내가 얹은 것밖엔, 즉 똑같은 것밖에 없다. X=X인 것이다. 말의 앞뒤를 아무리 바꿔 봐도 헛일, 한참 뒤에 심한 두통과 산책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문제들’ 중의 더러는, 딱히 시시하지는 않아도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그 해결에 우리의 결정을 매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다. 그러니 무시하고 넘어 가도록 하자.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나는, 왜 내가 이 땅 위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지를 말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내가 그 분 눈에 띠지 않을 리가 만무하니까요 ; 나는 우선 그 여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찾아 보고, 알아 보고 해요. 그래도 당신은 행동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운 짐은 빨리 보관소에 맡겨 두자 ; 그리고 에두아르처럼 그 보관증도 얼른 잃어 버리기로 하자.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란 생각보다는 사뭇 더 힘든 일이다. 자연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물질의 하찮은 흔들림도…물질은 어째서 들어 올려지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그러나 그 정보 때문에 내가 무신론에서보다도 덜 당신의 신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정신에 곧잘 스며들고 번져 생기가 있다는 사실 ; 정신이 물질과 뒤섞일 만큼이나 굳게 맺어져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대하는 나의 놀람을 나는 정말이지 종교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나의 어리둥절함을 승배라고 부르자, 나도 동의한다.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비단 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하느님을 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으며, 있지도

않다는 것을 나는 도처에서 보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 자신도 바꿔 놓지 못할 것 모두를 나는 거룩함이라고 부를 용의가 있다.

괴테의 어느 글¹을 (적어도 끝머리 몇 마디는) 본받은 이 말투에는 괜찮은 데가 있다. 즉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보다는, 자연법칙들에 (말하자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어긋나는 하느님, 자연법칙들과 뒤섞이지 않는 그런 하느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스피노자의 주장과 구별될 만한 점이 없는 것 같군요.

—나는 이 말을 스피노자와 구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스피노자에게 덕 보고 있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 괴테를 나는 이미 인용했습니다. 저마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얼마간은 늘 남의 신세를 지게 마련이지요. 내가 매여 있고 또 닮기도 한 어떤 정신들을, 당신네 교회의 ‘신부님들’마저도 당신이 존경하는 만큼이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즐거워요. 한데 당신네 전통이 어떤 거룩한 계시를 회상 하며, 바로 그 때문에 생각하는 자유 모두를 스스로 금하는 데 반해, 이 또 하나의 아주 인간적인 전통은, 내 생각에 제 힘을 남겨줄뿐더러 부추겨 주기도 하며, 내가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진실로서 받아들이지 말도록 나더러 권하고 있거든요—그나마 그 속에는 어떤 교만도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아주 참을성 있고 조심스러워 겁먹을 만큼이나 겸손한 생각을 지닐 수 있으면서도, 인간은 어떤 거룩한 계시의 신비로운 개입 없이 스스로는 아무런 진실에도 이를 수 없다고 믿는 그 가짜 겸손을 싫어하는 그런 전통이지요.

만남들

요즈음은 나에 대한 말이 많았어, 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말하셨다. 술한 소문들이 들려오더군. 좀 난처할 만큼이나. 그래, 나도 알고 있지, 내가 인기가 있다는 걸.

1 Dichtung und Wahrheit(시와 진실—16권.)

하지만 나를 두고 하는 말은 모조리 내 마음에 들지 않기 십상이거든 ; 게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수도 있어. 한데, 이거 봐요! 당신도 당사자이니(당신도 문학을 뽑내고 있으니까, 안 그래?) 나한테 말해 줘야 할 거야, 술한 허튼소리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든 그 하찮은 말 : “하느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만 말해야 할 것이다”…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그 하찮은 말은 제 말입니다, 하고 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 봐, 하고 하느님이 이 순간부터 말을 놓았다. 더러는 내가 개입해서 기성 질서를 흐트러뜨리기를 노상 바랄지도 몰라. 내 법칙들에 계속 충실하지 않으면, 만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속임수를 쓰는 것이 되고 말거야. 그러니 그런 자들은 내 법칙에 순종하는 법을 좀 더 잘 배워야 해 ; 그래야만 그 법칙들을 가장 잘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인간은 제가 생각하기 보다는 능력이 더 많은 거야.

—인간은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 하고 하느님이 말을 이으셨다 ; 내가 인간더러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의 평가를 인간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다.

그러고는 다시 :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었어.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된 일이지. 애초에 주어진 몇 가지 여건들에서 모두가 태어났어, 마치 내 뜻은 무시한 것처럼. 따라서 싹이 조금만 돋아나도 그것이 나에게는, 신학자들의 터무니없는 모든 궤변들보다도 나은 설명이 되거든. 나의 창조 속에 동시에 흘어진 나는, 그 속에 숨어 자취를 감추다가는 노상 되나타나곤 할 만큼이나 나는 내 창조와 뒤섞여 있어, 창조 없이도 내가 정말로 존재할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야 ;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가능성들을 증명하는 셈이지. 한데 그보다도, 모든 번갯불이 조화를 얻는 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 속에서라고 말하는 게 낫겠지 ; 왜냐하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저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밖엔 존재하지 않는 것니까 ; 그래서 더없이 상쾌한 새벽도, 더없이 듣기 좋은 바람의 노래도, 물

에 비친 하늘의 그림자도, 물결의 살랑거림도, 인간에게 거두어져, 인간의 감각들이 그것으로 조화를 만들어 내기 전에는, 터무니없이 허튼수작들에 지나지 않은 거지. 온통 구겨진 내 창조가 채색되어 생동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민감한 거울에서 지...

—내가 인간들에게 무척 실망하고 있다는 고백도 해야겠군, 하고 그분은 다시 말 씀하셨다. 내 자식들이라고 가장 많이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더욱 승배한다는 핑계로, 그들을 위해 내가 땅 위에 마련해 준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있거든. 그렇다, 나를 자기네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들이 여위고 고민하고 내핍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어쩌면 상상이나 할 수 있단 말인가?…내게는 다 소용없는 짓인데도!

너희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 부활절 달걀을 덤불에 감추듯이, 나도 가장 아름다운 비밀들을 감춰두었어. 그걸 찾아내려고 얼마간의 고생을 사서 하는 자들을 나는 특히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이 하느님이라는 낱말을 살펴보고 검토해 볼 때, 그것이 거의 알맹이 없는 말임을 나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내가 이토록이나 쉽사리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내벽이 얼마나 늘어나는 형태 없는 꽃병이다, 저마다가 마음 내키는 것을 집어넣지만, 우리 중의 하나가 넣은 것밖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런 꽃병인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전능을 쏟아 넣는다면, 이 그릇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 나 자신에 대한 배려와 우리 저마다에 대한 친절을 담는다면, 이 그릇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는가? 내가 벼락을 담아 준다면, 번개 칼을 옆구리에 달아 준다면, 내가 겁먹고 떠는 것은 이미 소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 때문이다.

조심성도 양심도 친절도 다, 인간이 없다면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를 자신에게서 떼어놓는 인간은, 이 모두를 아주 막연하게, 순수 상태에서, 이를테면 추상적으로 상상해, 그것을 하느님으로 삼을 수도 있다 ; 그는

심지어, 하느님이 시작한다고, 절대 존재가 앞선다고, 그래서 현실의 원인이 되고 그러다가 자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 마침내는, 창조주에게는 피조물이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만물의 창조자도 아닐 테니까.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도 완전한 상관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 없이는 또 하나도 없다고, 즉 창조된 것 없이는 창조주도 없다고, 하느님에게 인간이 필요한 이상으로 인간에게 하느님이 더 필요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나 없는 또 하나를 상상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욱 쉽사리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 ;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이다. 한데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나는 창조 전체와 일체가 된다 ; 나는 말도 많은 인간성 속에 녹아서 흡수되는 것이다.

만남들

하느님 이야기는 관둡시다, 하고 그 귀여운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 좋아요, 하느님은 선생님께 맡겨드리지요 ; 선생님하고는 토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제가 느끼니까요. 게다가 하느님은 사람들 말마따나 언제고 순해 보시는 경우란 없어, 당신 자식들은 언제나 되찾게 마련이거든요. 선생님도 바라건 안 바라건 그중의 하나입니다. 신부님이 어제도 저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 하느님이 선생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선생님 뜻과는 상관없이 말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착하시니까요. 한데 선생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옹고집만 아니시더라도, 선생님의 착함이 그분의 착함의 한 부분이며, 선생님이 지닌 착한 것 모두가 그분에게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금방 인정해버리실 텐데도…하지만 지금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온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아! 천만에요, 이번만은 제가 봐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알고 싶어요, 시인이신 선생님이 어떻게 성모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 아니면 차라리, 자만심 때문에 그걸 자인할 엄두가 나지 않은 채 사랑하고 있든지요. 어쨌든 지독한 고집쟁이세요!…아침에 아직도 졸고 있는 목장들 위에 떠도는 은빛 안개가, 바로 성모님의 옷자락이라는 걸 왜 솔직히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일렁이는 물결 위에 느닷없이 내려앉는 잔잔함이, 뱀을 정복한 성모님의 순결한 발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지요? 떨면서 별들에서 내려와 밤의 어둠 속에서 샘물을 반짝 이게 하며 선생님 마음속에 비치는 저 빛살, 선생님도 감탄하는 저 빛살은 바로 성모님의 눈길이고요 ; 또 산들바람에 살랑거리는 앞가지의 선율적인 속삭임은 성모님의 목소리지요. 성모님 자신은 오로지, 순결에 대한 욕망 말고는 다른 욕망이 없는 넋만이 볼 수가 있답니다 ; 그래서 성모님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순결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당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저는 성모님을 뵈 적은 없습니다 ; 그럼요, 아직은요 ; 하지만 저를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고, 성모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자! 어때요, 좀 암전해지세요 : 성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니까요.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더구나 성모님은 하도 너그러우셔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어린 예수여도 용서하실 정도입니다. 아! 예수님!…하지만 제가 그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의 아들이라는 건 잊지 않습니다. 하기야 한쪽 없이 한쪽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요 ; 그래서 한꺼번에 성령이신 겁니다. 그럼요, 한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선생님의 저항이 이해되지가 않는군요. 그래서 제 생각을 감히 다 말씀드린다면… ; 바로 이 점에서 선생님은 좀 바보가 아니신가 싶군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자꾸나, 하고 내가 말했다.

하느님이라는 낱말을 마치 나의 가장 애매한 개념들을 버리는 쓰레기터와도 같이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것은 프랑시스 잠의 흰 턱수염 달

린 하느님과는 통 닮지 않았으면서도 실감이 더 나지도 않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차차 머리카락과 이빨, 시력, 기억력을, 끝내는 목숨을 앓게 되듯이, 나의 하느님도 늙어 가시면서 (늙어 가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 나이지만) 전에 내가 태워드린 모든 특질들을 잊고 말았다 ; 존재, 아니, 이를테면 실재를 비롯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분 생각을 그만두면 그분도 있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나의 승배만이 그분을 창조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승배는 그분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 ; 그분은 나의 승배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그것은 겨울 장난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 뒷감당을 나 혼자서 해 왔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그것을 즐기기를 그만두었다. 그 거룩한 찌꺼기는 그 후에도 얼마 동안 개성도 이미 없어진 채로 미학 속으로, 운율의 조화 속으로, 자연의 *conatus vivendi*(살기 위한 노력) 속으로 도망치려 들었으니…이제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할 관심조차 나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전에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그것은, 개념과 감정과 호소들의 그 어수선한 더미들은, 그 호소들에 대한 응답의 더미들은, 나 때문에만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는 나도 알고 있는 그 더미들은, 이제 생각해 보니 그 모두가 나에게는, 세상의 나머지 모두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온 인류보다도, 사뭇 더 소중한 관심거리로 여겨지는 것이다.

세계와 삶에 대한 얼마나 엉뚱한 견해가 우리의 비참의 4분의 3을 빚어 내고 있으며, 오늘의 기쁨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서는 내일의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에 대한 짐작 때문에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 물결 하나하나의 곡선이 아름다운 것은 오로지 먼저 물결의 물러감 덕분이고, 꽃송이는 저마다가 제 열매를 위해 시들 의무가 있으며, 그 열매도 떨어져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꽃피어남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봄 자체도 겨울의 문턱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류 역사의 가르침들보다는 자연사의 가르침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위와 같

은 고찰들이 나더러 권하고 있으며, 늘 권해 왔다. 전자를 나는 하찮은 이득으로 여기고 있다. 그것들은 언제나 요행수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더없이 하찮은 풀의 자라남도 한결같은 법칙들에 따르고 있으며, 그 법칙들은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고, 하다못해 그 논리로 귀착되는 일은 없다. 여기서는 실험이 되풀이될 수 있으며, 설사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해도, 더욱 엄밀한 관찰, 더욱 총명하게 저지된 관찰만 한다면 마침내는, 영구불변한 하나의 진리에 언제나 더욱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능가함으로써 내 이성이 부인하지 못할 그런 하느님에게.

자비심 없는 하느님에게 말이다. 한데 당신들의 하느님은 당신들이 그분에게 태워주는 자비심 말고는 더 많은 자비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 자신 말고는 비인간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아무래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래서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느님보다는 그리스 신들의 존재를 나는 더 쉽사리 믿는다. 한데 이 다신교를 나는 아주 시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근본적인 무신론과 맞먹는다. 스피노자가 비난받은 것은 바로 그의 무신론 탓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내 말은 가장 순종하는 신도들이, 흔히 그러는 이상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동정심마저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다 ; 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말이다.

기독교적인 가설…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도 그 가설은 유물론적 검증들에 뒤흔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

하느님의 트릭들 중의 하나를 덮쳐 적발했다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범행현장에서 마주친 셈이 되는가?

번개가 생겨나는 까닭을 알아냈다 해서 우리가 벼락을 하느님한테서 빼앗는 셈이 되는가?

—별도 너무 많고 세계도 너무 많다고, X…는 생각한다, 지구를 매달아 그 인력의 동기가 되어 주고, 덥혀 주고 밝혀 주며, 시인들에게 꿈꿀 건너기들을 대 주기에 딱히 필요한 지구 둘레의 별들밖에 하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 자기도 믿게 되겠지 하고 믿고 있는 그는. 그러나 자기가 우리의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다 ; 그래서 인류의 속죄라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고—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이미 중심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도 둘 중의 하나는 틀림없는데—어느 쪽이 나에게는 더 납득할 수 없는 것 인지를 나는 여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무수한 세계들이 들어 살고 있는 하나의 무한한 공간. 그 많은 별들로 제한되어 있어 단 하나도 더는 없는 그런 하나의 세계라면, 그 별들이 돌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면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내 정신이 부딪치는 한계다. 내 정신이 더는 날아가지 못할 공백이다. 장애가 되는 현존 ; 아니면 얼씬도 못 할 어림없는 부재—주어와 목적어의 동시 부재—점진적인 부재, 아니면 어디서 시작되는 부재일까? 현존이 시나브로 줄어들게 될 그런 부재 ; 아니면 느닷없이 오는 완전 제거일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옛날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놀라지 않았던가 : 지구는 어떻게, 또 어디서 끝나게 되어 있을까? 하고 말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지구의 둑근 원둘레의 출발점이 도착점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마침내 이해된 그 날이 오기까지는 말이다.

인간 정신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내가 얻고 나서부터 나는 확신 없이도 곧잘 지내왔다. 그것이 인정되고 나면 무슨 할 일이 남았는가?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억지 확신들이라도 받아들여 그것들이 거짓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아니면 확신 없이 지내는 법을 배울 것인가? 내가 성심성의를 다해 애쓴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러한 젖 떼기가 인간을 절망으로 이끌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제 3 부

I

자연 모두가 노력하는 것은 바로 관능의 즐거움을 향해서다. 이 즐거움이 풀잎을 자라나게 하고, 싹을 돋아나게 하고, 봉오리를 피어나게 한다. 꽃부리더러 햇살의 키스들에 응하게 하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결혼으로, 무단 애벌레를 번데기 상태로 이끌어 주며, 나비를 번데기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에 이끌려 모두가, 가장 큰 안락을, 더 많은 깨달음을, 진보를 열망하니…책들에서보다도 이 즐거움에서 내가 더 많은 가르침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책들에서 명확함보다는 모호함을 더 많이 발견한 것도 이 때문이고.

이 즐거움 속에는 심사숙고도 수단도 없었다. 나는 이 기쁨의 바다 속에 분별도 없이 뛰어들어, 혜엄치면서도 삼켜 들지 않는 데 놀라고 말았다. 우리의 존재 모두가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이 즐거움 속에서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결심 없이도 이루어졌다 ;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내맡긴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나쁘다는 말을 나는 곧잘 들어왔지만, 나는 그것을 몸소 겪어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요컨대 나는 자신보다는 남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고, 아니 그보다도, 육신의 욕망이 매혹적인 혼란 쪽으로 은근히 쏠려, 나를 정신없이 흥분시켰던 것이다.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 동안은, 어떤 도덕의 탐구가 나에게는 씩 빈틈없는 것으로도, 심지어는 가능한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었다. 나를 탐구하기를 그만둔 것은 바로 사랑 속에서 나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당분간은 모든 도덕을 물리치고 다시는 욕망과 맞서지 말아야만 했었다. 욕망들만이 나를 가르칠 수 있었다. 나는 그것들에 몸을 내맡겼다.

만남들

오! 단 한 번만이라도! 하고 그 가엾은 불구자가 내게 말했었다…베르길리우스 말 마파나, ‘누구이건 내 속을 태우는 사람’을 내 두 팔로 한 번만 얼싸안을 수 있었으면…그런 기쁨을 알고 나면, 다른 기쁨들을 더는 맛보지 못하더라도 더욱 쉽사리 단념이 될 것만 같아요 ; 죽음도 더욱 쉽사리 감수하게 될 것 같고요.

—딱한 친구!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런 기쁨은 한 번 맛보고 나면 더욱더 바라게만 될 걸요. 당신이 아무리 시인이라 하더라도 그따위 일들에서는, 회상에 시달리기 보다는 상상에 덜 시달리게 마련이요.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겠다는 생각이요? 하고 그가 대꾸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떤 기쁨을 따려는 순간에 갑자기 비켜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마치 고행자나 그랬을 법하게.

그것은 단념 때문이 아니고, 그런 행복이 무엇일 수 있을까에 대한 빈틈없는 기대나 예감 때문이었었다 ; 어떤 쾌락의 준비도 쾌락을 명 들이지 않고서는 쾌락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가장 달콤한 황홀은 불시에 온 존재를 불들게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행복을 실현시켜 봤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갈 도리밖엔 없어지고 말 정도로 빈틈없이 완전한 기대나 예감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하다못해, 관능의 기쁨을 겁먹게 하며, 육욕이 가라앉은 뒤의 뉘우침을 넘더라도 지레 갖게 하는 그 모든 내색 앓기와 수줍음, 체면 유지, 소심한 망설임을 나한테서 몰아낼 줄이나마 알았던가. 나는 내면의 봄으로 온통 차 있어, 내가 내 길에서 만나던 반영들이, 모든 탄생과 꽂피어남들이 나에게는 그 봄의 메아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었다. 나는 하도 뜨겁게 타고 있어 내 열기를 모든 남에게 전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마치 자기 담뱃불을 내어 주고도 자기 담배는 불을 냉겨 주었을 때름이듯이. 나는 내 몸에서 모든 재를 털어 내고 있었다. 내 눈길에서는 날뛰는 어수선한 사랑 하나가 웃고 있었다. 호의란 분산된 행복에 지나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 그래서 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

는 것이었다. 행복해진다는 단순한 효과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아니다. 내 나이와 더불어 오는 것으로 내가 느낀 것은 욕망의 감퇴도 포만도 아니었다 ; 그러나 탐욕스러운 내 입술 위에서 너무나 재빠른쾌락의 고갈을 자주 지레 짐작하던 나에게는, 소유가 추구보다는 가치가 덜해 보였으며,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갈증을 풀기보다는 갈증 자체를, 쾌락보다는 그 약속을, 사랑의 충족보다는 사랑의 끝없는 확대를 더욱 좋아하게 되고 말았다.

만남들

그가 겉으로는 병후 요양을 마치고 있었지만, 실은 죽을 채비를 하고 있던 그 발레마을로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병 때문에 하도 변해버려 알아 보기도 힘들 정도였다.

—제기랄 ; 좋지가 않아요 ; 도무지, 하고 그가 말했다. 내장마다가 탈이 생겨, 이젠, 차례로 : 간장, 콩팥, 지라…내 무릎은 또 어떻고! 궁금하거든, 이걸 좀 보게 나.

그러더니 이불을 반쯤 쳐들어 야원 다리를 내밀고는, 관절 언저리의 커다란 공 비슷한 것을 드러내 보였다. 땀을 몹시 흘리는 바람에 속옷이 몸에 달라붙어 여윈 몰골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슬픔을 감추려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걸 자네도 알고 있었어, 하고 내가 말했다. 한데 여기서는 좋아 보이는데 안 그래? 공기도 좋고. 먹는 건 어때…?

—썩 좋아. 나를 살려 주는 게 바로 아직은 괜찮은 소화지. 며칠 전부터는 몸무게도 되늘어났어. 신열도 내리고. 오! 요컨대, 눈에 띄게 나는 좋아져 가고 있어.

미소 짓는 시늉에 피로의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으나, 그가 어쩌면 소망을 다 잃은 것은 아니라고 나는 짐작했다.

—제다가 이젠 봄이야. 자네는 곧 정원에 가 있을 수도 있어, 하고 내가 얼른 덧붙

였다, 자꾸만 넘치는 눈물을 감추려고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면서.

—그러잖아도 날마다 점심 후에는 잠시 정원에 내려가 보곤 해. 저녁 식사만 내 방에 올려오게 하고 있거든. 아침은 억지로라도 공동 식당에서 들기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거른 것은 사흘뿐이야. 나중에 두 층을 되올라오는 게 좀 힘들기는 해 ; 하지만 느긋하게 해 보고 있지 : 한꺼번에 네 계단 이상은 오르지 않고, 잠깐 쉬며 숨을 돌리곤 해. 그래서 20분은 걸리게 마련이지. 하지만 조금은 운동도 되는 셈이고 ; 그러니 내 침대를 되찾게 되는 것이 나로서는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 게다가 방 청소할 시간도 내주게 되는 셈이고. 한데 나는 무엇보다도 빈둥거리고만 지내는 게 두렵거든…내가 읽는 책 좀 볼래?…그래, 이건 자네의 땅의 양식들이지. 이 작은 책은 내 손에서 떠나질 않아. 내가 이 책에서 얻는 위안과 용기를 자네는 알 수 없을걸세.

전에 내가 들은 어떤 칭찬보다도 나를 감동시킨 말이었다 ;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책이 강한 사람들의 신임밖에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있었으니까.

—암, 그렇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나 같은 처지에서도, 꽂피기 직전인 정원에 있을 때는, 지나가는 순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거든, 파우스트처럼 말일세 :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좀 면취주렴.” 그럴 때는 모두가 조화롭고 아리따워 보이거든…다만 답답한 것은, 그 콘서트에서 나 자신이 틀린 음을 내고 있는 것만 같고, 그 그림에서 내가 얼룩을 내고 있는 것만 같아서…그다지도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었는데!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쪽으로 눈길을 돌린 채. 그러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두려운 듯이 :

—자네가 우리 부모님께 내 소식을 좀 전해 줬으면 해. 나로서는 이제 그분들에게는 편지 쓸 엄두도 나지 않게 되고 말았으니 ; 더구나 사실을 말해드릴 엄두가. 내 편지를 받아 보실 때마다 어머니는 당장에 이렇게 답해 오시거든 : 내 가 병든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 행실을 고치려면 내가 이 점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나을 자격이 있게 될 거라고. 그러면 나는 좋아져 가고 있다고 어

머니에게 한결같이 말해드리지, 내 마음을 신성모독으로 채우는…그런 생각들을 피하려고 말일세. 그러니 자네가 대신 좀 써 주게나.

—당장 오늘 아침에라도 쓰겠네, 하고 나는 그의 땀에 젖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 너무 꽉 쥐지 말게 ; 아프다니까.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II

우리나라 문학은, 그리고 유달리 낭만주의 문학은, 슬픔을 찬양하고 가꾸며 펴뜨려왔다 ; 그것도 사람을 가장 명예로운 행동들로 떠다밀어 주는 그런 능동적이고 과감한 슬픔이 아니고 ; 시인의 이마를 짐짓 파리하게 만들고 그 눈길에 노스텔지어를 퍼부어, 멜랑꼴리라고 불리던, 그런 넋의 무기력 상태였었다. 그 속에는 유행과 아양이 끼어들었었다. 기쁨은 너무 좋아 바보 같은 건강의 표시로서, 천해 보였다. 슬픔은 정신성이라는, 따라서 깊이라는 특권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토벤보다는 더 바하와 모차르트를 늘 좋아한 나로서는,

“가장 절망한 노래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뮤세의 그토록 격찬받는 시구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사람이 역경에 짓눌려 쓰러지고 마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 속에 자연 방임보다는 결심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코카서스 산 위에 묶여 고생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고 있음을, 그것도 둘이 다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 신들 중에서는 유독 헤라클레스만이 괴물들과 일곱 머리 뱀들을, 인류를 억누르던 그 온갖 끔찍한 힘들을, 정복한 시름을 자기 이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정복할 숱한 용들이 아직도 있고, 어쩌면 늘 있으리라는 것도…그러나 기쁨의 포기 속에는 좌절이 있고, 왕위 양보와도 같은 비겁함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남들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남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서는, 안락에, 행복을 허용하는 안락에도 올라서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조화에서 절로 생겨나는 그 행복을 단념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더구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데 약속된 땅—주어진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신들이 창피해 얼굴을 붉힐 만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장난감을 부수는 아이도, 제 먹이를 찾아야 할 목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제가 마실 샘물을 흐려 놓는 동물도, 제 둉지를 더럽히는 새도, 보다 더 어리석지는 않다. 오, 도시들의 서글픈 주변! 지저분함과 난잡함과 악취…도시의 띠이자, 식물이 제공하는 더욱 우거지고 더욱 다정한 모든 것의 보호자인 정원들—얼마간의 양해와 사랑만 있었어도—모두의 기쁨을 해치는 누군가의 하찮은 폭행만 억제되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을 나는 생각해 본다.

여가들!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모습을 나는 생각해 본다. 오, 기쁨의 축복 속의 정신적인 놀이들! 그리고 노동을, 불경스러운 저주를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그런 노동 자체를.

애벌레와 나방이 바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건, 어느 진화론자가 그것을 가정하려 들겠는가. 친자 관계는 불가능해 보이고 ; 바로 한 몸인 것이다. 내가 만일 자연과학자라면 나는, 내 정신의 모든 힘과 모든 의문을 이 수수께끼 쪽으로 돌렸을 것만 같다.

이러한 탈바꿈들을 목격할 기회가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더라면, 이 탈바꿈들이 더욱 보기 드문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더욱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기적 앞에서는 놀라기를 그만두게 마련이다.

변하는 것은 형태만은 아니다 ; 습성도 식욕도 바뀌니…

너 자신을 알도록 하라. 치사스럽고도 해로운 격언.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자” 애쓰게 될 그런 애벌레는 아무래도 나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다양성을 통해 나는 어떤 꾸준함을 곧잘 느낀다 ; 다양하다고 내가 느끼는 것은 언제고 바로 나이니까. 한데 그런 꾸준함이 있음을 바로 내가 알고 느끼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쓸 것인가? 나는 평생을 줄곧 나를 알고자 애쓰기를 스스로 거부해 왔다 ; 다시 말해서, 나를 탐구하기를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러한 탐구가, 더욱 정확히 말해서, 탐구의 성과가 나에게는, 존재의 어떤 제한이나 빈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였으며, 아니면 꽤 빈약하고 막힌 어떤 인물들만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 아니 그보다도, 그래서 얻어진 자아 인식이 그 존재와 그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 왜냐하면 사람은 발견된 자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마련이니까 ;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닮겠다는 생각에서, 또 신중한 태도를, 영영 잡지 못할 생성을, 노상 두둔해나가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어떤 확고한 일관성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 충실하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스스로 모순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전후 당착이 나로서는 텔 삶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는, 그러한 전후당착이 허울에 지나지 않아, 더욱 깊이 감추어진 어떤 영속성과 일치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또한, 어디서나 그렇듯이 여기서도 미사여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말은 삶 속에 흔히 있는 이상의 많은 논리를 우리더러 강요하니까 ;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장 값진 부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바로 그것이니까.

III

나는 때때로, 나는 흔히, 심술 때문에, 남에 대해 내 생각보다 더 나쁘게 말해 왔으며, 또 책이나 그림 같은 많은 작품들에 대해 내 생각보다 더 좋게 말해 왔다, 비겁하게도, 그 작자들을 내 적으로 삼게 될까 봐 겁이 나서. 통 익살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가끔 미소를 지었고, 시시한 이야기들을 재치 있게 여기는 체했다. 따분해 죽을 지경인데도, 더 놀다 가라…는 말 때문에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데도, 나는 때로 재미있는 체하기도 했다. 내 마음의 비약을 가로막도록 내 이성 더러 너무 자주 허용해 왔다. 또 한편으로, 내 마음이 입 다물고 있는데도 나는 너무 자주 지껄이기도 했다. 때로는 칭찬받으려고 바보짓들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칭찬받기는 틀린 그런 일을, 나는 늘 감행하지도 못했다.

뉘우침 중에서도 ‘temporis acti’는, 늙은이의 더없이 혀된 수작이다.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런데도 나는 그 속에 빠져들고 있다. 넋을 시나브로 하느님에게 이끌게 마련인 이런 뉘우침을 존중하는 당신들은 나를 그리로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의 뉘우침, 나의 가책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non acti’에 대한 뉘우침이고, 젊은 시절에 내가 할 수도 있었던 일,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데도 당신들의 도덕 때문에 못하고만 일에 대한 뉘우침인 것이다 ; 내가 이젠 믿지도 않는 그 도덕 때문에 ; 나에게는 더없이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내가 믿던 그 도덕, 따라서 내가 육신에는 거부하던 충족을 자존심에는 주게 되던 그 도덕 때문에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넋과 몸이 사랑에 가장 알맞아,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가장 어울리는 나이, 포옹이 더 없이 힘차고, 호기심이 더없이 발랄하고 유익하며, 관능의 기쁨이 더없이 값진 나이였을뿐더러, 넋과 몸이 똑같이 사랑의 유혹에 맞설 힘이 가장 강한 것도 바로 그 나이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불렀고, 나도 따라서 그렇게 부르던 유혹들, 내가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 그래서 오늘에 와서 내가 뉘우친다면 그것은 그중의 몇 가지

에 빠져든 일이 아니고, 다른 그 많은 유혹들에 저항했다는 일이다. 뒤늦게 그것들이 이미 매력도 털해지고 내 생각에 줄 아득도 줄어들고 말았을 때 비로소 내가 뒤쫓게 된 그 유혹들에 말이다.

내 짧은 날을 어둡게 만든 것을, 상상을 현실보다 좋아한 것을, 삶을 비켜섰던 것을, 나는 뉘우치고 있는 것이다.

오!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하지 않고만 모든 것을…그들은 삶을 하직하는 순간에야 생각하게 되겠지.—우리가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데도 하지 않고만 모든 것을! 동기 해명이 걱정스러워서, 기회만 자꾸 노리다가, 계을러 빠져서, 그리고 “까짓 것! 시간은 언제라도 있겠지”라고 혼잣말을 너무 해왔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마다를,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순간마다를 붙잡지 못 해서. 결심을, 노력을, 포옹을, 노상 뒤로만 미루어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오! 뒤에 올 너는 더욱 날렵하게 굴고 : 순간을 붙잡으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

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지점에, 지속되는 시간의 바로 이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지점과 시점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두 팔을 한껏 뻗어본다. 나는 말한다 : 이게 남쪽, 저게 북쪽…나는 결과다 ; 나는 원인이 되겠다. 결정적인 원인!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을 기회. 나는 있다 ; 그러나 나는 존재 이유를 찾아내고 싶다.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가 알고 싶은 것이다.

웃음거리가 될까 봐 겁이 나서 우리는 더없이 비겁한 짓들을 하게 마련이다. 용기에 넘친다고 자부하던 얼마나 술한 짧은 뜻들이, 자기네 신념에 바탕한 그 ‘유토피아’라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들 눈에 공상가로 비칠 두려움 때문에, 느닷없이 주눅이 들고 말았던가. 마치 인류의 위대한 진보 모두가 유토피아의

실현 덕분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마치 내일의 현실이 어제와 오늘의 유토피아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미래가 과거의 되풀이만은 아님을 승낙한다면 그것은, 사는 기쁨 모두를 나한테서 가장 잘 앗아갈 수 있는 생각이 될 것이다. 그렇다, 진보가 가능하다는 생각 없이는 삶이 나에게는 이미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고 만다—그래서 내가 《좁은문》에서 알리사에서 빌려 준 그 말에 나는 찬성하는 것이다 :

“아무리 행복한 상태더라도 진보 없는 상태를 내가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보도 없는 그런 기쁨이라면 나는 경멸하고 말거예요.”

우리가 겁에 질려 마땅할 만한 괴물들이란 거의 없다.

겁이 낳은 괴물들—밤에 대한 겁과 광명에 대한 겁 ; 죽음에 대한 겁과 삶에 대한 겁 ; 남들에 대한 겁과 자신에 대한 겁 ; 악마에 대한 겁과 하느님에 대한 겁—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날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러니 누가 했던가. 무모한 지혜, 진짜 지혜여. 너는 두려움이 끝나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준다.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어디에나 편안함과 기쁨을 갖다 주는 일이 이윽고 나의 욕구가 되었고, 나의 없지 못할 행복의 요구가 되고 말았다. 마치 내가 동정심에서 맛볼 수 있던, 이를테면 대리로 맛볼 수 있던 행복 말고는 나 자신의 그것은 이미 알아보지도 못 해. 오로지 남의 행복만을 가지고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야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그런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던 것은 모두가 나에게는 얄미워 보였다 : 즉 수줍음, 낙담, 이해 부족, 혐담, 터무니없는 고뇌를 떠벌여 보이는 응석,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혀된 갈망, 당파들과 계급들의, 국민들이나 인종들의 분열, 그리고 사람을 자기 자신이나 남의 적으로 만들려고 드는 모든 것, 불화의 씨 뿌리기, 압제, 협박, 불공평, 그 모두가 말이다.

다람쥐는 구렁이의 기어 다님을 용납하지 않는다. 거북이나 고슴도치가 몸을 도사릴 때 토키는 도망친다. 이런 갖가지 대립을 너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다른 것을 비난하기를 그만두라. 하나의 인간 사회는, 술한 활동 양식들의 사용을 강요하지 않고서는, 술한 행복 형태들의 싹틈을 드지 않고서는, 완벽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남을 타락시키는 자들, 우울하게 만드는 자들, 약하게 만드는 자들, 진보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 느림보들, 희롱하는 자들 : 그들이 나의 사사로운 적이 되고 말았다.

인간을 깎아내리는 모든 것을 나는 원망한다 ; 인간을 덜 현명하게, 자신을 덜 갖거나 덜 재빠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지혜에는 언제나 느림과 불신이 뒤따른다는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노인보다는 아이에게 지혜가 더 많기 십상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지혜라고?…아! 그들의 지혜라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지혜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피하며, 되도록 적게 살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충고에는 언제나, 뭔지 모르게 굳어지고 침체된 그 무엇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잔소리들로 자기 아이들을 명청하게 만드는 그런 어머니들과도 비길 만하다 :

—“너무 세계 흔들지 마, 밖줄이 끊어지니 ;

이 나무 밑에 있지 마, 천둥 칠 것 같으니 ;

축축한 곳은 걷지 마, 미끄러질 테니 ;

풀밭에 앉지 마, 옷이 더러워지니 ;

네 나이에는 좀 더 철이 들어야 할 텐데 ;

같은 소리를 너한테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겠니 :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 놓으면 못써요.

이 애는 정말이지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아! 부인, 당신보다는 그래도 덜하잖소.

뜻밖이면서도 무척 기다려지기도 한 기쁨을 나는, 가뭄 속을 종일 걷다가 숨 막히게 무더운 저녁에, 여행지 숙소에서 우리가 맛본 그 커다란 한 사발의 찬 우유와 비겨본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우유를 보지도 못하고 지냈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로지르던 고장은 졸음 병이 휩쓸어 가축에는 좋을 수가 없었으니까. 한데 사육이 가능한 보호 지역에 몇 시간 전부터 돌아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알 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 풀이 키가 덜 높았거나 우리의 말 탄 행렬이 더 높은 데서 굽어만 보았더라도, 우리는 덤불 속 여기저기서 가축 폐를 분간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우리가 갈증을 풀기 위해 기대하던 것은 미지근하고 수상쩍은 물밖에 없었다. 조심스러워 우선 끓이게 하고 알코올이나 포도주로 물을 들여도 역겨운 맛이 가시지 않던 그 물, 전날들에 마지못해 만족하던 그 물밖에는. 한데 그날 저녁에는 오두막집 그늘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짜 둔 그 한 사발 가득한 우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쭐했던가. 얇은 잿빛 모래 켜가 생겨 그 거죽이 흐려져 있었다. 우리의 컵이 그 가냘픈 막을 찢으니 속의 우유는, 낮의 더 위에도 불구하고 한결 더 순박하고 신선해 보였다. 새하얀 우유인데도, 우리가 마시던 것이 바로 그늘이고 휴식이고 위안인 것만 같은 느낌이었으니…

제 4 부

I

나는 숨 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좋아하지 않는다. 요컨대 내 정신이 힘을 기울이는 일은 계획 짜기이다 ; 건설하기인 것이다. 한데 내가 사용해야 할 재료들을 미리 시험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알려진 관념들이나 주의, 주장들도 내 정신은 스스로 알아 보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더구나 나는, 가장 잘 올리는 낱말들이 가장 실속 없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만 번지 레한 사람들, 관례 추종자들, 성인군자들을 나는 믿지 않아, 우선 그들의 허풍부터 까발리기 시작한다. 너의 미덕 속에 감추어진 그자만이, 너의 애국심 속에 감추어진 그 이해타산이, 너의 사랑 속에 감추어진 그 육욕과 이기주의가 나는 알고 싶은 것이다. 천만에, 내가 이젠 등불들을 별들로 인정하지 않는대서 내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아니다 ; 이젠 허깨비들에게 끌려 다닐 마음이 내키지 않는대서, 이젠 실재밖에 사랑하지 않는대서, 내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니다.

한데 이 확신 : 인간이 언제나 지금 같지는 않았었다는 확신이 당장에, 앞으로도 늘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해 준다.

하기야 나 또한 폴로베르처럼, 진보라는 우상 앞에서 미소짓거나 비웃을 수도 있었다 ;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하나의 싸구려 신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상업과 산업의 진보 ; 특히 미술의 진보, 얼마나 바보스러운 소리냐! 인식의 진보, 그건 틀림없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자체의 진보인 것이다.

인간이 언제나 지금 같지는 않았었다는 사실 ; 인간이 서서히 얻어진 존재라는 사실, 이거야말로, 신화들에서는 뭐라고 하건, 내가 보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불과 몇 세기에만 국한된 우리의 눈이, 과거에서 자기 자신과 늘 비슷한 인간을 알아볼 수도 있고, 파라오들 시대 이후로 인간이 달라진 것이 통 없다는 데 감탄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우리 눈이 나아가 ‘선사 시대의 구령들’ 속을 들여다본

다면. 그리고 인간이 언제나 지금대로는 아니었다면 어떻게, 앞으로도 늘 이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생성 변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를 단테의 그 지옥에 떨어진 자와 비슷한 것으로 상상하고는, 나더러도 그렇게 믿도록 하고 싶은 모양이다. 영원한 부동 상태에 절망해, “천 년마다 한 발짝씩만 내디딜 수 있어도 나는 이미 출발을 했을 텐데”라고 외치는 그 죄인과 말이다.

이러한 진보 관념은, 다른 모든 관념들과 비슷해지거나 그것들을 저한테 복종시킴으로써 내 정신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고전적인 시대가, 잠시 얻어진 균형을 내세워 부를 수 있었던 그 완성된 인간이라는 환상.) 인류의 현 상태는 반드시 능가 당하게 마련이라는 생각, 그것은 사람을 열광시키는 관념이어서, 그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기독교도의 악에 대한 증오와도 비길 만한)가 금방 뒤따르게 되는 관념이다.

이 모두는 일소되고 말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도, 마땅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도. 왜냐하면 이것저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은 인류의 구원을 과거에의 집착에서 찾고 싶지만, 진보가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과거를 밀어 냅으로써만, 소용없어진 것을 과거에서 밀어냄으로써만 되는 것이다. 한데 당신들은 진보를 통 믿으려 들지 않는다. “전에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일이다”라고 당신들은 말하고 있다. 전에 있었던 일, 그것은 앞으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인간은 전에 자기를 보호해 주던 것에서 차츰 풀려나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자기를 예속시킬 것에서도.

바꾸어 마땅한 것은 비단 세상만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런 새 인간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밖으로부터는 아니다. 동지여, 그것을 너 자신 속에서 찾아낼 줄 알도록 하라, 그래서 광석에서 찌꺼기 없는 순수 금속을 캐내듯이 그 기대되는 인간을 너한테서 요구하라. 그 인간을 너한테서 얻어 내라. 지금 그대로의 네가 되도록 분

발하라. 자신을 혈값에 놔주지 말라. 존재에는 저마다 놀라운 가능성들이 있다. 너의 힘과 너의 짚음을 믿으라. “나 하기에만 달렸다”고 노상 되풀이해 생각할 줄 알도록 하라.

뒤섞어서는 무엇 하나 좋은 것은 얻어지지 않는다.

내가 짚었을 때 내 머리는 튕기와 잡종과 기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택의 미덕.

으뜸가는 미덕 : 참을성.

단순한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런 기대는 차라리 끈덕짐과 혼동되니까.

만남들

1

술한 해묵은 약품들을 장 속에 간직하고 있던 한 상냥한 노처녀를 나는 부르보네에서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더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

그리고 처녀가 이제는 건강이 완전히 좋았었기에,

이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그렇게 간직하는 것은 아마도 부질없는 짓일 것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자 노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마다간 울음을 터뜨리지 않나 싶었다.

그녀는 약병들과 상자들과 튜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밀하기를 : —“이건 배앓이를, 저건 편도선염을 고쳐 줬어요 ;

이 연고는 살의 종기를 고쳐 주었지만 어쩌면 다시 도지지나 않을지 누가 압니까 ;

또 이 환약은 제가 변비에 좀 걸렸을 때 아주 편하고 시원하게 해 줬거든요.

이 기구로 말하자면, 이건 흡입기가 틀림없지만 거의 완전히 고장 난 것 같아 걱정
이구요…”

끝으로 그녀는 나에게 자백했다. 그 모든 약품이 옛날에는 아주 비싼 것들이었다
고 그래서 나는 이해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그 때문이었음
을.

2

이 모두를 버려야 할 때가 곧 온다.

‘이 모두’란 무엇일까?—더러에게는

축재한 재산더미, 부동산, 서재,

그냥 여가만 맛보고 있어도

기쁨을 얻게 되는 긴 의자들;

숱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노동이겠지.

가족과 친구들, 자라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손대다 만 일, 해야 할 일,

현실이 될 뼈도 하던 꿈;

다시 읽고 싶던 책들;

맡아 본 적도 없는 향수들;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한 호기심들:

당신의 도움을 기대하던 극빈자들;

얻기를 소망하던 평화와 평온…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가 끝장나고; 더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자, 어느 날, 들려오는 말 :

—당신도 알겠죠…공트랑 말예요; 만나 보고 오는 길인데. 그도 볼 장 다 봤더군
요.

한 주일 전부터 기진맥진이래요.

“나는 느껴요. 갈 날이 다 됐다는걸” 하고 되풀이하더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는 걸면서. 하지만 글렸어요.

—어디가 좋지 않은데?

—내분비선들에 탈이 있다고들 믿는 모양이지만, 심장도 몹시 좋지 않은 상태고요.

의사 말로는 일종의 인슐린 중독이래요.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당한 재산을 남길 거라는 소문이에요,

수집한 상패 메달과 그림들 말예요.

세무 관계로, 방계 친족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간다나 봐요.

—메달들이라고요! 그런 것에들 관심을 갖다니, 참 모를 일이군요.

그러니 똑똑한 체하지 말게.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을 자네는 봤어 ; 그다지 우스꽝스러운 데라곤 통 없었어. 자네는 두려움을 감추느라 애써 농담을 하고 있어 ; 하지만 자네 목소리는 떨리고 자네의 가짜 시는 끔찍스러워.

—그럴지도 몰라…그럼, 나는 죽어 가는 걸 봤으니…고통이 지나고 죽기 전까지는 가책이 무디어지는 순간이 흔히 있는 것만 같았어. 죽음은 우리를 불들려고 두꺼운 장갑을 끼거든. 죽음은 선잠 들게 하지 않고서는 목 조르지는 않지 ;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리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이미 제 실재와 함께 제 명백성도 현존도 잊어 버렸어. 이를테면 헤어져도 별로 괴롭지도 않고 아쉬워할 까닭도 없어질 정도로 색이 바래고만 그런 누리지.

그때 나는 혼잣말했다. 결국은 모두가 죽게 마련이니까. 죽기가 그다지 힘든 일일 수는 없다고. 요컨대 그것은 어쩌면 벌릇들이기 나름일 뿐일 것이라고, 단지 사람이 단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자기 삶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야속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종교가 말하기 십상이다 ; —걱정하지 말라. 그게 시작되는 것은 바로 저승에서

이고, 또 너는 보상도 받게 될 테니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승’에서부터인 것이다.

친구여, 아무것도 믿지 말라 ;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순교자들의 피가 일찍이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교자도 없고, 열렬한 신념을 고드기지도 않을 만큼이나 어리석은 종교라곤 있지도 않다.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다 ;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도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다. 알고자 하는 욕망은 의혹에서 생겨난다. 믿기를 그만두고 배워서 알도록 하라. 증거들이 없지 않고 서는 결코 강요하려 들지도 않는 법이다. 으스대지 말라. 강요당하고 가만있지도 말라.

심한 충격은—고통을 잡재우니…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 까무러친 이야기가 나오는 몽테뉴의 놀라운 글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루소의 사고 이야기도…정신을 차린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충격도 떨어짐도 그 밖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며…밤이 깊어 가고 있었다. 하늘이, 몇 떨기 별이, 그리고 약간의 초목이 눈에 띄었다. 그 첫인상은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아직은 그렇게 해서밖에는 나 자신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에 나는 생명에 눈뜨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 눈에 띠는 모든 대상들을 나의 가벼운 존재로 채워 나가는 느낌이었다. 고스란히 현 순간에만 쏠린 나는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으니…나는 아픔도 두려움도 불안도 느끼지 않았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잃어 버리고, 그 뒤에 찾았으나 혀일이던 그 작은 자연사 책, 이젠 책 이름도 저자도 모르는 그 책(그것은 자주색 천 장정에 삽화가 든, 소형판의 영어책이었었다). 이른바 자연과학 연구의 권장과도 같은 머리말밖에 읽지 못하고만 그 책. 그 머리말(그것만은 아주 뚜렷이 기억나지만)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고통이란 인간의 발명이며, 자연계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그것을 피하고 있다고 써어 있었다. 그래서 인간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고통은 거의 줄어들고 말 것이

라고. 살아 있는 존재마다가 고통을 겪어 낼 수 없다는 말은 아니고 ; 허약하고 발육 나쁜 존재는 다 먼저 자동적으로 그려듯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본보기들을 들고 있었다 : 그중에서도 암탉의 예는, 매 발톱을 피한 암탉이 당장에 그전 못지않게 태연스레 날알을 다시 쪘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도 그렇지만 내 생각도 같다 : 동물은 현재 속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재현(아쉬움과 뉘우침들)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매달리는 우리의 가공의 불행들 대부분을 면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도 곧 동조하게 되던 그 대담한 주장을 밀고 나가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딴 동물에 쫓기는) 산토끼나 사슴은, 달려가고 뛰어오르고 속임수를 쓰고 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끝으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는 본보기 : 심한 충격이 다 그렇듯이 맹수의 발 공격은 마비시키고 말기 때문에, 밥이 될 동물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죽어 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하기야 좀 지나친 그 주장 속에는 역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면도 보인다 ; 그러나 나는 그 주장이 총체적으로는 완전히 옳다고 믿으며, 그래서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연계에서는, 살아 있는 행복이 괴로움을 훨씬 능가한다고 믿는 것이다.

덜 어리석었더라면, 전쟁으로 빚어지는 불행들을 훨씬 더 많이 피할 수 있었고, 남에게 덜 지독했더라면, 가난으로 빚어지는 불행들도 더 많이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 우리의 불행들의 대부분에는 숙명적이고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우리 탓이기만 하다는 사실의 단순한 확인이다. 우리가 아직은 피할 수 없는 불행들로 말하더라도, 질병이 있으면 약도 있게 마련이다. 인류는 더욱 힘차고 더욱 건강하고, 따라서 더욱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불행들 거의 모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을 아무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II

그러니 내가 하느님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더욱 단순해지기 위해서이고, 그것이 신학자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연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며, 어찌다가 자연을 바라보는 수가 있더라도 자연을 관찰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너도 알아채게 될 테니까.

사람들한테서 배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가까이서 가르침을 찾도록 하라. 인간은 기형이고 가짜다 ;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평계와 속임수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나는 전에 쓴 적이 있다 : “한 대의 채소 수레에는 키케로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보다도 더 많은 진리가 실려 있다”고. 인간들의 역사가 있고, 옳게도 자연사(박물지)라고 불리는 역사가 있다. 자연사에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도록 하라. 그 목소리를 막연하게 듣고 만족하질랑 말고 ; 정확한 질문들을 하느님에게 던지고, 그분더러 정확하게 답해 주시도록 강요하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 관찰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린 것은 다 부드럽고 여리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 그래서 모든 쪽은 얼마나 술한 막으로 싸여 있는가! 그러나 처음에 여린 씨눈을 보호해주던 모든 것은 이내 그것이 싹트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 그래서 그 막들을, 애초에 배내옷으로 감싸 주던 것을, 터뜨리지 않고서는 어떤 성장도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는 제 배내옷을 애지중지한다 ; 그러나 그것들에서 풀려날 줄을 모르고서는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젖 뗀 아이가 어머니 젖꼭지를 밀어낸다고 해서 배은망덕은 아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젖이 아닌 것이다. 친구여, 사람들 손에 걸리지고 증류된 그 전통이라는 젖에서 끼니를 찾는 데는 너도 이젠 동의하지 않겠지. 깨물고 씹을 네 이빨들이 있으며. 네가 끼니를 찾아내야 할 것은 바로 실재 속에서다. 알몸으로 일어서라, 용감하게 ; 막들을 찢으라 ; 후견인들을 물리치라 ; 똑바로 자라나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네 수액의 용솟음과 하늘의 불러줌밖엔 없는 것이다.

식물은 다 제 씨앗들을 멀리 밀어 보낸다는 사실도 너는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

아니면 맛있는 것으로 온통 싸여 있어 새의 식욕을 꼬드기는 씨앗들은, 혼자서는 가 닿지도 못할 곳으로 새가 실어다 준다는 사실을 ; 또는 프로펠러나 깃털을 타고난 씨앗들은 떠돌이 바람에 몸을 내맡긴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식물을 너무 오래 먹여 살리다가는 흙이 메말라지거나 중독되어, 새로운 세대가 먼저 세대와 같은 곳에서 양분을 찾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조상들이 소화시키고 난 것을 다시 먹으려 들질랑 말라. 플라타너스나 단풍나무의 날개 달린 씨앗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라, 마치 부모의 그늘에서는 시들거나 말라들 도리밖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용솟음치는 수액이 되도록이면 줄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가는 끝 가지의 싹들을 부풀려 준다는 사실도 너는 똑같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 할 줄 알고, 되도록 과거에서 벗어날 줄을 알도록 하라.

그리스의 우화를 이해할 줄 알도록 하라 : 그것은 아킬레스가 어떤 공격에도 끄떡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엄마 손가락이 닿은 기억으로 연해진 몸의 그 부분만 말고는.

슬픔이여, 네가 나를 이겨 내지는 못하겠지! 한탄과 흐느낌 너머로 그윽한 한 가닥 노래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 노랫말을 내가 멋대로 만들어 내어, 내 마음이 굴복 직전임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주는 노래에. 친구여, 내가 네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노래, 용감한 마음으로 대답해 줄 사람들에 대한 호소로 가득 채우는 노래에 :

숙여진 이미들아, 그러니 다시 들라! 무덤들 쪽으로 쏠린 눈길들아, 다시 들라! 속 빈 하늘 쪽이 아니고 대지의 지평선 쪽으로 쳐들도록 하라. 죽은 자들이 온통 악취 풍기는 그곳들을 떠날 채비가 된, 거듭나 끗끗한 친구여. 네 발걸음이 너를 데리고 갈 그쪽으로, 네 소망이 앞으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과거에 대한 어떤 사랑에도 불들리지 말도록 하라. 미래 쪽으로 뛰어들라. 시를 꿈속으로 밀어 넣기를 그만두라 ; 현실 속에서 시를 볼 줄 알도록 하라. 시가 아직도 현실 속에 없거든, 그 속에 밀어 넣으라.

풀리지 않은 갈증, 채워지지 않은 식욕, 몸서리, 터무니 없는 기대, 피로, 불면증…이 모두가 너에게는 면제되었으면, 아! 친구여, 나도 그러기를 얼마나 바라겠는가! 모든 과일나무의 가지들을 네 손과 네 입술 쪽으로 구부려 주었으면. 담장을 무너뜨려 주고, 샘 많은 독점자가 ‘사유 재산, 출입 금지’라고 위에다 써 붙인 울타리들을 네 앞에서 쓰러뜨려 주었으면. 끝내는 네 노동의 대가가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오게 해 주었으면. 네 이마를 쳐들어 주고, 마침내는 네 마음이 미움과 샘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었으면. 그렇다, 마침내는 공기의 모든 어루만짐이, 모든 햇살들이, 행복에의 모든 초대가 너에게 가닿도록 해 주었으면.

뱃머리에 정신없이 몸을 구부리고 나는, 무수한 물결들과 섬들이, 이미 내가…한 낯선 나라의 모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다, 네 이미지는 속임수야, 하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그 물결들을 보고 있어 ; 너는 그 섬들을 보고 있는 거야 ; 우리는 미래를 볼 수는 없거든. 오직 현재뿐이지. 순간이 갖고 가는 것을 나는 보아 ; 순간이 나한테서 앗아 가는 것, 내가 다시는 보지도 못할 것을 생각해 봐. 뱃머리에 매달린 사람에게는 자기 앞에, 은유적으로 말해서 아득한 허무밖엔 보이지가 않으니…

—그것을 가능성이 채워 줬으면 해. 이미 있었던 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덜 소중하지 ; 지금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있게 될 것보다도 덜 소중하고. 가능한 것과 미래를 나는 혼동하거든. 가능한 것은 다 실현되도록 노력한다고 나는 믿고 있으니 ;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있게 될걸세, 사람이 거들어만 준다면.

—자네는 신비론자이기를 거부하고 있군! 하지만 자네는 곧잘 알고 있어, 그 모든 가능성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 실현되려면, 다른 가능성들을 모조리 허무 속에 처넣어야 하며, 그래서 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던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게 된다는 걸 말일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과거를 자기 뒤로 밀어 내야만 전진한다는 거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이를테

면 얼어붙은 눈물 기둥으로 둔갑했다고들 이야기하지. 미래로 돌아선 룻은 그때 자기 딸들과 동침하고. 아멘.

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인 너—지금은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나타나엘이란 이름으로 내가 전에는 불러왔고, 오늘은 친구라고 부르는 너—이젠 네 마음속에 애처로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

애처로움을 소용없게 만들어 주는 것을 너한테서 얻어 낼 줄 알도록 하라. 너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젠 남에게 간청하지 말도록 하라.

나는 살 만큼은 살아왔다 ; 이젠 바로 네 차례다. 앞으로는 내 짚음이 연장될 것은 바로 너한테서다. 나는 권력을 너에게 넘겨준다. 네가 내 뒤를 이어 준다고 느끼면 나도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나을 것이다. 내 소망을 너에게 거는 것이다.

네가 꿋꿋하다고 느끼면 나도 미련 없이 삶을 하직할 수 있다. 내 기쁨을 네가 가지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늘여 주는 것을 네 행복으로 삼도록 하라. 일하라, 싸우라, 그리고 네가 바꿀 수 있을 것은 아무것도 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내가 하기 에 달렸다는 말을 노상 자신에게 되풀이할 줄 알도록 하라. 비겁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달린 모든 악을 그냥 감수하지는 않는다. 지혜는 체념 속에 있다고 네가 일찍이 믿은 적이 있다면, 당장에 믿기를 그만두라 ; 아니면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 고 자부하기를 그만두라.

친구여, 사람들이 너에게 권하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질랑 말라. 삶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기를 그만두지 말라 ; 너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말이다 ; 우리의 지금 삶을 달래 주어 그 비참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또 하나의 삶, 미래의 삶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말라. 삶의 악들 거의 모두의 책임자는 하느님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이해하기 시작할 그날, 너는 이 악들을 그냥 감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질랑 말라.

지은이 소개 | 앙드레 지드 (1869~1951)

1869년 신교도이며 파리 법과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가톨릭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47년 소설 『좁은 문』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초반 프랑스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1908년 프랑스 문학평론지 〈누벨 르뷔 프랑세즈〉(NRF)를 자크 리비에르와 창간하였으며 저서로는 1891년 익명으로 발표한 『앙드레 벌테르의 수기』를 시작으로 『팔뤼드』(1895), 『지상의 양식』(1897), 『배덕자』(1902), 『좁은 문』(1909), 『전원교향곡』(1919), 『사전꾼들』(1926) 등이 있다. 프랑스 문학사상 거의 유일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의 작품은 주로 정신과 육체, 이성과 본능, 선과 악 등으로 세계를 이분하는 기독교 이원론이 바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분법적 사고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이성을 우위에 두는 가치관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옮긴이 소개 | 박은수 (1920~2004)

경상남도 진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외국어대 · 숙명여대 교수를 지냈으며, 불어불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5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바 있다. 편저로 『프랑스 문학사』, 『현대불문법』, 『불어입문』 등이 있고, 역서에 『루소 전집』, 『팡세』, 『알랭의 프로포』, 『발레리 시전집』, 『보들레르 시전집』 등이 있다. 담백하고 정확한 우리말로 옮겨 놓은 번역으로 명성이 높다.

땅의 양식

©사단법인 올재

초판발행 | 2014년 8월 28일

펴낸이 | 홍정우

기획 · 편집 | 이상민 황인정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7길 3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2-7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